

II. 과목별 必 합격 공부 방법론

www.lawschool.co.kr

5급 공채
(행정·외무)
국립외교원
수험가이드

PSAT 상황판단 공부 방법론

상황판단 전임

박준범 선생

1. 들어가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속상한 시험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PSAT나 사시가 그럴 수 있고, 토익이나 텡스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행정고시나 외무고시에 입문하시려는 여러분들도 학창시절에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공부를 별로 하지 않았는데도 성적이 잘 나오는 경우가 있는 시험은 PSAT 단 하나 뿐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기출 문제만 풀어보고 혹은 기출 문제에 모강 정도만 연습했는데도 PSAT 점수가 잘 나와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친구들이 꼭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친구들은 고위공무원이 되기 위한 적성을 많이 타고 나서 그런 것일까요? 절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PSAT 시험에 대한 공부 방법은 여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PSAT 상황판단 과목에서 요구하는 사고 방식, 접근 방법, 강약 조절, 감각 등을 깨닫고, 체득하고 있는 사람은 피나는 노력이나 꾸준한 연습 없이도 PSAT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 강의의 제1의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PSAT에서 요구하는 사고 방식이나 접근 방법은 어떻게 추론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바로 기출 문제에 있습니다. 기출 문제를 공부하면서 그런 사고 방식이나 접근 방법을 깨달으신 분들은 제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고 점검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제 강의를 통해서 상황판단 영역에서 요구하는 사고 방식이나 접근 방법 등을 느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2. 상황판단 과목이란?

I. 의 의

상황판단 과목은 구체적으로 주어진 상황을 이해·적용하여 문제점을 발견하는 능력 및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가능성(대안)을 제시하고,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영역입니다. 상황판단 과목은 상황의 이해 능력, 추론 및 분석 능력, 문제해결능력,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 등을 측정합니다.

II. 문항 구성의 소재

상황판단 영역에서 출제되는 문항(지문)의 소재는 특정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직자들이 접하게 될 실제적인 상황, 구체적인 사회적 이슈, 공공정책 등을 사용합니다. 문항(지문)의 소재를 다양화한 것은 수험자들의 학습 부담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접근할 수 있는 논리적·비판적 사고 능력과 문제해결능력 등을 함양하여 그 능력을 새롭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함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식은 대학의 교양 수준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구성하며, 교양 수준을 넘는 전문적인 용어가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각주 등을 사용하여 그 용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 상황판단 과목에 대한 접근 방법

I. 기출 문제의 중요성

2011년 현재 상황판단 기출 문제는 총 560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상황판단 공부의 시작이자, 마지막입니다. 매년 출제 경향의 변화가 다른 과목보다 큰 상황판단의 특성상 특정한 유형에 치우친 공부보다는 역대 기출 문제들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기출문제를 공부하실 때는 단지 그냥 정답을 맞추고 그 근거를 찾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출제자는 어떤 의도로 이 문제를 냈으며,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 접근 방법이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떠올리지 못했던 좋은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II. 속독의 중요성

PSAT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주어진 시간이 짧다는 데 있습니다. 보통의 수험생들은 5문제 정도는 풀지 못하기 마련이고, 10문제 가까이 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SPEED 위주의 접근을 위한 공부와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행정·외무·입법고시 혹은 견습시험을 준비할 정도의 지적 수준이라면 시간이 충분히 주어질 경우에 어떤 과제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판단에서 요구하는 것은 매우 한정된 시간 안에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핵심을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하느냐입니다.

III. 문제 풀이 과정의 연습

기출 문제는 모의고사 문제는 처음에는 반드시 한정된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를 하셔야 합니다. 1문제당 2분 정도를 평균으로 잡으면 되겠지만, 본 강사는 강의를 할 때 문제에 따라 50초~2분 30초 정도로 항상 약간씩 모자라게 책정을 해서 시간을 드립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겠지만,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서 SPEED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문제 Full-set로 연습하게 되면 체력적인 소모도 크고,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10문제 내지 20문제씩 단위로 푸는 것을 추천합니다. 10문제라면 20분, 20문제라면 40분의 시간을 정해서 푸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채점을 하신 뒤에는 시간을 여유 있게 갖고 다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시문의 내용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고, 선택지의 근거들도 하나씩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때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다면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었을까를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PSAT는 철저하게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논리적으로 5분 동안 해결하는 것 보다는 감각적으로 2분 만에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IV. 배경 지식의 습득

상황판단 문제들은 다양한 소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자주 등장하는 소재로는 법학, 국사, Quiz, 심리학, 행정학, 공공정책, 시사적인 내용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학문들을 공부하겠다는 자세는 옳지 못합니다. 하지만 각 분야별로 최소한의 중요하고 독립 가능한 개념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내용 등은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이런 부분은 학원 강의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엔 신문이나 잡지 등을 통해서도 배경 지식을 많이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상황판단 영역에서 요구되는 사고 방식이나 접근 방법을 느끼고 체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들을 접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문제로 구성될 수 있겠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4. 나가며

100m 달리기 시합을 준비하는 사람은 100m 달리기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매일 오래달리기를 연습하는 사람은 더 힘들고, 분명히 더 많이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합 날 좋은 성과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상황판단 영역에서 요구하는 사고 방식과 접근 방법이 담겨 있지 않은 여러분의 힘만 빼는 그런 강의가 아닌,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신 PSAT 상황판단 시험, 바로 그 시합에 맞추어진 그런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합격의 법학원 상황판단 전임
박 준 범

경제학 공부 방법

서영호 박사
New York University 경제학 박사
전 행정고시 출제위원, 채점위원
현 00대학교 경제학과 전임교수

1. 공부계획 수립

공부계획은 적은 시간에 많은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표 1>의 사항을 유념하여 계획을 수립하라.

<표 1> 공부계획 수립

경제학의 기본 틀을 정립하면서, 필요한 수학적 기법을 숙지한다.

경제학의 기본 틀을 정립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학적 기법이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먼저 숙지하여, 향후 개념 공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준비한다.

경제학의 개념들을 기본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경제학의 개념들을 이미 정립한 기본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다양한 경제적 현상을 분석할 기초를 마련한다.

기출문제들을 훑어보고 공부의 방향을 설정한다.

궁극적으로 어떠한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아 두면 공부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된다.

유사문제들을 유형별로 정리한다.

유사문제들이 약간의 변형을 거쳐 출제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유형별로 정리하면 적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리한 개념들을 문제풀이에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한다.

이미 공부한 개념들을 문제풀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방법을 확인하고, 전체적인 구조를 정리하면 준비가 완료된다.

2. 공부원칙 고수

공부를 장기간 지속할 때, 자칫 오류를 범하기 쉽다. <표 2>에서 정리한 공부원칙을 고수하라.

<표 2> 공부원칙 고수

이제껏 지켜온 자신만의 공부방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제껏 지켜온 자신만의 공부방법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일 것이다. 다른 방법은 자신에게 아직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응하는데 시간적 낭비를 유발할 수 있다.

편법을 좇지 말고 원칙을 추구한다.

가장 원칙적인 것이 지름길이다. 원칙에서 벗어난 편법은 오히려 낭비요인으로 작용하기 쉽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시험대비 특별 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한다.

공부를 장기간 지속할 때, 특별한 비법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착각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많은 소문들이 난무하지만 대부분 근거 없고, 그 시간에 문제 하나 더 푸는 것이 유익하다.

3. 신중한 교재선택

신중한 교재선택은 공부과정에서 낭비요소를 줄일 수 있다. <표 3>에서 설명하는 방법으로 교재를 선택하라.

<표 3> 신중한 교재선택

정리된 서브형태의 교재를 선택한다.

설명형태의 책은 매우 친절하게 개념을 다루지만, 정리하여 자신의 서브를 만들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처음부터 서브형태로 정리된 교재를 선택하라.

서브형태의 교재에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다른 설명형태의 책으로부터 보완한다.

어느 책이든 완벽할 수는 없으므로, 선택한 서브형태의 교재에서 누락된 사항은 다른 책이나 자료에서 보완하여, 개념정리를 단권화한다.

유형별로 분류한 문제풀이 교재를 선택한다.

유형별로 분류한 문제풀이 교재를 선택하여, 대표유형 하나만 풀고, 나머지 유사문제들은 차이점만 기억하여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간도 절약하라.

누락된 문제들을 분류하여 추가한다.

문제풀이 교재 역시 완벽할 수는 없다. 누락된 문제는 다른 책이나 자료에서 보완하여, 분류해서 추가한다.

기본개념을 정리하여 문제풀이에 활용하는 방법을 숙지한다.

최종정리를 할 때는 서브형태의 교재를 복습하면서, 문제풀이에 어떻게 활용되는가를 숙지하고, 문제풀이 교재에서 유형별 특징을 기억하면서 완성한다.

4. 답안작성 방법

5급 공채시험에만 해당하는 답안작성방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모든 주관식 시험에서 지켜야 할 사항들을 <표 4>에 정리하였다. 연습과정에서도 이를 기억하여 습관화하라.

<표 4> 답안작성방법

출제의도를 파악한다.

출제자가 무엇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지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최종적으로 답해야 하는 사항을 기억한다.

최종적으로 답해야 하는 사항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가능한 어귀까지도 동일하게 사용하면서 답을 준비한다.

답을 유도할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답을 유도할 과정을 시작 전에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자칫 중복되거나 누락되고, 순서가 역전되어 답이 정갈하지 못할 수 있다.

가능한 간결하게 전개한다.

채점자는 매우 많은 작업을 한다. 충분한 답을 하는 것은 좋지만,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

tip: 서술형 문장만이 답이 될 수 있다. 수식, 그래프, 표만 나열하는 것은 답이 될 수 없다. 이들은 설명을 간결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이므로 적시적소에 사용하면 큰 효과가 있지만, 연관된 설명과 함께 있어야 한다.

경제학, 이렇게 준비하라!

서영호 박사

- | |
|-----------------------------|
| 1. 완벽한 개념 정리 - 차례만 보고 정리하라. |
| 2. 완벽한 답안 준비 - 손으로 풀어라. |

많은 수험생들이 경제학의 개념을 정리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는

- ❶ “강의를 듣거나 책을 볼 때 쉽게 이해되었던 개념들이 막상 문제에 적용하려면 명확하지 않다.”
- ❷ “한 분야에 대한 집중분석은 가능하지만 여러 분야가 연관된 문제의 해결방법은 찾기 어렵다.”
- ❸ “나름 잘 안다고 생각했던 분야의 문제도 구체적인 답을 구할 때는 어려움을 겪는다.”
- ❹ “취약한 분야를 찾아내고 보충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잘 모르겠다.”
- ❺ “각 분야별로 정리를 할 때 출제 가능한 문제를 떠올리며 철저하게 대비하고 싶은데 쉽지 않다.”

등이다.

또한 경제학 문제에 대한 답안을 준비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는

- ❻ “문제를 처음 대하면 어느 개념을 사용해야 하는지 잘 파악되지 않는다.”
- ❼ “이어서 어느 모형을 적용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 ❽ “답안을 어떤 구조로 전개해 가야 할지 철저하게 대비하고 싶다.”

등이다.

이제 ❶, ❷, ❸, ❹, ❺의 문제와 관련해서 다음 1.의 방법을, ❻, ❼, ❽의 문제와 관련해서 다음 2.의 방법을 추천한다.

다음 1. 완벽한 개념 정리 - 차례만 보고 정리하라.

이는 책을 덮고 앞에 붙여 놓은 차례만 보고 이제껏 습득해 온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정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이 ❶, ❷, ❸, ❹, ❺의 문제를 해결한다.

❶의 문제는 습관과 기억력의 문제이다. 우리가 강의를 듣거나 책을 볼 때 이해되었다고 생각했던 개념 중에 대부분은 완벽하게 소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런데 이를 빠른 시간 안에 되풀이하여 재정리하지 않으면, 쉽게 기억에서 멀어지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의 직후 또는 책으로부터 지식을 습득한 직후 차례만 보고 개념을 재정리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방금 전 습득한 지식이므로 모두 기억이 날 뿐만 아니라 감퇴 속도가 매우 늦어진다는 뇌 학자의 연구 결과가 있다. 게다가 실제 시험장에서 책을 펼치지 않고 지식을 되살려야 하므로, 유사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크게 도움이 된다.

❷의 문제는 경제학 개념들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나온 결과이다. 이는 기본서만 반복해서 읽는다고 쉽게 극복되지 않는다. 책을 접고 각 개념들의 상호연관성을 생각하며 습득한 개념들을 다시 떠올리면 해결이 가능하다.

3의 문제는 개념의 이해가 부족한 것에 기인한다. 스스로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답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논리를 필연성에 따라 전개하는 연습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 암기가 아니고 논리의 매단계마다 다음 단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이다. 차례만 보고 정리하는 방법에서 이를 연습할 수 있다.

4의 문제는 스스로의 지식체계에 대한 온정적 인정 때문이다.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도 자신에 대한 온정적 마음으로 잘 알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에 의식세계에서 이를 찾아내기 어렵다. 더욱이 책을 펴고 다시 개념들을 보면 다시 일부의 기억이 떠올라 안다고 인정하게 된다. 따라서 책 없이 차례만 보고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 막히는 부분이 나타나고, 그때 곁에 있는 책을 통해 보충하면 매우 효과적이다.

5의 문제는 시각적 감각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책을 펴게 되면 보이는 것에만 집중을 하게 되므로 출제가 가능한 문제를 상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본 개념을 먼저 정리하고 이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들을 재정리하면 도움이 된다.

다음 2. 완벽한 답안 준비 - 손으로 풀어라.

이는 문제를 보고 펜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푸는 것이다. 펜으로 풀면 세밀한 계산까지 모두 하는 것이고, 손으로 푸는 것은 풀이 방법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펜으로 푸는 것이 손으로 풀어 방법에만 집중하는 것에 구체적인 과정까지 추가되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세밀한 계산을 진행하는 동안 문제 전체의 구조를 망각하게 되는 비용을 치러야 한다. 따라서 문제의 구조를 이해하고 푸는 방법에만 집중하고 싶을 때는 펜을 피하라.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이 6, 7, 8의 문제를 해결한다.

6의 문제는 이해력 부족이다. 이는 손으로 풀면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앞의 1에서 정리된 개념을 떠올리며 적용시키면 연습을 하면 극복할 수 있다.

7의 문제는 경험 부족이다. 이는 손으로 풀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의 구조를 집중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어느 모형이 적합한지 인식하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8의 문제는 연습 부족이다. 손으로 풀면서 정리하면 답안의 구조를 작성하는 연습이 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비단 경제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 적용해도 좋다.

1에서 필요한 “차례”와 2에서 필요한 “문제풀이 예시”를 제공한다. 경제학 준비에 활용하기 바란다.

경제학 공부방법론

- 윤지훈 -

I. 서론

경제학이라는 과목은 오랜 기간 동안 수학과 담을 쌓으신 분들에게는 쉬운 과목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다지 높은 수학적 사고를 요구하는 과목도 아니죠. 경제학이라는 과목을 시작할 때, 또는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거대한 벽으로 다가오시는 분들을 위한 공부방법론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Ⅱ. 수학적 기초

경제학, 특히 미시는 미분과 함께 숨쉬는 과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경제학에서 요구하는 미분은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테크닉적인 부분에서 간단한 속미분·겉미분, 합성미분, ln미분 정도만 할 줄 알아도 문제를 풀거나 공식을 도출하는데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스킬보다 더 중요한건 미분의 이해입니다. 사실 경제학에서는 무언가를 극대화 또는 극소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는 단순 계산 능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분 자체에 대한 사고와 미분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거시 경제학과 관련되어서 그래프의 이해는 정말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들의 속성 및 그래프의 분석, 도출 과정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해 나갈 때 거시경제학이 이해가 갑니다.

Ⅲ. 과목별 학습계획

1. 미시경제학

미시경제학은 단원간 연계성이 약한 과목입니다. 따라서 각 파트별로 이해가 갈 때까지 ‘아는 내용’을 늘려 가는 학습 계획이 필요합니다. 미시경제학은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공부했던 수학을 생각하시면 공부방법이 답이 나옵니다. 모르는 내용은 수업이나 교재를 통해 정리하시되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합니다. 수능에 나오는 인수분해 문제를 풀기위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예제문제를 풀어보셨는지 생각해보시면 대략적인 학습방법에 대한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2. 거시경제학

거시 경제학은 단원간 연계성이 굉장히 높은 과목입니다. 모든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어느정도 정리가 되어 있을 때 그제서야 학습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어려운 과목이죠. 따라서 거시 경제학의 경우는 기본서에 대한 비중을 상당히 높여야 합니다. 기본서를 같이 읽어주며 설명하는 강의는 필요 없습니다. 사실 내용의 이해는 부분적으로 들어가되 항상 전체 흐름을 잡아가려 노력하는 학습 방법이 필요합니다.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목차의 암기입니다. 목차를 암기하면 전체적인 흐름이 머리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부 내용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학과별 흐름에 대한 사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IV. 순환별 학습계획

1. 기본강의 및 예비순환

이 시기에는 경제학이라는 과목 자체에 대해 이해를 해야합니다. 잘 읽히지 않더라도 교과서도 한번 읽어보고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개별 내용들도 한번씩 이해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본강의는 경제학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예비순환은 원론적인 경제학 이해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 문제풀이를 위한 본격적인 심화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경제학이라는 과목의 세부 이해를 위한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2. GS-1순환

1순환의 목표는 내용의 단순화 및 실제 답안 작성을 위해 필요한 내용의 정리·축약입니다. 즉, 본격적으로 답안작성을 하기 전에 필요한 내용의 정리가 달성되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시기상으로 7월에 진행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를 풀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며 사실상 자신만의 서브 및 교재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간 갖춰온 실력이 아직 문제를 풀기 위한 지식이 되지 못했다면 1순환 시기에 완벽하게 정리를 해놓아야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 위주의 시험이 주 2회 진행되며 여러분의 목표인 답안 작성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3. GS-2순환

2순환은 1순환 기간 동안에 정리한 개별 세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문제를 다양하게 접하는 강의가 진행됩니다. 사실상 문제 풀이에 많은 시간을 쏟아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강의가 됩니다. 1순환보다 빠르게 이론을 정리하며 이틀에 한번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용과 문제와의 연계성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4. GS-3순환

1차 시험을 거치면서 사실상 머릿속에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멀게 느껴질 시기입니다. 2순환 시기에 충분히 정리를 하셨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동안 잊고 지내왔던 이론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 나가며 매일 모의고사를 통해 실전 답안작성을 통한 훈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순환은 강의 자체가 복습이 되어야 합니다. 강의 이후의 복습도 중요하지만 예습을 통해 최대한 2순환 시기의 경제학 마인드로 되돌려 놓는 것이 3순환 시기의 목표라 보시면 됩니다.

V. 순환간 학습계획

기타 과목도 쉬운 과목이 없지만 특히 경제학에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순환간 텀이 상당히 길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문제 대응력이 높은 고수가 되느냐 매 순환마다 항상 새로움을 느끼는 강의로 받아들이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느냐가 결정됩니다. 순환별로 공부계획을 짤때는 개별적인 계획에 의해서 또는 순환간 학원 특강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라도 1회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1회독은 단순히 독서가 아니라 문제 해결과 관련된 또는 그 이전 순환 때 배우고 이해한 내용들을 다시 복습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때 자신이 내용이 부족하다면 복습특강, 문제풀이가 전혀 안된다면 문제풀이 특강 등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기인을 만나 스터디를 구성하신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도 없겠죠!

VI. 기출문제에 대한 고찰

기출문제를 검토해 보신 분들이라면 생각보다 쉽게 풀리는 문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쉬운 문제가 출제된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은 사고를 해왔고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답안 수준에 큰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계산 실수라도 하는 날에는 정말 큰일이지요.

이렇기 때문에, 단원별로 자신 있는 부분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 고득점을 받을 수 없는 과목입니다. 아는 내용일수록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반복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어려운 문제는 남들도 어려워합니다. 여기에서 대박나려면 쉬운 문제를 정말 빠르게 정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점수를 전부 가져가도록 이론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당연히 ‘반복’이 필수적이겠죠!!

VII. 마치며

100명의 합격자에게 공부방법을 물어보면 100가지 공부방법이 쏟아집니다. 짧지 않은 수험생활을 최소기간으로 단축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부족한 능력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사회과목이 부족하시면 사회과목 순환을 열심히 따라가시고, 경제학이 부족하시면 경제학 수업을 열심히 따라가시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메꿔 나가시는 겁니다. 법적 마인드가 부족하신 분들은 법과목 수업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능력을 채워나가시면 됩니다.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만이 단기간 내에 합격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아직 2차 과목들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현재 자신이 계획하는 또는 진행하는 공부방법에 대해 주변 분들 또는 학원 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상담을 통해 고민해 보시고 혹시 잘못된 방법들을 ‘수정’해 나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그리고 자신의 성향에 일치하는 공부방법, 강사, 교재 선택이야말로 단기간 내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꿈을 향해 달리는 모든 분들 응원합니다.

행정고시 등 국가시험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에게 몇 자 고함

최성은 박사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이나 일정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사법시험을 떠올릴테고, 행정고시나 7급·9급 공무원시험, 외무고시를 생각할 것입니다. ‘이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가끔 받는데 과연 여기에 “답은 이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이고 수험문제의 답처럼 딱 떨어지는 정답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처한 상황, 생각하는 바, 공부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 강의도 해보고, 위원회나, 기업에도 적을 두어본 경험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 몇 가지만 써보겠습니다. 목표 설정과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하에서는 행정고시와 법학 과목 중 행시나, 사시의 시험과목인 행정법을 중심으로 써나가겠습니다.

1. 목표 설정

아무 시험이나 다른 사람들이 많이 공부하는 시험을 해보야겠다는 식- “친구따라 강남가는 식”(싸이 아저씨의 ‘강남 스타일’하고는 다른 얘기임)-으로 국가시험을 선택하는 학생들을 가끔 봅니다. 대학에 다니시는 분들 같으면 대학에 들어와서 경기도 안 좋고 취직도 잘 안 되니까 공직으로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하고 행시나 7급·9급 공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과연 자신에게 맞는지, 과연 그런 직업군들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없이 수험공부를 시작하는데 옆에서 보기에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다음 ‘사법시험을 공부하기 시작해서 한정된 기한 내에 좋은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해봤는지, 행정고시를 공부해서 과연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몇 년 후에 펼쳐질 자신의 미래 모습을 그려봤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시험을, 어느 정도 자신의 인생 기간을 투자해서 공부할 것인지 냉정하게, 목표설정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기한이 지나도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면 “저 포도는 시다.”라는 이솝우화의 구절을 생각하며 과감히 접을 줄도 알아야 시험 공부한 기간 동안 얻은 지식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해서, 수험 기간보다 훨씬 더 긴 인생에서 마음의 안정도 얻고 다른 분야에서 실력발휘를 할 수 있습니다. 수험 기간 관련 조사자료를 보면 사법시험은 5~6년, 행시는 4~5년, 외시는 5년 정도 (합격생 기준)라고 나오는데, 수험생들 대강을 살펴봐도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에는, 대학을 다녔던 학생들에게는 대학에서 공부한 기간까지 더해서 생각해야겠지요.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시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수험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거나, 보람차거나 재미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신 나름대로 고민 끝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은 노력하는 법이지, 다른 사람들 따라서 아무런 생각 없이 생겨(?) 난 목표를 쫓아가다는 금방 길을 잃고, 방향만 하게 됩니다.

2. 자신의 역량 파악

행정고시의 경우, 1차와 2차 시험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2차 과목의 시험은 주관식으로 행해집니다. 1차의 경우에는 PSAT과목, 2차의 경우에는 직렬마다 다르지만 일반행정의 경우,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 행정법과 선택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역량 파악에 있어서, 첫째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자신의 글쓰기와 관련된 것입니다. 1차는 객관식이지만 2차 시험은 주관식이므로 자신이 글을 쓰는 재주가 없다면, 그리고 글 쓰는 속도가 평균적인 속도에 비해서 너무 느리다면, 제한된 시간 내에 아무리 정확하게 쓴다고 해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타자로 답안을 작성하면 모를까...) 객관식은 자신 있지만 주관식은 자신이 없는 분들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해두어야 합니다. 정말 객관식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7급 시험을 도전해보시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둘째로 행정고시 지원 요건에 영어와 국사과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1차 시험 공부 열심히 하다가 “아차! 그게 빠졌네.” 하면서 1차 시험 얼마 안 남겨두고서 힘들어 하는 학생들도 가끔 보게 됩니다. 그 두 과목과 관련한 점수나 인증시험에 합격하지 않고서는 행정고시는 원서 지원도 못합니다.

셋째로 행정고시는 1차를 합격한 다음, 사법시험처럼 1년 유예기간을 주지 않습니다. 같은 해에 1차를 붙고 2차도 합격해야지 최종합격으로 연결되지, 1차 시험 붙은 것이 그 다음 해로 넘어가 1차 면제 후 2차만 합격하면 되는 사법시험과 같지 않습니다. 행정고시 시험 공부하는데 이 부분이 학생들에게 엄청난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차시험 합격 발표 시점과 2차 시험 일정이 평균적으로 약 4개월 여 인 것으로 아는데 1차를 합격했더라도 그 동안에 2차 시험 과목 공부해서 주관식 답안을 작성할 실력을 갖출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1차 PSAT시험 공부만 열심히 해서 아무리 1차에 합격한다손 치더라도 5개월 동안 2차 과목을 준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항상, 어느 시험이던지 실력이 있는 사람도 불합격할 수는 있지만 실력 없는 사람이 합격할 수는 없습니다. 행시는 이런 말이 딱 맞는 시험이라고 생각됩니다. 2차 시험 과목에 대한 실력을 어느 정도 갖춘 사람이 1차에 합격했을 때 합격 가능성이 높은 시험이지, 1차만 공부한 사람들은 해당 년도에 합격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시험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자신의 역량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2차 시험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윤곽을 잡고서 공부를 해온 사람들이면 1차 합격 후, 몇 개월 열심히 해서 합격할 수 있겠지만 1차 과목만 붙들고 있다가 1차 시험에서 합격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지도 모릅니다. 우선은 2차 시험 과목에 대한 공부가 선행된 다음에 1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장 분위기를 알기 위해서 1차 시험을 쳐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만의 타임 테이블대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험공부에 있어서는 자신의 역량이 어떠한 지 차갑고도 엄정하게 생각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한 수험생들이 잘 해냅니다. 어느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자기 자신을 알고서 국가시험 합격이라는 경쟁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하고... 손자병법 얘기를 여기서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3. 2차 시험 과목 공부 방법

행정고시 과목은 다 사회과학 과목입니다. 기술 고시부문은 좀 다르겠지만... 우선은 과목마다 전체적인 윤곽을 잡으신 다음에 개념 하나 하나 빠짐없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엽적인 부분, 책을 읽으시거나 강의를 듣는데 강의 부분이 그 과목의 전체에서 어디에, 왜? 등장하는 지 파악이 안 된다면 그런 공부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선은 전체적인 틀에서 그 개념, 사실의 위치 파악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기출된 시험 문제가 도대체 무엇을 담으로 쓰라는 것인지를 파악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왜? 라는 의문을 갖고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요령이 아니고 이해고 반복이 라는 점은 누구라도 잘 아실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정식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고시학원이나, 어디에서나 요령 요령하는데, 요령은 합격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다음에 요령이 합격에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라는 의문을 갖고서 공부하신 다음에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신 부분은 시험을 위해서는 물론, 여러분들의 인생, 앞으로 펼쳐질 다른 분야에서도 제기되는 문제에 있어서 해답을 제시해줄 것입니다.

2차 과목을 공부하실 때에는 이번 달은 무슨 과목, 내달은 무슨 과목... 이렇게 공부하지 마세요. 매일 주로 보시는 과목 이외에도 조금씩 공부해두셔야 그 동안에 익힌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학원 순환과정대로 따라 하시다가는 매번 공부한 것이 새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공부는 같이 해나갈 친구가 있으면 좋습니다. 혼자서 외롭게 공부하기보다는 책으로 익힌 것을 서로가 얘기하면서 매꿀 부분 있으면 매꾸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면 좋습니다. 수험 기간 동안 너무 혼자 지내면 정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혼자서 얘기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고 하다보면 모든 게 망가집니다. 육체적인 건강은 물론이고 정신 건강이 수험 기간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4. 맺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쓴 것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동주 선생님께서 쓰신 '서시'처럼 힘들지만 아름다운 삶, 보람찬 삶을 일구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즐겨찾기 행정법 공부방법론

정인영 선생

I. 행정법의 출제경향

판례 사례형, 단문형을 묻는 형태로 출제되는 것이 보통이고, 전반적으로 복잡한 사례나 특이한 판례보다는 오히려 기본적인 사항에서 출제가 되는 것이 보통이며, 최근 여러 공무원 관련 시험 등의 기출 문제라면 출제선상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문제에 대한 시비 등을 방지하고, 문제의 공개 및 채점의 효율성, 형평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여러 자격증관련 신문등에 실린 일부 교수님들의 글을 볼때 “어려운 문제보다는 기본적인 판례와 조문 그리고 이론의 조합을 통한 사례의 해결능력을 평가하여 수험생을 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등의 언급이 보이므로 이러한 추세가 진행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실무적인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판례를 변형하여 출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 판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II. 행정법 공부방법

행정법은 실제의 시험 있어서는 다른 선택과목에 비하여 부담스러운 과목이 아닐 수 없지만 우선 시험에 맞는 기본서를 결정하기가 가장 힘들기에 시험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에게 큰 고민거리가 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또한 행정법은 다른 과목에 비하여 일반법적인 단일법이 존재하지 않고 이론의 분분하여 난해한 과목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행정법을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은 새로운 이론보다는 판례의 견해와 다수설이 취하는 학설 정도에 대하여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법은 완성된 법률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생성, 발전하고 있는 과목이므로 끊임없이 신 이론을 수용하는 새로운 교과서가 나오고 교재도 자주 바뀝니다. 이런 혼란에 부화뇌동 하시지 마시고 자신의 영역에서 이해를 전제한 반복과 암기만이 여러분을 합격의 길로 안내하리라 봅니다. 결국 행정법의 경우 판례로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처분성 개념과 비유형적 행정작용, 단계적 결정 등에 촉각을 세우시면서 기본이론을 정리한다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 ①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는 초학자의 경우나 비법대생인 경우는 특히 법학의 일반 개념으로서 취소, 철회 등 기초적인 법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행정법공략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② 교과서의 도처에 제시되어 있는 판례의 구체적인 예들을 현실화시켜서 머리 속에 그려가며 공부하면 이해도 잘 되고 사례문제에도 무난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행정청이라고 가정하고 이야기식으로 접근해보거나 아님 실제로 자신이 취소쟁송등을 직접한다면’하고 생각하며 행정법이론을 적용시켜 보는 게 좋습니다.
- ③ 중요한 행정사건관련 판례가 속출하고 있어서 어느 과목보다도 최신판례의 동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용이 풍부하고 최신판례가 많이 소개되어있는 행정법판례 해설서를 별도로 첨가하여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III. 교재의 선택

교과서는 수험가에 통일된 것이 없지만 최근에는 교수님 혹은 강사님 책으로 한 권 짜리 책을 보는 추세입니다. 다만 교수님 행정법 교재는 불필요한 부분이 다소 있고, 학설소개가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논리전개가 뛰어나고 압축된 분량이어서 수험용으로 적합한 것으로 보여지며, 그밖에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강사님의 보충교재로 보안의 해나간다면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구체적인 학습방법을 교재 읽기, 강의 듣기, 스터디 하기, 판례 보기, 시험의 테크닉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교과서 읽기

(1) 교재의 선택

특정 교재의 선택이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강의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고, 혼자 공부하시는 분은 교재 선택시 여러 책을 놓고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의 설명을 각 비교하여 맘에 드는 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 분량 줄이기 및 정리

이 역시 밑줄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스스로" 정리 할 거 아니면 분량 줄이지 마세요. 공부하다 보면 "안봐도 충분히 숙지가 되어 있는 부분", "보면 알 수 있는 하는 부분", "봐도 모르는 부분", "외워지지도 않는 부분" 등등이 있을 것이고, 이는 사람마다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해 위주로 보다가 평소에 표시를 해 놓으세요. 이해를 하는 과정은 암기 부분을 줄이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이해를 하다가 마지막까지도 이해안되는 것만 외우면 되지, 미리부터 다 외우자고 들면 안됩니다. 그러므로 분량 줄이기도 역시 스스로 안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2. 강의듣기

(1) 강의의 필요성

행정법을 독학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아주 똑똑한 분이거나 아니면 이미 공부한 분이 아닌 한, 강의를 반드시 듣는 편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강의 과신하진 마세요. 강의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또한 어떠한 강의를 들었느냐가 그 사람의 실력에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다 주지도 않습니다. 결국 공부는 혼자하는 겁니다.

(2) 학교 수업을 들을 수 없다면 학원이라도 다녀야죠

학교강의를 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학원 강의라도 들어야합니다. 다만, 아무리 명강의라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강의라도 실망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할 겁니다. 스스로 판단하세요. 너무 남들에 휘둘리지 말고.

(3) 수업에 임하는 태도

많은 수험생들이 거저 떠먹여 주는 강의를 원합니다. 그렇게 공부해서는 절대 합격할 수 없음을 장담합니다. 수업에 적극적으로 임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의 노력이 "영원한 실력"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4) 질문을 많이 하세요

공부하다 의문 나는 점 질문을 많이 하세요. 부끄러워 마세요. 이걸 물어보면 창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정말 좋은 질문은 아무도 생각지 못하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걸 물어보면 정말 창피하지 않을까'하는 걸 물어보는 게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이런 거 다 아는 거 같아도 써보라면 태반이 제대로 못써요. 기본기에 충실한 것이 중요합니다.

(5) 복습을 위주로 학습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런 걸 수업 들은 적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전에 복습을 하시고, 반드시 자신의 논리와 비교하여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를 설득할 수 없다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터디등을 통하여 자신을 자꾸 시험해 보셔야 합니다.

3. 스터디 하기

(1) 스터디의 필요성

특히 공부할 때 스터디 많이 하죠. 머리가 하나보다 둘이 있으면 아무래도 낫겠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줄 수도 있고, 좋은 자료가 있으면 공유하기도 하고, 진도도 체크하면서요. 그러나 스터디가 잘 되면 유익하고 도움이 많이 되기는 하겠지만 스터디도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잘 되면 약, 못 되면 독

스터디의 전제는 수준이 비슷하고, 다들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 단계에 이르러야 스터디가 의미 있습니다. 다들 모르면서 스터디 한답시고 시간만 낭비할 수도 있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거저 먹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스터디는 유지될 수 없겠죠. 친한 분들끼리 스터디를 하다가도 종종 깨지는 경우가 이런 이유들에서입니다. 스터디는 잘 되면 약이지만, 못 되면 독입니다. 그냥 시간만 날리는 거지요.

(3) 너무 오래 싸우지들 마세요.

특히 잘 알지도 모르면서 내가 맞네 내가 맞네 싸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모르면 차라리 책을 더 찾아보고, 더 실력이 좋은 사람이나 교수님, 강사님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모르는 사람들끼리 싸워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문제제기 수준에서 그치세요. 이런 의문이 있구나 하고 나중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해를 하도록 하세요. 한꺼번에 너무 욕심내지 말고요.

(4) 밥터디 많이 하죠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따로 시간 내서 너무 길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먹는 밥 먹으면서 간략하게 서로 이야기 해 보고 밥 먹고 나서 다시 교과서 확인해 보는 식으로요. 결국 스터디는 어떻게 운용하는가, 어떠한 자세로 임하는가에 따라서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시간 낭비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는 겁니다.

4. 판례 보는 방법

(1) 판례의 중요성

최근에는 판례가 있는 부분에서 주로 판례를 재구성하여 사례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판례가 중요한 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2) 판례를 봤냐 안봤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느 부분의 판례를 봤냐 안봤냐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보고 무엇을 알았는가, 어떻게 판례를 이해하였는가 중요하겠죠.

(3) 판례에도 논리가 있습니다.

판례의 논리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판례가 어느 학설의 입장과 동일하다면 결론만을 알아도 그다지 상관이 없겠지만, 학설과는 다른 별도의 논리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판례가 하나의 학설처럼(그것도 아주 중요한 학설이겠죠) 그 논리를 정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행정고시 사회과학을 위한 수험전략 가이드

- 강 제 명 선생
現) 합격의법학원 정치학, 행정학, 정보체계론 전임

1. 수험과 수험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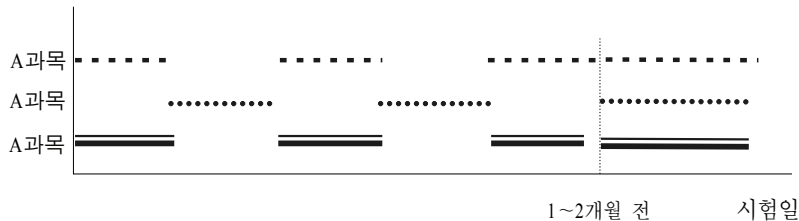
1 수험전략

[1] 인간의 기억과 수험전략

신린동의 고시합격 시스템은 고등학교나 대학의 시간표 형식과 달리, 한 과목을 끝내고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양자는 장단점이 있다. 전자가 과목에 대한 체계를 잡기 어렵다면, 후자는 같은 과목을 두 달에 한번 정도 보게 되어 기억이 가물가물해 진다는 것이다.

인간의 기억한계를 생각해 보면, 장기기억과 단기기억으로 나누어 진다. 장기기억이란 6개월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기억이 요구되는 상황이고, 단기기억이란 1개월 이내의 단기간 동안에 기억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통 ‘닥치고 암기’식의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데, 내용에 대한 이해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암기만을 하게 되면 시험장에서 나오는 순간 다 까먹게 된다. 이것은 공부방식의 문제로 단기기억 위주로 머리 속에 정보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필자의 수업을 들었던 일부 수험생의 경험을 보면) 한동안 행정학이나 정치학 책을 몇 개월 동안 놓은 상태에서도 시험점수가 일정이상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것은 장기기억 형태로 정보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 고등고시 시험에서는 장기기억과 단기기억이 모두 요구된다. 양자는 적절한 형태로 결합될 필요가 있다. 6개월 혹은 1년 계획을 세울 때, 처음에는 장기기억 형태의 공부방식이 요구된다면, 시험 직전(1-2개월)에는 단기기억이 중요해 진다.

장기기억은 지속적으로 보는 것보다, 집중적으로 본 후 한동안 놓았다가 다시 집중적으로 보았을 때 효과적이라 한다. 반면, 단기기억은 지속적으로 보는 것이 효과적이라 한다. 따라서,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경우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잡고 난 후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으며, 시험이 다가오면 전과목을 매일 혹은 2-3일에 한번씩은 보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의 기억력의 한계를 생각해 두어야 한다. 처음 보는 정보는 5일 정도가 지나면 1/2에서 1/3 정도만 남고 나머지는 가물가물해지게 된다. 한동안 놓았다가 다시 해당 정보에 접하는 경우에는 기억의 지속력이 5일에서 2주일 이상으로, 다시 1개월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수험에서 중요한 것은 자주 / 반복해서 보는 것이며, 어려운 과목일수록 반복학습이 중요하게 된다.

[2] 학원 수강과 학습계획

학원 수업을 수강하는 경우, 별도의 학습계획은 불필요하다. 그러나 수업을 들으면서 복습을 하지 않는

II. 과목별 必 합격 공부 방법론

다면 머리 속에 남아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그날그날 철저히 복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공부방법이다.

그리고, 수업 시간이 4시간이었다면, 복습에 걸리는 시간도 4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수업을 듣는 경우, 해당과목 4시간 복습과 취약과목(혹은 1차대비)에 대한 2시간 공부 시간을 할애하고 꾸준함을 유지할 때, 열심히 공부했다고 말할 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남들에게 공부한다고 말하지 않는 게 좋다. 회사 다니는 녀석들도 주 5일에서 6일 근무에 최소 8시간 노동을 한다. 수험생활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주 6일 공부에 매일 8시간 이상을 공부에 투자해야 한다.

만약, 학원 강의를 듣지 않는다면, 매일 취약과목 2-3시간, 그리고 주 과목에 대한 학습계획을 잡는다. 현실적으로 한과목에 대한 집중력은 3시간에서 5시간이다. 하루 종일 한과목만 보는 경우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두 과목 정도는 잡아 놓고, 집중력이 떨어질 때, 사회과학과목과 관련된 논문이나 단행본을 읽는 식으로 시간을 잡는 것이 좋다.

보통 학원을 수강하지 않고 혼자 공부할 때 1회독에 소요되는 기간을 보면, 경제학 1개월(2회독 때에는 20일 정도), 행정법 3주(2회독 때에는 15일 정도), 행정학/정치학 2주, 선택과목7-10일 정도라 보면 된다.

2 생활적인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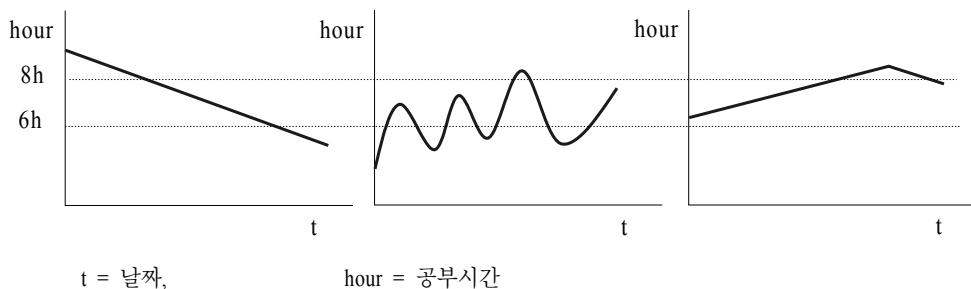
[1] 누가 합격할까?

시험은 장기전이다. 얼마나 꾸준히 공부했는지가 당락을 좌우하는 것이다. 아래 경우라면, 누가 합격할까?

		생활(꾸준함)	
		높다	낮다
머리(?)	좋다	A	B
	나쁘다	C	D

불행히도, B의 경우는 합격할 수 없다 --- 학력이 전부는 아니지만, 사법고시나 행정고시의 경우 서울대 출신의 합격률이 제일 높을거라 생각하지만, 소위 말하는 연/고대와 비교했을 때, 꼭 그렇지는 않다. 오히려, B보다 C가 합격할 확률이 훨씬 높다.

그러면, 아래의 경우는? 당연히, 세 번째 경우에 합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 시험 직전에는 컨디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을 조금 늘려 주어야 한다. 합격을 위해서는 운이 따라야 하지만, 꾸준히 공부하는 자에게 행운이 따르는 것이다.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 행운은 오지 않는다.



[2] 수험생의 적과 마인드 컨트롤

고시에서 ‘고’의 의미는 무엇을까? 우스게 소리로 苦(쓰다), 孤(외롭다), 固(한결같아야 한다) 등의 의미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고시는 자신과의 싸움이다. 최소한, 1년 6개월에서 2년여 기간 동안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합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시간 동안 수험생을 괴롭히는 가장 큰 적이 있다. ① 하나는 귀가 얇다는 것이고, ② 다른 하나는 나만 버벅(?)대는 것 같다는 것이다. 두 가지 모두 자신감의 문제다.

귀가 얇다 보니, 이 사람 말 들으면 이게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그게 옳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르르 몰려갔다가, 다시 또 다른 방향으로 우르르 몰려가게 된다.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경우도 있다. 이것저것 따져보고 판단하지 않고, 소위 대세에 따라 갔다가 그동안 보았던 책과 암기했던 내용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기 싫어서 고집을 피우기도 한다. 점수가 안나와도 자기가 명칭해서 혹은 암기를 못해서 그렇다거나 이 과목은 나와 안맞아서 그러는 것이라고 위안한다. 귀가 얇으면서도 자기만의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태도가 두 번째 성향으로 이어진다. 사실, 대부분의 수험생이 경제학이 어렵다거나(일행직) 행정학 때문에 돌아버리겠다(재경직)고 생각한다. 자기만 못하는 것 같고, 남들은 다들 앞서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만이, 그리고 자신의 실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만이 이런 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자신감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길은 자기 암시다. I can do? 아니다. [I HAVE DONE!!!]이라는 자기 암시를 걸어야 한다. mind control이라고 한때 유행했던 기법이 있지만, 별거 아니다. ‘할 수 있다 고 / 성취했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리 되어 버린다(이를 피그말리온 효과라 한다).

[3] 스트레스와 운동

고시촌에 있는 그 많은 수험생이 정말로 다들 열심히 할까? 아니다. 저녁만 되면 술집 등이 사람들로 넘쳐난다 --- 사실 먹고 놀만한 곳이 참 많다. 스트레스를 술 등으로 달래지만, 시간이 지나면 술이 사람을 마시고 시간을 죽이고 그것으로 끝난다.

운동을 해야 한다. 시험공부를 하다보면,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있게 마련이다. 게다가 안하던 공부를 하면서 뇌를 혹사(?)시키다 보면, 금방 배가 고파진다(뇌는 활동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한다). 고등학교 때 그랬던 것처럼, 밥 먹은 지 한 시간도 안되서 배가 고파진다. 먹기는 하지만, 육체적인 활동이 극소화되면서 배가 나오거나 엉덩이가 퍼진다. 반대로 체력은 떨어진다. 시험이 다가오면서 몸이 약해지고 보약을 생각해 보지만, 보약이라는 것은 현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이지 몸 상태를 개선해 주는 것은 아니다. 병원가면 신경성이라고만 한다. 애궁~~~!!

체력이 유지되어야 집중력도 유지된다. 즉, 운동을 해야 한다. 매일 40분~1시간 운동은 선택과목이 아니라 필수과목이다. 게다가 운동은 뒤끝 없는 스트레스 해소방법이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는 게 필요하다.

그 중에 하나가 뛰거나 걷기다(수영을 좋아하는 경우라면, 수영도 좋다). 30대를 넘긴 경우에는 처음부터 뛰는 것은 좋지 않고, 속보가 좋다. MP3 플레이어가 있다면 음악을 들으면서 걷거나 뛰면서 땀을 짹 뺀다. 그리고 주말에 혹은 한 달에 한번 정도 등산을 한다.

헬스장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다. 돈을 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운동을 한다는 게다. 그러나 이때 헬스장에서 서너시간 동안 죽치고 앉아 있는 죽돌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때로, 주말조기축구회에 가입하거나, 배드민턴을 즐기는 수험생들도 있다. 이런 경우라면, 주말 아침에 가서 격한 운동으로 저녁까지 시간을 보내고, 술을 진탕 마시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수험생에게 어울리는 운동은 천천히 땀을 짹 뺄 수 있는 그런 운동이다. 머리 속에 든 잡생각을 다 날려 버리면서도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다.

[4] 사람관계

자취 경험 있는 분들은 알 것이다. 혼자 밥먹을 때와, 아플 때 혼자 있는 것처럼 서러운 게 있을까? 수험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 중에 때로 자폐증이나 우울증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왜일까?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버리는 것이다. 공부기간이 늘어 나면서 먼저 합격한 녀석들이나 취직한 녀석들과 비교되면서, 자괴감과 자격지심이 커지고, 관계를 점점 끊게 된다.

함께 이야기하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있어야 한다 --- 같이 술로 시간을 보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알 것이다. 수험생의 어려움은 수험생활을 해본 사람만 이해한다. 부모나 형제, 애인도 이해하지 못한다. 결국, 유유상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수험생끼리 나누는 것이다. 소위 생활스터디라는 것

을 계획해 보라는 것이다.

아침 9시 전까지 책상에 앉아 있는지, 진도는 제대로 나가고 있는 지 등을 서로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필요한 것이다. 때로, 아픔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정보도 나누고...

2. 합격을 위한 전략과 로드맵

1 1차(PSAT) 학습 플랜

- ① PSAT는 적성검사로, 미래 잠재능력을 테스트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부량과 시험점수간의 비례성이 높지 않다. 다만, 상식과 논리에 관한 기초개념들을 확장해 나가는 것, 문제푸는 스킬을 다듬어 나가는 것은 점수를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점을 감안해서 학습 플랜을 짜야 한다.
- ② 이공계나 경제학 관련 전공자의 경우 자료해석에서, 인문계 전공자의 경우 언어논리에서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게 보통이다. 문제는 한국의 학교교육이 왜곡되어 있어 인문계 전공자라 할지라도 (요약된 자료가 아닌) 원문을 많이 읽어 본 경험이 많지 않아 언어논리에서 점수가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를 전제로, PSAT에 대한 학습플랜을 위한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자.

[1] 8월까지 어떻게 공부할까?

먼저, (특히,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수험생의 경우) 기출문제를 시간을 정해 놓고 풀었을 때, 자신의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 언어논리, 자료해석, 그리고 상황판단 중에서 어느 영역이 취약한지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점수가 해당 연도의 커트라인을 안정적으로 넘기는 경우라면 PSAT에 대한 특별한 준비가 없어도 되며, 주기적으로 모의고사를 풀면서 감을 유지해 나가면 된다. 다음으로, 문제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각 영역별로 취약한 문제유형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언어논리 영역 중에서 주제 찾기가 취약한지, 자료해석에서 계산문제가 취약한지를 파악해야 한다. 특정 문제유형에서 문제가 된다면, 해당 문제유형만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풀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직접 문제를 풀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를 푸는 자신만의 스킬을 체득하는 것이다.

- ① 이제, PSAT을 위한 예비적 지식을 쌓아 나간다. 논리의 기초적 개념을 챙긴다. 논리란 실질적인 내용이 아닌 형식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예컨대, 대표적인 논리인 3단 논법을 보면

$A \rightarrow B$ 이고, $B \rightarrow C$ 이면, $A \rightarrow C$ 이다

- 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시험과 관련해서 본다면, 'A는 C이다'라는 주장의 타당성은 전체문에서 찾아져야지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맞다거나 틀리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즉, 처음 이런 문제를 접하는 수험생이 하는 많은 실수 중 하나가 제시문에 담겨져 있지 않은 경우 틀린 지 문임에도 불구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 ② 다음으로, 상식을 쌓아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A는 전년대비 10% 증가했다'는 표현과 'A는 전년대비 10%포인트 높아졌다'는 표현은 다르다. 2009년 실업률이 5%였고 2010년 실업률이 5.5%인 경우, '실업률은 전년대비 10%증가했다' 혹은 '실업률은 전년대비 0.5%포인트 증가했다'고 표현한다. 이러한 상식적인 개념들은 관련 강의에서 제시하는 자료들이나 모의고사 해설 등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③ 최근 수험생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독서량이 부족하며, 신문을 잘 읽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실 언어 논리에서 요구되는 상당한 부분들은 다독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고, 신문은 상식을 넓히는 데 아주 유용하기 때문에 평소에 독서량이 부족한 경우 언어논리에서 점수를 높이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PSAT 점수를 높이기 위해 가장 많이 투자해야 할 부분은 독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완성된 짧은 full text를 지속적으로 읽어 나가는 것이다. 소설책이나 에세이 등을 읽어 나가는 것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문의 칼럼을 활용하는 게 효과적이다 ---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사실은 논리가 없거나 건강부회 같은 왜곡된 논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도움이 안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별도로 신문을 구독하지 않는 경우라면 인터넷을 활용해서 여러 신문에 올려진 칼럼들을 주욱 본 후, 요일별로 마음에 드는 고정칼럼리스트 정하는 것이다. 주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되도록 다양한 것으로 잡는 게 좋다. 요일별로 2개 정도를 잡고 칼럼을 읽고 난 후 1-3분 정도 칼럼의 주제와 칼럼리스트의 주장, 그리고 주장을 위한 논거를 피드백한다. 이 과정을 3개월 정도 반복하면 독해력과 상식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 ④ PSAT의 자료해석은 숫자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2차 시험과목인 경제학과 신문의 경제면(혹은 경제신문)은 이점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2차 시험과목 중 행정학이나 정치학 등의 관련 논문에 실린 통계와 해당 통계에 대한 분석 글을 건너뛰지 말고 읽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러한 숫자 및 그래프 자료 등에 대해 익숙해지는 시간은 언어 논리에 비해 많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2] 9월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가을이 되면 서서히 PSAT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 2차 과목이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보다 PSAT 점수가 높지 않다면 더욱 부담이 생기고, 많은 시간을 PSAT에 할애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PSAT에 대한 공부시간을 늘린다고 점수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12월이 되면 하루 8시간 이상을 투자하는 수험생들을 많이 보지만, 8시간 이상 투자했던 수험생들의 합격률은 높지 않다.

- ① 월 2회 정도 모의고사를 보면서 감을 익히고, 자신이 취약한 영역과 취약한 패턴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어 나가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점수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주2일/6시간 정도를 확보한 후 취약한 패턴의 문제만을 풀고 분석한다.
- ② 평소에는 8월까지 했던 식으로 칼럼과 경제기사를 읽어 나간다. 매일 칼럼 2개씩 읽어 나가는 것을 계속한다(최소한 주5일). 여기에 새로운 공부방식이 요구된다. 2차와 PSAT을 연계하는 것이다. 행정법의 경우 판례를 직접 읽고 사례연습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사례연습은 실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3회독이 된 상태에서 하는 게 좋다), 행정학/정치학 관련 논문과 단행본을 읽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논문을 직접 요약하는 것이다 --- 논문 요약은 2차 시험대비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3] 12월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2차 2순환 막바지이기도 하지만, 1차 시험이 다가오면서 학원들이 모강을 개설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개인별 편차가 많아 생각보다 점수가 높지 않으면 좌절감이 들기도 한다 --- 사실 학원모의고사 점수와 실전점수는 비례하지 않는다.

- ① 부담감을 떨쳐 버리기 위해서는 매일 20문제씩 푸는 것이 좋다. 이때, 되도록 유사한 패턴의 문제로 푼다.
- ② 주1회 모의고사를 본다.
- ③ 학원에서 모강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그냥 따라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2 2차 사회과학과목을 위한 학습전략

2차 시험문제를 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많은 변화를 보였다. 기존 문제들은 서술/단답형 문제, 즉 교과서의 이론을 설명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다면,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런 문제들이 점차 자취를 감추고 논술형 문제들로 바뀐 것이다.

교과서의 이론들을 설명하라는 문제 패턴의 경우 얼마나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으며 빠짐없이 서술하는

II. 과목별 必 합격 공부 방법론

지가 중요했고, 공부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그러나, 논술형 문제에서는 문제의 논점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했는지와 자신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인 서술이 중요하다.

- ① 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 달리 인간의 행동을 연구대상으로 하지만, 하나의 과학으로 체계가 있으며, 논리적 인과관계를 중시한다. 따라서 전체적인 논리 흐름과 틀 속에서 개별적인 주제들이 연결되어 있다. 처음 접하는 경우라면, 가장 먼저 해당 과목이 무엇을 대상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속에서 개별 주제들(각론)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진 후에, 하나하나의 주제들에 대한 상과 기초 개념들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시 전체 흐름과 연결시키고 한국 행정/정치 현실과 이론을 접목시켜 나간다 --- 순환별 공부의 주안점은 이런 순서로 잡을 필요가 있다.
- ② 최근 학제성이 강화되고 있다. 경제학의 게임이론이나 몇몇 개념들은 행정학과 정치학에서도 중요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진화론에서 발전한 생태론이나 현대물리학의 주요 개념들은 복잡계 이론으로 행정학과 정치학에 접목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학제성이 최근의 현상만은 아니다. 경영학의 조직연구가 고전적 행정학의 조직론의 기초이론으로 자리잡고 있고 심리학이론이 조직관리에 있어서 사기와 리더십을 위한 이론적 베이스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에 학제화 경향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유사한 개념과 유사한 논리들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해당 과목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가치가 다르다는 것이다.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한 문제가 경제학, 행정학, 정치학에서 출제된다면 그것은 동일한 개념과 이론을 사용하면서도 상이한 관점에서 상이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크게 본다면, 경제학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초점을 둔다면, 정치학은 권력에 대한 비판과 민주성에 초점을 두고 있고, 행정학은 양자 간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 ③ 사회과학은 자연과학이나 경제학, 법학과 달리 정답이 없는 학문이다. 처음 경제학과 행정법을 접하는 수험생의 경우 어렵다는 느낌은 들지만, 최소한 이러이러한 것들을 암기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행정학이나 정치학을 처음 접하는 경우 무엇을 암기해야 할지조차 감이 오지 않는다. 무수히 등장하는 학자들과 이론들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하고, 또 어떻게 서로 간에 연결이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찌면 당연한 것이다.

게다가 행정학이나 정치학 시험은 윤리시험과 다르다. 이 학자는 혹은 이 이론은 이렇게 본다. 그러한 주장이 논리적인가 혹은 규범적으로 타당한가 혹은 한국현실에 적실성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정답이다 / 아니다'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사회과학에 대한 접근은 고등학교에서 수능을 대비하는 방식이나 수학/경제학, 법학처럼 정답이 무엇인지를 암기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 ④ PSAT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행정학이나 정치학이 어려운 것은 철학적 기초가 약해 논리력이 부족하고, 기초적 개념이 안 잡혀 있고(수능시험에 나오지 않는 문제는 한국의 고등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으며, 대학에서는 이미 배웠다고 생각하고 안 가르쳐 준다), 독서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독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군대에서는 가장 심한 욕이 '개념 없는 놈'이라는 것을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개념이 없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이고,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한 감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과학은? 모든 과학이 그렇듯이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

사회과학에서 개념이란, 사회적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기호/상징이다.

예를 들어, 신뢰란 '취약한 지위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사회자본은 '자발적 결사체를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왜 이렇게 암호문같이 정의되어 있을까? 그래서 행정학이 싫어!'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 개념 정의에 사회관계가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며, 개념 정의를 통해 해당 주제의 기본요소와 논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상식적으로 사장이 피고용인을 믿고 일을 맡기지만, 과연 피고용인이 사장의 신뢰나 기대에 부응할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피고용인이 사장 몰래 자신의 사익을 위해 엉뚱한 일을 해버린다면, 사장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경제학에서 이를 본인-대리인문제, 도덕적 해이라 한다). 따라서, 신뢰하는 자가 항상 손해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또, 사회자본은 자발적 결사체와 같은 수평적 네트워크에서 형성되는 호혜성의 규범과 신뢰에서 창출된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나 사회자본이 부재한 사회에서는 정치사회, 경제발전이 어렵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대답은 기본적으로 정의에 들어 있다.

말하자면, 개념이란 사회관계의 특징적인 점을 담고 있으며, 개념을 안다는 것은 해당 주제의 특징과 그와 관련된 사회적 관계, 그리고 정책적 과제를 안다는 말이다.

사실, 개념에 대해 익숙해질 때까지가 어려운 것이다. 반복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아~~’하면서 감이 올 때, 시험장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 숲을 먼저 보고 흐름과 체계를 이해한 후에 나무를 보자. 짧은 시간에 많은 과목과 수많은 이론들을 숙지하거나 암기해야 한다. 개념과 체계, 논리 흐름을 알게 되면 암기해야 할 내용이 1/3 이하로 줄게 된다. 따라서, 과목의 전체적인 흐름과 논리를 파악하고, 각론의 특유의 논리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개별적인 이론들의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소위 횡단분석).
- 그리고, 개별적인 이론이 등장한 시대사적 배경이라는 게 있다. 이 이론이 왜 나왔는지를 알게 되면, 그 이론이 지향하는 점과 기본적인 논리가 쉽게 파악된다(소위 종단분석).
- 단, 이론과 개념의 키워드는 정확히 숙지되어야 한다. 암기는 최후 수단이다.
-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해야 한다. 지나치게 잔가지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공부량이 꽤 되는 수험생이 범하는 실수는 지나치게 이론을 확장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 결과 답안지가 장황해진다. ‘너 이거 알아?’, ‘아니... ㅠㅠ’ 이는 몇몇 강사들이 부수적이고 가외(加外)적인 개념이나 이론들, 때로는 시론에 불과한 이론을 가장 중요한 이론인 것처럼 이야기한 것을 수험생들이 믿게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사회과학은 정답이 없다). 공부하면서 자료를 줄여 나가지 않으면 절대 합격할 수 없다. 핵심이 되는 이론 하나의 위력은 가외적인 이론 10여개를 능가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 답안작성 연습이 중요하다. 시험에서는 이론적 기초와 문제에 대한 적응력이 모두 필요하다. 이론적 기초가 없는 경우 변형된 문제를 풀 수 없다. 반대로, 이론에만 매달리는 것은 장수의 지름길이다. 답안작성 연습을 통해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을 연습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타당한지를 점검해야 한다.
- 문제는 처음부터 답안 작성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 머릿속에 들어 있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답안 작성은 불가능하다. 개념이 숙지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서술 자체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 따라서, 1순환 시기까지는 교과서와 논문들을 읽어 나가고, 1순환에서 2순환 시기까지는 논문을 요약하는 연습을 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연습이 쌓여 나가는 과정에서 교과서나 수험서 등을 보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수밖에 없다. 2순환에서 3순환 시기까지는 수험서와 논문들을 보면서 목차구성연습을 해 나가고, 이제 안보고 답안지를 쓰는 연습을 해야 한다.
- 나만의 학습방법을 찾자. 대부분 수험생이 범하는 우가 있다. 분위기에 휩쓸려 가면서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것이다.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책과 수업, 그리고 공부방법을 빨리 잡는 것이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 있어서 장수생보다는 빨리 합격한 수험생의 경험과 자신과 코드가 맞는 강사로부터의 조언이 도움이 될 것이다.
- 단계별로 완성해 나가자. 행정학이나 정치학 수업의 경우 일부 주제는 대학원 수준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 또, 4년 동안 봐야 할 내용을 학원수업을 예로 들자면, 2-3주 안에 끝내 버린다. 일부 주제의 경우는 1학기 동안 배울 내용을 3-4시간 동안 설명하고 지나간다. 따라서, 학원 수업을 따라가거나 혼자 공부하거나에 상관없이 회독수에 맞는 공부초점을 잡아야 한다.

예비순환	1순환	2순환	3순환	4순환
해당과목의 기초 개념과 마인드 잡기	해당과목의 기초개념 정리 기본이론 정리 전체흐름 이해	전체체계 형성 이론 심화/정리 한국현실에 적용	전체체계 형성 이슈/테마 정리 목차구성/답안연습	목차구성연습 최종 점검

3 행정학

응용학문으로서 행정학은 행정고시 필수과목 중에서 가장 쉬운 과목에 속한다고는 하지만, 일부 수험생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이야기되기도 한다. 사회현상 자체가 다양한 가치관을 갖는 인간들

의 행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답을 찾는 데 익숙한 사람에게는 정답이 없는 행정학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엄밀한 논리성을 중시하는 사람에게는 조화와 절충을 추구하는 행정학이 학문의 축에도 못 낄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마도 행정학이 어려운 것은 체계나 논리가 안보이면서 모든 주제들이 단편적으로 나열되어 있고 하나하나 모두를 외워야 한다는 것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는 현직 교수들의 잘못(?)일 수도 있고, 수험서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행정학은 엄연한 사회과학의 하나로 나름의 논리와 체계를 가지고 있다. 단지 그것을 찾지 않았을 뿐이다. 만약 행정학의 기초개념과 논리만 잡힌다면 말 그대로 행정학은 가장 쉬운 과목이고, 고득점이 보장되는 과목이 될 것이다.

[1] 행정학의 체계

그러면, 행정이란 무엇일까?

- ① 행정이란 무엇일까? 행정(정부·국가운영)은 국가질서를 형성하고, 국가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는 일련의 작용이라 할 수 있다. 쉽게 생각해 보자. 현대사회에서 정부는 국방과 치안과 같은 국가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나아가, 경기불황과 실업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물가안정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환경오염 및 기상이변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이러한 일련의 기능을 위해서는 기획과 정책결정을 하고, 각각의 기능을 전담하기 위한 재무부(한국의 기획재정부), 국방부와 내무부(한국의 행정안전부), 노동부와 환경부 등 조직을 형성하고 이들 기관을 통해 정책을 집행해 나간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과 인력, 그리고 정부조직의 재무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기구(한국의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를 설치하고 운영해 나간다. 그리고, 업무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으며, 정책의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감시하기 위한 다양한 기관을 설치, 운영한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행정이라 할 수 있다. 즉, 행정이란 이와 같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관리기능과 행정조직 구조를 형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직관리기능을 총칭하는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행정이론은 이와 관련된 것들이다. 하지만, 행정의 개념은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어 왔다. 왜 그럴까? 이는 행정에 대한 사회 및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다르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백성들은 정부에 대해 실업대책을 크게 기대하지 않았으며, 환경오염에 대한 요구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 반면, 1930년대 이후에는 이러한 문제들은 정부가 해결해야한다는 인식이 강할만큼 행정의 기능도 크게 확대되었고, 행정의 의미와 내용도 변화된 것이다.

각론의 내용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조직론** :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조직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이론을 배우게 된다.
 - 조직이론의 기초 : 기본변수와 상황변수, 조직과 인간, 조직과 환경 등
 - 조직구조 : 조직구조 설계에 관한 이론(원리, 관료제, 탈관료제), 이에 기초한 정부조직설계와 관련된 구체적 이론과 제도들(계선과 참모, 위원회, 공기업, 책임운영기관 등)
 - 조직관리 : 목표설정과 의사결정(정책학과 중복되기 때문에 건너 뛴다), 의사전달, 리더십, 갈등관리, 그리고 관리 및 혁신기법
- **인사행정** : 조직이 형성되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직구조를 형성하고 인력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 인사행정의 기초 : 인사제도의 발달과 공직분류방식, 중앙인사기관
 - 인적자원관리(인사과정) : 채용, 능력발전, 사기관리, 환류 및 통제
 - 인사개혁 : 최근의 인사제도 개혁에 대한 내용(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공모직위, 총액인건비제도 등)
- **재무행정** :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획득하고 배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개념과 제도들을 배우게 된다.
 - 예산기초 : 재정운영의 규범과 기능/원칙, 예산의 분류(예산제도는 그 주안점에 따라 상이한 분류방식을 취함), 예산의 종류, 예산과 법, 예산과 기획, 예산 기구
 - 예산과정과 재무관리 : 예산과정(편성-심의-집행-결산), 회계, 조달, 기타
 - 예산제도 개혁
- **행정환류** : 정책이 집행된 후에, 집행된 정책이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평정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을 변경하는 과정을 환류라 한다. 단, 이러한 의미의 환류는 정책학의 정책변동에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책임을 묻고 통제하는 수단들과 행정개혁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다.

② 현대 행정은 국민(시민)과 기업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서비스 공급은 민주행정에서는 시민의 요구에 기초해서 이루어진다. 시민의 요구가 정책으로 전환되고 집행과정에서 조직화와 인적자원 및 재무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나면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환류과정이 있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전반적 과정에 대한 이론적 관점이 있으며, 지금 현 시점에서 그것은 전통적 관료제와 같은 정부중심의 문제해결과 시장원리(신공공관리론), 그리고 네트워크(뉴거버넌스)로 대별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정부운영의 초점은 이 중에서 신공공관리론에 기초한 성과관리에 맞추어져 있다. 문제는 이러한 관리방식이 한국행정 현실에 적실성과 타당성이 있느냐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제시되는 뉴거버넌스가 과연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유용한가에 대한 질문도 빠지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행정이 지향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는 접근은 나아가야 할 방향 없이 부유하는 배에 불과할 것이고, 한국행정에의 적실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이론은 공허한 자기만족적 주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답안은 행정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2] 주요 교과서

행정학 문제를 보면, (개론 및 각론)교과서 수준을 넘어 서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논문을 일일이 다 찾아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때문에 행정학, 정치학, 그리고 일행직의 선택과목의 경우 수험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와 논문을 읽어 본 수험생과 수험서만으로 공부한 수험생의 점수차는 예상 외로 크다. 정리된 글과 원문을 직접 읽고 요약해 본 사람의 차이로 보면 된다.

그러면, 교과서는 왜 읽는 것일까? 수험서는 요약서로 전후맥락이 생략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논리를 찾기가 어렵다. 그리고 많은 경우 단순 짜깁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개념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교과서를 보는 것은 이와 달리 전체적인 흐름과 마인드를 형성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따라서, 마인드와 흐름을 잡기 위해서는 공저는 피하는 것이 좋다).

새행정학 : 개별 주제에 대해 참조할 사항들이 많음

but 행정학 전반적인 주제에 대한 흐름이 약하고, 주관식 보다 객관식 시험에 적합

유민봉저 : 행정학에 대한 마인드 잡기에 좋은 책. 총론이 잘되어 있으며, 신이론(특히, 거버넌스와 신제도론)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는 책

but 각론이 약한 편(각론의 개별 주제에 대한 답안 작성에서 참고할 사항이 적은 편)

정정길저 : 신공공관리론의 관점에서 서술되어 있다고 평가되는 책으로, 행정이 지향

하는 가치(이념)과 최근 정부혁신에 대한 문제의식이 돋보이는 책

but 각론이 없어 별도로 봐야 한다는 단점이 있으며, 치명적(?)일 수 있는 오류나 수험생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표현이 몇 군데 있음(대표관료제, 공익, 뉴거버넌스 개념, 능률성과 효율성 개념)

오석홍저 : 실려 있는 내용이 시중에 나온 교과서 중 가장 방대함(빠진 게 거의 없음)

but 분량이 너무 많고, 서술식보다는 나열식(설명이 아니라 주요 특징을 나열하는 식)으로 나와 있어 실재 답안 작성에서 문장력이 약한 수험생의 경우 도움이 안됨.

정육덕저 : 행정학의 접근방법과 이론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음.

but 사회과학(사회학이나 정치학, 철학)을 전공하지 않은 수험생이 보기에 너무 어렵게 느껴짐. 출제빈도수가 낮은 주제들에 대한 설명이 너무 깊게 되어 있음.

[3] 읽어 볼만한 단행본과 각론 교과서

행정이론의 발달 : 베버에서 오스본까지

행정학이 어렵게 느껴지는 초보자(특히, 이공계, 상경계, 법대 출신)에게 '행정학이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줌.

공부를 했던 수험생의 경우에도 주요 학자의 주요 내용은 답안지를 풍부하게 할 수 있게

해 줌

- 조 직 론 : 김병섭, 박광국, 조경호, 「조직의 이해와 관리」, 대영문화사
조직론은 딱히, 이거다라 할 수 있는 교과서는 없음. 위에 소개한 책의 경우 치명적일 수 있는 오타가 몇 개 있음(다만, 객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음).
- 인사행정 : 강성철 · 김관석 · 이종수 · 최근열 · 하태권, 「새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인사행정의 경우, 어떤 교과서가 좋다고 말하기 힘들. 가장 최근에 나온 책, 활자가 보기 좋은 책, 그리고 종이질이 좋은 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음.
- 인사행정 : 이종수, 「정부혁신과 인사개혁」
- 재무행정 : 윤영진, 「새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행정학에서 가장 문장력이 좋은 교수(필자 생각일 수 있음). 재무행정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수험생에게는 필독서라 할 수 있음
- 재무행정 : 배득중, 「신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재무행정에서 현실적인 감(거시적인 측면에서)을 줄 수 있는 책. 특히, DJ정부 이후 한국 재무행정 개혁의 문제의식을 확인하는 데 좋음. 시간이 허락한다면, 도서관에서 대출받아서 그냥 한번 주욱 읽어 보는 것을 권장.

[4] 논문 요약에 대해

논문 요약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른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즉, 답안지 작성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혹은 내용이해를 위한 것)이 목적인지,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인지, 답안지 작성 연습이 목적인지에 따라 요약형태를 달리해야 한다.

- 만약, 내용이해나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려면, 주요 문장을 옮기는 것이 좋다.
- 전체 흐름의 파악이 목적이려면, 주요 키워드를 도식화해 나가면서 논리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 답안 작성 연습이 목적이려면, 서론과 본론(도입부와 논리전개), 그리고 결론의 틀을 잡고 논문에 있는 주요 내용을 자신의 문장으로 옮기고, 답안작성에 필요한 내용이 논문에 없는 경우에는 수험서나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① 서론을 정독하고 목차를 확인한 후, 결론을 정독한다.
서론과 결론의 대구가 일치하는 지, 그리고 서론에서 제기했던 주제에 대해 본론의 목차를 통해 어떠한 흐름 속에서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지를 맵핑한다.
이제 논문을 정독한다.
- ② 논문을 정독하면서, 좌측이나 우측 여백에 키워드를 적는다 --- 한 단락 혹은 두 세 단락에 키워드가 하나 정도 나온다.
읽다가 생각나는 아이디어나 자신의 생각은 상단 여백에 적는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당연히 물음표를 한다. 흐름 상 끊어지는 부분, 예컨대, [주장1 / 주장2 / 두 주장에 대한 평가] 이런 식이라면 각 단락 사이를 표시하는 것도 좋다.
- ③ 처음 개괄했던 내용을 생각하면서, 결론으로 이끌어 가는 논리의 핵심이 무엇인지 잡고, 역으로 논리를 추적한다 --- 이를 도표식으로 그려 본다.
괜찮은 논문이라 생각하면, 문제로 전환한 후 답안지 형태를 갖추어 요약/정리한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경우 2-3 시간 정도 걸리게 된다(시간이 가면서, 요약에 걸리는 시간이 짧아진다). 이런 과정을 거쳐 요약해 보지 않는 경우 답안 작성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1회독 상태에서 요약한 것과 3회독이 된 상태에서 요약한 내용이 같을 수 없다. 글이라는 것은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핵심으로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행착오는 어쩔 수 없는 거라 생각하고 일단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게 좋다.

자신이 생각해서 중요하다고 보는 논문은 일단 포스트 잇에 핵심 목차와 키워드를 붙여서 보관하고, 판단이 안서면 일단 보류하는 게 좋다(해당 과목 강사에게 문의하는 것도 좋다).

공부량이 많아지고 행정학에 대한 체계가 잡혀 나가면, 전형적인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잡아 답안지용으로 전환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다 --- 단, 3순환 시기에는 목차 구성 위주로 작성하는 연습을 한다.

행정학의 과목 특징 및 공부방향

박 훈 선생 - (現) 합격의법학원 ‘행정학’, ‘조사방법론’ 전임

행정학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정부학’입니다. 정부는 우리가 늘상 접하고 있는 국가의 실체적 표현이죠. 어릴적부터 공교육이라는 틀 속에서 그리고 사교육에 대한 정부의 개입 속에서 자라온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국방·외교·복지·보건 등 ‘공익’ 수호자로서 정부의 역할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소위 ‘행정의 민주화’ 이래로 국가의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이 필수적이고, 정부의 위상이 당시 여건에 따라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최근 ‘통큰 치킨’이 세간에 화제였는데, 이는 기업의 본원적 활동은 가급적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겠지만, 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기에 정부가 일정부분 개입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과거처럼 일방적 지시는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정부 역할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이 행정학 공부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왜 2차 시험에서 상당수 수험생들에게 행정학이 곤혹스런 과목이라는 착색된 관념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이는 순전히 행정학을 수험과목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행정학은 지극히 실제 현실에 터 잡은 흥미로운 과목입니다. 물론 사회학 혹은 정치학에 비해 그 논의의 폭이 좁기 때문에 다소 지엽적인 부분이 있는데, 2011년 한해 대략 100만명의 공무원이 300조의 재원을 운용함에 있어 당위적 구호 혹은 언어적 수사만으로는 곤란하겠기에 다양한 법적 제도들이 구비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지 제도만 습득한다면 행정학이 아닌, 행정술일 것입니다.

하나의 독자적인 분과학문으로서 정체성에 상응하는 나름의 이론들이 있으므로 이를 일정 부분 습득해야 합니다. 여기서 일정 부분이란 단기간 합격율 목표를 하는 수험과목으로서 접근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론과 현실을 적절히 접목할 줄 아는 감각이 훨씬 더 요망되고 그렇게 접근할 때 당해 과목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뭔가 흥미가 있어야만 더 접하려고 할 것이기에 특히 비행정학 전공인 경우 행정학에 문외한이라고 단정 짓지 말고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조금의 관심을 기울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1년 뒤 아주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또한 흥미가 여간해서 생기지 않는 사람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의도적으로라도 수험 초기에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면 누구나 금세 장족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최근 당해 강사의 경우 행정학을 ‘방치학’이라는 말을 수업 때 감히 사용하곤 하는데, 다른 과목에 비해 공부의 우선순위가 밀려서 1차 시험 뒤 진행되는 3순환 때 수험생의 수준차가 대단히 큼을 느끼게 됩니다. 이 경우 3순환이 정말로 한 단계 상승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려면 공부 초기의 노력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이때 일정 수준으로 올려두면 추후 큰 심적 부담없이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답안을 구성하는 단계로 일찍 접어들게 됩니다. 이 단계로 언제 진입하느냐의 여부가 실제 시험에서의 점수를 좌우하게 됩니다.

이하에선 상기 논의에 더하여 행정학 공부 전반에 대한 단계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보겠습니다. 향후

자신이 공부해야 할 마스터 플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 Step 1. 일정 부분 흥미를 갖고 행정학에 대한 개략적인 관념이 형성되는 단계
- Step 2. 행정학의 경계 속에서 행정학의 범주별 주요 내용을 숙지해감은 물론 이를 답안에 표현해 보는 단계
- Step 3. 행정학 범주 속 다양한 주제를 좀더 심화시키고, 이를 답안에 시간 내 현출하는 단계
- Step 4. 이해를 토대로 한 암기를 정교화하고, 예측 가능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답안 연습 단계

조사방법론의 과목 특징 및 공부방향

조사방법론(이하 조방)은 다양한 정보 혹은 데이터를 정책 혹은 관리에 활용하는 보조적인 과목입니다. 통계학의 수리적 접근과 다소간 거리를 두고, 특히 행정학의 경우 바로 정책적 아이디어 및 그 환류에 주안점을 둡니다. 그래서 행정학과와의 시너지 역시 추구할 수 있습니다.

조방은 크게 정책적 아이디어를 구안하는 단계와 이에 대한 통계처리를 위한 제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자의 경우 예를 들어 ‘출산장려정책’과 ‘출산동기’의 관계처럼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여 정책적 도움을 얻고자 모형을 형성해보는 과정입니다. 이때 수험생을 넘어서 직접 당해 정책의 담당자라고 생각하고 참신한 생각을 이끌어내면 공부량이 적어도 의외로 좋은 성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엔 전자의 모형에 따른 자료를 수집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는 단계로서, 출산율·실업률 같은 자료는 이미 각종 정부기관에 있기에 큰 문제가 없지만, 소위 설문지를 통한 자료수집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함과 동시에 상당히 테크니컬한 과정입니다. 지난해 6·2지방선거 관련 언론의 여론조사는 물론 국민주책총조사 등에서 신속한 정보제공이라는 가능성과 함께 문제점도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정운영을 위한 다양한 데이터를 산출 및 활용하기 위한 단계에 따른 정교한 작업들이 있으나, 생각만큼 완벽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과정 속의 오류(bias)를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는 과목입니다.

공부 단계는 상기 저의 행정학 공부방향과 흡사하지만 통상 정형화된 답안틀이 많고, 작은 문제 역시 큰 문제의 각 부분과 결부되어 있기에 2차 시험일에 다가갈수록 공부량이 줄어드는 묘미가 있습니다.

조방을 포함하여 선택과목이 비록 50점짜리 과목으로 그 위상이 위축되었지만, 이 역시 상대평가라는 대의 속에서 최소의 공부량으로 최대의 득점을 할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는 과목이라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당해 강사의 카페를 참고하시고, 의문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하세요.

homeostasis@hanmail.net cafe.daum.net/passion-ph

정치학 공부방법론

김희철 선생 - (現) 합격의법학원 정치학 전임

1. 정치학의 특성

정치학이 다른 수험과목과 가장 구별되는 특징은 범위가 너무 방대하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이나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소위 ‘기본서’라는 것이 있으며 이 기본서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는 개념과 이론이 시험에 나오지 않아서 공부범위가 비교적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끝이 보이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학의 경우 소위 ‘기본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어느 한 책으로 기본개념과 이론을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정치학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수십 권의 책을 읽어봐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험생들에게 정치학 책을 수십 권 읽으라고 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2. 정치학의 출제경향

정치학의 하부 영역은 비교정치, 정치경제, 정치철학, 한국정치, 국제정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간 출제된 정치학 기출문제의 일반적 경향을 분석해보면 기본개념과 이론을 묻는 문제와 현실적용 문제가 대략 50 : 50 의 비율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엘리슨의 외교정책결정모델이 출제된 것과 같이 최근의 추세는 국제정치 관련 내용을 점점 심도 있게 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정치를 소홀히 하는 수험생들은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적용 문제는 기본개념과 이론을 바탕으로 출제되므로 먼저 기본개념과 이론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학의 내용이 추상적인 용어와 복잡한 이론으로 특징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기본개념과 이론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쉽고 분명하게 이해해야 깊게 이해할 수 있으며 제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교재의 선택

앞에서 말했듯이 정치학에는 기본서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책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개념과 이론을 포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원 강사가 정리한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시간 대비 효율적인 정치학 공부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학 관련 교과서를 읽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정치학적인 답안지 작성을 위해 정치학 교수님들이 저술한 교과서를 입문서를 포함하여 각 하부영역 별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 책들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논문의 활용법

현실적용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교수님들이 쓰신 논문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수학에서 1차 함수를 제대로 공부해야 2차 함수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듯이 기본개념과 이론을 먼저 확고히 한 후에 논문을 읽어보시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논문은 기본개념과 이론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쓰여진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 개념도 모른 채 논문을 읽는 것은 아주 비효율적인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정치학 고득점의 지름길

정치학에서 고득점하기 위해서는 단순 암기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기본개념과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암기한 후에 현실 적용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현실 적용에 있어서 정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사회과학은 주관적인 가치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논리적 일관성과 적절한 사례만 제시한다면 어떤 결론을 내려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공부방법론

장원석 선생

약 력 :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LTS법학원 교재개발 팀장
現 LTS법학원 상법전임
現 합격의 법학원 상법 강사

1. 기출문제 분석

행정고시(5급 공채)에서 출제되는 상법문제의 특징은 대체로 수험가에서 소위 “찍히는” 문제들입니다. 행정고시 상법문제는 사법시험 상법문제에 비해 문제의 길이도 짧고, 논점도 분명하게 주어지므로 시험준비하는데 애로사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기출문제를 분석하면 향후의 출제경향을 용이하게 가늠하리라고 봅니다.

※ 최근 3개년 행정고시 상법기출문제의 분석

○ 2009년 상법문제 개관

- 1문. ① 이사의 자기거래와 어음항변 ② 대표이사와 이사의 책임
- 2문. 상사시효
- 3문. 보험계약에서 위험의 변경, 증가와 보험계약의 효력

○ 2010년 상법문제 개관

- 1문. ① 자기주식 취득의 유효성 ② 이사의 책임 ③ 주주의 간접손해
- 2문. 융통어음의 항변
- 3문. 보험자의 설명의무

○ 2011년 상법문제 개관

- 1문. ① 회사의 중요자산의 처분 ② 대표소송의 요건과 이중 대표소송
- 2문. 위탁매매인의 지위와 지정가액준수의무
- 3문. 책임보험의 직접청구권과 그 성질 및 시효

2. 상법공부방법론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방대한 조문과 내용을 특징으로 하며, 상총상행위, 회사법, 어음수표, 보험법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험의 특성상 모든 내용을 숙지해서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험서를 보는데도 약간의 요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고시(5급 공채)에서 출제가 유력시되는 중요부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간과 경쟁해야 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중요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나머지 부분은 한번 스킵하고 지나가는 방식으로 시험을 대비하는 것이 최적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그대로 반영하여 행정고시 상법강의는 진행될 것입니다.

3. 강의의 범위와 방향

우선은 수험가에서 가장 많이 보는 수험서(김혁봉저, 학찬출판)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는 "위험의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상법에서 논의되는 중요쟁점위주로 강의를 진행 할 것이며, 상법의 방대한 양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밑줄과 맵핑(mapping)을 병행하는 "단권화과정"을 수험생들과 같이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법고시 상법과 행정고시 상법이 조금 스타일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간 중간 배포되는 유인물을 통해 "행정고시 상법사례 스타일"의 문제를 되도록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정치학, 국제법 공부방법론

이 상구 선생
합격의 법학원 국제법, 국제정치학 전임

□ 국제법 공부방법론

1. 서설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법으로서 국제법 주체 상호간의 다양한 권리 및 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이다. 국제법은 주로 국가 상호간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발전하고 있으며, 오늘날 국제법의 규율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고 그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험생의 부담 역시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제법 학습에 있어서는 각 분야별 필수 다자조약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한편, 필수조문은 암기해야하며, 관련 판례를 학습하여 판례와 관련되어 출제되는 문제에 대한 응용력을 키워야 한다. 국제법의 범위가 광범한 만큼 국제법 공부에 있어서 방향을 잘 잡고 효율적으로 접근해야 비교적 짧은 시간에 국제법을 마스터하고 목표로 하는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 제시하는 국제법 출제경향 및 공부방법론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나름대로 공부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

2. 최근 국제법 출제 경향

1) 설문의 세분화

최근 들어 두드러진 경향이다. 2010년의 경우 총 설문이 9개 이며, 09년 문제의 경우 총 설문이 7개에 달한다. 07년은 6개 질문이 출제되었다. 설문을 세분화 하여 출제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해당 지식의 습득여부를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수험생간 편차를 크게 하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로써 선발 행정상의 편의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설문이 세분화된 경우 해당 설문의 취지를 잘 파악하여 그에 맞는 답을 하는 것이 고득점의 관건이다. 설문이 많아지는 경우 실전에서 시간관리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2) 질문 형식의 다양화

법학시험은 결국 법규 내용의 확인과 법규의 적용에 관련하여 출제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법규와 그 적용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질문할 수 있다. 법규와 관련해서는 법규의 기본 내용, 법규의 성질, 법규의 문제점과 입법론, 특정 사안과 관련된 법규의 식별 등이 출제될 수 있다. 법규의 적용에 있어서는 위법성 여부, 법적 해결방안 등이 질문될 수 있다. 최근 국제법 시험에서는 위에 예시한 다양한 방식으로 국제법규의 습득 여부 및 그 적용에 대해 출제하고 있다. 우선은 법규자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다양한 질문 유형에 맞춰서 목차를 구성하고 논리를 전개하는 것에 대해 익숙해 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Leading Case 또는 최근 사례 관련 출제

리딩 케이스나 최근 주요 국제법적 문제가 내재된 사례와 관련된 문제의 출제 비중이 높다. 2010년 1번문제는 ICJ의 Corfu Channel Case, 3번은 병행주의와 관련된 다양한 SG협정 사례들, 2009년 2번 문제는 한국 쇠고기 사건, 3번은 비호권 사건, 08년 1번은 한국주세사건, 07년 2번은 Underhill v. Hernandez사건, 06년 1번 문제는 LaGrand 형제 사건, 3번은 미국 새우 사건 등에 관련된 문제들이다. 한편, 국제정치학과 같이 최근 시사와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도 감지된다. 예컨대 2010년 1번 문제의 경우 최근 발생한 '천안함사태'와 관련된 것이다. 08년 2번 문제는 북한이나 이란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의혹과 관련된 문제이며, 07년 1번 문제의 경우 GMO식품의 수입 및 유통과 관련된 고 3번의 경우 한미 FTA 상의 '간접수용'법리에 관한 논란을 반영한 문제로 평가할 수 있다. 중요한

시사적 문제는 학계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해당 주제와 관련한 학계 논의 전개 방향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소한 당해 및 그 직전년도 ICJ나 DSB 패널 또는 상소기구의 판정례는 숙지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4) 국제법 관련 한국 국내판례 또는 국내법 출제

약간 이례적이라 평가할 수 있으나 08년 시험에서 한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태도를 직접 물어 보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국제법의 공부범위를 지나치게 확장시킨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출제경향이 바람직하지는 의문이나 학계 논의 동향을 보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국제법연구>등의 학술지에서 지속적으로 한국관련 판례를 다루고 있으며 단행본으로도 묶어서 출간되고 있다. 따라서 주요 주제와 관련된 국내법이나 국내판례는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의회의 비준동의권 문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외적용사례, 대법원의 제한적 주권면제론 적용, 북한주민의 국적에 관한 판례, 우리나라 국적법상 이중국적의 문제, 난민인정에 관한 국내법 및 국내법원의 태도 등이 출제가능성이 높다.

5) 제도론의 지속적 출제

제도론이란 주요 조약이나 관습법상 범규범의 내용 서술을 요하는 문제를 의미한다. 제도론은 리걸 마인드의 측정보다는 전 시험범위에 대해 성실하게 공부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차원에서 출제한다고 한다. 2010년 문제의 경우 제도론이 두드러지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2문의 경우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및 재판적격성에 관한 제도론의 문제이다. 또한 제3문에서 세 번째 설문의 경우 역시 1994GATT 제24조를 정확히 서술하면 고득점할 수 있는 제도론에 속하는 문제이다. 외형상 사례형 문제인 경우에도 실제로는 범규 내용 습득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주제별 경중을 가려서 공부할 필요는 있지만 어느 한 부분이라도 누락해서는 안 된다. 단권화가 필요하다.

6) 논술형 문제도 출제

논술형 문제란 관련국제법규가 존재하지 않아 논쟁이 되거나, 관련국제법규 해석론에 대해 학설대립이 심한 경우를 의미한다. 2010년 문제의 경우 제1문의 군함의 무해통항권 문제, 제2문의 침략범죄, 제3문의 비차별의무 위반과 1994GATT에 의한 정당화 여부 등은 관련 규범 자체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논문’을 통해 보완해 두었어야 하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논술형 문제의 경우는 기본서 학습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한 논문을 숙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제법학회논문, 통상법률 등을 중심으로 보고, 그 밖에 다양한 국제법저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3. 국제법 공부 방법론

1) 방향

다른 과목과 유사하게 국제법 역시 두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법규의 습득과 정리단계 및 법규 적용 연습이다. 모든 시험 문제는 크게 이 두 가지와 관련하여 분류할 수 있다. 우선은 법규 습득이 선행되어야 하나 법규 적용 연습은 별도의 단계로 보고 연습해야 한다.

2) 법규의 이해와 정리

국제법 공부의 첫 번째 단계는 국제법의 각 영역별로 관련 국제법 지식을 습득하고 체계화하는 단계이다. 보통은 특정 기본서를 중심으로 각 챕터의 주요 법규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법규 이해에서 끝나서는 안 되며 시험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단권화 작업이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시험은 사실상 아무런 자료를 참조하지 않고 오로지 기억에 의존하여 치러진다. 또한 여러 과목을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국제법 공부만 붙들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제법논점특강>이나 <국제경제법논점특강>은 단권화를 위한 보조교재로 집필한 책들이다. 좋은 기본서가 존재하는 경우 기본서 단권화가 최선이라고 보나 현재는 시험준비용으로 좋은 기본서는 없으므로 기본서와 함께 논점정리용 교재를 같이 보는 것이 필요하다.

3) 연원 중심 학습

법규 이해와 습득에 있어서 연원중심학습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형식적 연원인 조약이나 관습법뿐 아니라 그 밖에 판례, 학설, 관행 등에도 주목해야 한다. 조약이나 관습법이 우선될 것이나 사안에 따

II. 과목별 必 합격 공부 방법론

라서는 조약이나 관습이 없거나 해석론의 대립이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약과 관례는 기본서를 읽으면서 반드시 같이 펴 놓고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면서 공부해야 한다. <필수국제조약 I>과 <필수국제조약 II> 그리고 <국제법판례특강>이 김대순 교수님 기본서 순서대로 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병행학습을 함에 있어서 편리할 것이다. 조약 학습에 있어서는 출제가 예상되는 주요 조문을 중점적으로 학습하고 암기도 병행하면 좋다.

4) 논문학습

국제법학습에서는 국제정치학과 달리 논문학습의 비중이 높지 않다. 그러나 시험이 시사문제가 빈번히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 이와 관련한 학계 논의가 출제되기 때문에 주요 이슈에 관한 논문은 읽어두는 게 좋다. 일반국제법과 국제경제법 각각 약 20여 편 내외로 선별하여 요약해 두길 권한다. 논문은 국제법학회논총, 국제법평론, 주요 대학 법학논총, 월간 법조, 서울국제법연구, 통상법률, 국제무역위원회(KTC) 발간자료 등에서 구할 수 있다.

5) 다양한 문제유형에 적응

문제유형에 적응해야 하는 이유는 질문에 포커스를 맞춰 답안을 구성해야 고득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 유형에 따라 목차의 순서, 목차에 들어갈 내용, 목차의 이름 등이 달라질 것이다. 법규자체를 묻는 문제와 법규 적용을 묻는 문제의 목차가 같을 수 없음은 자명하다. 물론 고득점 포인트도 다르다.

4. 국제법 학습 교재

- ▷ 기본서 : 국제법론(김대순), 국제경제법(고무로 노리오/이재형 역)
- ▷ 참고서 : 국제경제법(국제경제법학회)
- ▷ 조약집 : 필수국제조약I(일반국제법)(이상구), 필수국제조약II(국제경제법)(이상구)
- ▷ 판례집 : 국제법판례특강(이상구)
- ▷ 논점정리집: 국제법논점특강(이상구), 국제경제법논점특강(이상구)

5. 수준별 학습방법과 이상구국제법 강좌 요약

학습단계	학습목표	학원강의	이상구 국제법강의 특징
기본 개념 정립	1. 기출분석 2. 공부 방향 확립 2. Legal Mind 형성 3. 핵심 개념 이해	기본강의 (3월)	1. 교수기본서 정리 2. 사례를 통한 쉬운 설명 3. 복습퀴즈
이해도 심 화	1. 주요 다자조약 이해 2. ICJ 주요 판례 학습 3. 고득점 답안의 원리 이해	GS1순환 (8월)	1. 주요 판례 상세 소개 2. 단권화 기초 형성 3. 주 2회 1시간 모의고사 4. 완성답안 제공
논점정리 및 답안연습	1. 필수논점 집중정리 2. 조약 및 판례 반복 3. 답안작성연습	GS2순환 (12월)	1. 논점정리 및 단권화 2. 매일 1시간 사례연습 3. 시험문제의 주요 문제 풀이 4. 완성답안 제공
실전 연습	1. 출제예상주제 정리 2. 실전문제와 환경에 적용 연습	GS3순환 (4월)	1. 출제예상 논점 확인 2. 매일 2시간 모의고사
부분별 심화 학습	1. 다자조약 집중 정리 2. 판례 집중 정리	조문특강 판례특강 (일정은 미정)	1. 저자 직강

6. 이상구 국제법 강의의 강점

첫째, 복잡하게 보이는 기본서의 핵심을 누구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시한다. 목차를 통해 국제법의 체계를 잡아준다. 둘째, 조문과 사례에 강하다. 국제법의 핵심연원은 조약과 관습이며, 관습은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법학습의 핵심도 조약과 판례라 할 수 있다. 직접 정리한 조약과 판례를 통해 국제법의 핵심에 쉽게 접근하도록 한다. 셋째, 문제 유형별 고득점 답안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준다. 다수 출제교수님들로부터 직접 들은 고득점 답안의 원리를 개별답안 컨설팅과 함께 제시한다. 넷째, 학생들의 목표달성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강의하고 첨삭한다. 다섯째, 고등고시 수험경험을 바탕으로 고등고시 합격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과 방향을 제시한다.

□ 국제정치학 공부방법론

1. 서설

국제정치학은 사회과학의 분과학문으로서 국제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국제정치의 분석대상은 기본적으로 전쟁과 평화에 대한 것이나, 탈냉전이후 그 분석대상은 끊임없이 팽창되고 있다. 그만큼 고등고시 국제정치학과목의 포괄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제정치학 시험에서 출제되는 문제는 주로 CURRENT ISSUE에 대한 것이므로, 최근이슈를 정리하고, 그러한 이슈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수단으로서 국제정치이론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국제정치학은 어떠한 과목보다도 논술능력, 즉 자신의 주장을 적절한 근거에 기초하여 설득력있게 제시하는 능력이 고득점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주요 이슈, 이론에 대한 이해 및 정리와 함께 논술능력을 강화하는 것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음 내용들을 참고해서 국제정치학 공부방향을 잘 정리하기 바란다.

2. 고등고시 국제정치학 최근 출제 경향

첫째, 최근 고등고시, 특히 외무고등고시 국제정치학의 출제경향을 분석해 볼 때,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이론'이 상당히 중시된다는 점이다. 이론자체에 대한 지식을 묻는 난이도가 낮은 문제에서부터, 이론을 선택하여 특정 국제정치사례를 해석해 볼 것을 요구하거나, 문제에서 주어지는 이론에 따라 현실을 분석할 것을 요구하는 고난도 문제까지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다. 실증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국제정치학이 기본적으로 현상의 분석, 전망, 처방을 주목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둘째, 최근 사례에 대한 문제가 주류를 이룬다는 점이다. 사례를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스스로 사례를 제시하고 분석할 것으로 요구하기도 한다. 적절한 사례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은 자신의 논증력을 강화시켜 채점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셋째, 외교사의 경우 20점에서 30점사이로 출제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배점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나,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 문제는 1문제에 불과하나, 득점과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는 과목이다. 외교사의 분석대상은 1815년 빈체제에서부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이나, 간혹 냉전시대가 출제되기도 하므로 사실상 1990년대 초반까지가 외교사문제의 출제범위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광범한 시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다양한 사건들이 다뤄지고 있으므로, 시험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각 사건의 현재적 함의를 생각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3. 국제정치학 공부방향

첫째, 국제정치이론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국제정치이론은 상당히 많다. 현실 국제정치 분석에 적용하기 어려운 이론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으나,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이론들은 공부를 해 두는 것이 유익하다. 활용할 수 있는 이론들이 많을수록 문제에 따라 적절하게 원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론공부에 있어서는 각 이론별로 이론이 나온 배경, 가정과 명제, 적실성과 한계, 경쟁이론과의 대비점, 이론에 기초한 분석과 평가 등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이론공부는 국제정치학 공부에 있어서 대략 60%정도를 차지한다고 본다. 이론은 현대 국제정치현상뿐 아니라 외교사를 분석하는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철저한 이해를 요한다고 하겠다.

둘째, 사례를 공부해야 한다. 사례는 직접 물어보기 때문에 준비해야하기도 하나, 자신의 논리적 기초로서 언급하여 설득력있는 답안을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더더욱 치밀하게 공부를 해야 한다.

셋째, 시사적 주제와 쟁점을 정리해야 한다. 모든 시사적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학계에서 특히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제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주요학술지를 통해 그러한 주제들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주제가 아닌 경우, 단행본을 통해 정리해 두어야 한다.

4. 국제정치학 공부 자료

1) 이론

- ▷국제정치패러다임(박재영) : 기본서
- ▷현대국제관계이론과 한국(우철구/박건영) : 준기본서
- ▷왈츠이후(이근욱)
- ▷국제정치의 패러다임(장준호)
- ▷정치학이해의 길잡이 제5권, 제6권(한국정치학회)
- ▷강대국국제정치의 비극(미어세이머)

2) 외교사

- ▷세계외교사(김용구)
- ▷국제정치사(이기택)-냉전기 국제정치사 부분

3) 이슈

- ▷국제정세의 이해(유현석) : 기본서
- ▷논문 : 이슈파트의 경우 해마다 주요이슈가 바뀌므로 논문을 통해 정리해야 함

4) 사례정리

- ▷논문
- ▷정세와 정책(세종연구소)
- ▷주요국제문제분석(외교안보연구원)
- ▷콤팩트국제관계학(다나카 아끼히코 편집)

5) 주요 웹사이트

- ▷세종연구소(www.sejong.org) : 정세와 정책, 국가전략, 세종정책연구, 세종논평이 유익
- ▷외교안보연구원(www.ifans.go.kr): 주요국제문제분석, IFANS FOCUS등이 유익
- ▷미래전략연구원(www.kifs.org)
- ▷논문 검색 포털 사이트(www.dbpia.co.kr):소속 대학에서 무료 검색 및 출력 가능

6) 논점정리 및 답안작성 연습 대비서

- ▷국제정치학논점특강(이상구)
- ▷외교사논점특강(이상구)
- ▷주관식국제정치학연습(이상구)

5. 이상구 국제정치학 순환별 강의 개요

단계	방향	FOCUS	교 재	모의고사
예비순환 (4월)	Mind Building	기본개념 기본이론 기본이슈 기본사례	국제정치패러다임(박재영) 국제정세의이해(유현석) 세계외교사(김용구) 컴팩트국제관계학(다나까아끼히코)	퀴즈
1순환 (8월)	확장 + 기출분석	이론확장 이슈확장 사례확장 기출연습	국제정치학논점특강(이상구, 2판) 외교사논점특강(이상구, 3판) 국제정치학사례특강(제본교재) 국제정치학논문집(제본교재)	주 2회 1시간
2순환 (11월)	정리 + 연습	이론정리 이슈정리 답안연습	국제정치학논점특강(2판) 외교사논점특강(3판) 국제정치학사례특강(제본교재) 국제정치학논문집(제본교재) 국제정치학연습(이상구, 2판)	매일 1시간
3순환 (2011년 3월)	복습 + 실전연습	반복학습 추가이슈 실전연습	국제정치학논점특강(2판) 외교사논점특강(3판) 보충자료집(제본교재)	매일 2시간

6. 이상구 국제정치학 강의의 강점

- 첫 째, 이상구 국제정치학 강좌에서는 무엇보다 방대한 국제정치학이 이론과 이슈 및 사건들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이들을 체계화시켜 답안에 표출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이상구 국제정치학 강좌는 특히 '이론'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론은 국제정치학 과목을 정복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국제정치학 이론의 이해없이 고등고시 합격은 없다.
- 둘 째, 체계적 정리를 위한 논점정리서를 직접 집필하고 강의한다.
- 셋 째, 현 시험제도에 맞춰 손으로 쓰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도록 한다. 대부분 1순환에서부터 답안작성을 시작하는 것과 달리 이상구 국제정치학 강좌에서는 기본강의에서부터 퀴즈를 풀도록 하여 직접 글을 쓰는 연습을 수험초기부터 시작한다.
- 넷 째, 저명 출제교수님들로부터 직접 사사받은 경험으로부터 얻은 고득점 답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일러줌으로써 수강생들이 고득점 답안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한다.
- 다섯째, 1순환시기부터는 수강생들과 1대1 답안컨설팅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갖는 답안작성의 문제점을 포착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실전시험 전에 고득점 답안의 원리를 체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제법 공부방법론 및 주관식 답안지 필수적 유의 사항

윤경철 선생

약 력 : 한국외국어대졸

現 합격의 법학원 (국제법 · 국제정치학 전임)

국제법은 학생들이 재미있어 하는 과목이면서도 답안지 작성에서는 그만 못한 것 같습니다. 너무 교과서를 그대로 옮겨 부으려만 하고 있다. 사고하면서 이치를 따져주면서 법리적인 면 생각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 이에 심도있는 방법론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1. 국제법[국제경제법] 기본 도서 소개

[국제법]

1. 김대순, [국제법론]

- 한국의 대표적 서적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전통이론에 대한 사려깊은 설명에서부터 판례소개 및 최신변화 내용도 가장 up-to-date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지 초학자 입장에서는 한자와 깊은 法理가 어렵게 여겨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후술하는 [김대순 교수 저서 읽어 내는 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책이 1년에 한번 정도는 개정되어 나오므로 우리 수험생은 시험에 가급적 빨리 붙어야 한다고 각오를 다져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개판된 책을 2 ~ 3권을 사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 국제조약집; [심영사 刊+아시아 사회과학 연구원 刊] 또는 [외교통상부] 간 국제조약집 또는 법문사 간이 좋다. 공부하면서 잘못된 학습방식중에 하나가 [조약집이 없어도 된다]는 망상이다. 이는 크나큰 학습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법학의 실력은 누가 조문을 제대로 알고 있는 지 누가 판례를 제대로 많이 알고 있는 지로 판가를 나눈 것이다.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조문의 해당부분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과 그 과정에서 머릿속에 제멋조의 내용인지, 책에 틀린 부분은 없는 지, 자기 집행적 조약이란 무엇인지를 알려면 필수적이다.

3. 정인섭, [신국제법 강의]; 박영사 간; 최근의 출간책으로 기초용으로 가장 좋다. 본 강사도 이 책으로 기본기를 잡고 김대순 교수의 저서로 강의할 예정이다.

4. 이병조 이중범, [국제법 신강]얼마전까지도 가장 수험생이 선호하던 책이다. 특징으로는 목차설정, 다양한 판례 소개이다. 그런데 읽는 도중 왜 이런 목차가 필요한가에 대한 비판적 사고 없이 그냥 읽어 나가게 되는 단점이 있다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사건으로 헌책방에서라도 한권 구입해서 참고용으로 가지고 있으면 아주 좋다.

5. 성재호[국제법과 국제기구]2차 용으로는 필독서이다. 주요 주제별로 중요하면서도 수려한 간결문체로 최신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법 스터디용으로도 만점이라 생각된다.

6. 유병화,박노형,박기갑,[국제법 I,II]국제법 도서 중 가장 쉬운 이야기 문체로 서술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 개판이 이루어져 문제의식을 먼저 제기하면서 읽어 보게 한 것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특히 국제경제법 파트를 권한다. 단 나중에 요약할 하려할 때 잠시 난감할 수가 있는 데, 이때는 유병화저의 주관식 문제집을 권한다. 본 책의 핵심부분만 추린 것이다. 또한 제목 밑에 유제도 있어 생각해볼 문제 자극을 받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준다.

7. 정영진, 황준식 [이안 브라운리 국제법]세계적으로 유명한 I.Brownlie의 [Principle of Public International Law]를 번역한 책이다. 공부가 중급 이상의 수준에 도달되면 국제법에 대한 인식 강화용으로 한번 읽어 볼만한 책이다.
8. 김한택 [현대 국제법](강원대 출판부)주요 원서 중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수려한 번역으로 바꾼 책이다. 간단히 읽어 보면 아주 좋다. 깊이 또한 핵심적 사항만을 다루고 있다.
9. 본인의 저서의 명칭인 [신체계 국제법;萬國公法] 아마도 출간되면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그 이유는 목차 정리, 교과서 내용정리, 논문 내용정리, 기출문제 정리, 대학 모의고사 정리, 관련 신문기사, 모범 답안 정리등의 내용일 들어갈 종합서적이다.
10. 신림동 강의용 교재 중 일부는 저자 스스로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채 위에서 언급한 교재 내지 논문을 후배들을 시켜 요약한 것은 피해야 한다. 더군다나 옳게 된 문장이라는 것을 모르는 글이 있다. 대개 이런 책들은 할인해서 파는 데 수험생들의 귀는 솔깃한다. 그러나 결국엔 망한다. 이유도 모른 채 암기한 답안지를 쓰게 되기 때문이다.

[학술지]

대개 학생들이 답안지가 거의 유사하므로 차별화를 위해 학술지의 활용의 필요성이 있다. 누구는 이럴 필요없다고 하는 데, 사실은 그가 능력부족으로 읽어 보기를 주저했기 때문에 남도 자기처럼 만들려는 [수작]임을 명심하라.

논문 독과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우선 기본기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읽으려 하지 말라. 줄린다. 자신의 실력이 중급이상이 되면,

- 1) 우선 [논문의 제목]이 교과서에서 본 용어가 들어가 있으면 우선관심사항이라고 생각을 해두자!
- 2) 대개가 교과서 수준이후의 논맥이나 이는 답안지에 한 문단 더 써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에 걸맞게 요약을 해둔다. 남의 답안지에 없는 얘기를 좀 더 추가하여 3점 정도를 더 따내자!
- 3) 교과서 중에 특정 부분이 취약한 것을 보충하는 용도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국제기구의 결의가 어떤 과정으로 관습법이 되는가에 관한 주제는 논문을 독파하는 수밖에 없다.
- 4) 논문은 반드시 읽고 A4용지 두 장 이내에 요약을 해두어야 한다. 자칫 복사만 해두고 집에서 고사를 지내는 수가 허다하게 있기 때문이다. “자료가 손에 입수되는 순간 읽어두면 머리가 따듯해지나, 그냥 보관만 하면 가슴이 따듯해진다”가 무슨 뜻인지를 알라!

1. [국제법 평론] 주요 40대의 출제위원이 편집위원으로 집필한다. 석달에 한번 정도 출간된다. 주요 국제법 변화 동향, 주요 사건 소개, 주요 판례 소개 등 국제법 마인드 함양에 도움을 준다. 국제법은 책 속에만 존재하는 훈고학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변화와 주요 사건의 내용과 내막을 알고 그곳에서 법리 적용과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서울 국제법 연구]; 최신 학위소개나 주요 이슈에 대한 연구 논문이 돋보인다.

3. [대한 국제법 학회] 논총국제법학회의 년2회 학술지이다. 논문 제목만 보아도 무엇이 다음해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 판단이 이루어 져야 한다.

[국제 경제법]

1. 최 승환 [국제경제법] ; 외시행시 출제위원의 심혈을 기울인 기본 도서이다. 국제 공법으로서의 국제경제법의 영역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단 고시용으로 볼 때는 출제 확률이 적은 부분은 간단히 무슨 이야기인줄 만 확인하고 건너가야 한다.
2. 국제경제법 학회 간 [국제 경제법] ; 최원목 교수부분은 반드시 봐야 한다.
3. 성 재호 [국제 경제법] ; 중급이상의 수준이 쌓인 상태에서 짧은 시간내에 일독하기에 좋다.
4. 서헌재 외 [국제경제법 문제집] ; 뒷 부분의 객관식 문제는 전혀 필요 없고 앞부분의 요약은 처음 볼 때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조문과 대조해보면 쓰인 용어가 문제가 좀 있다. 체계 일부도 문제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 교재를 절판되었다고 무턱대고 제3자를 시켜 만들어 놓은 학원용 교재이다. 그런데 초학자들은 이 사실을 모른다.
5. 통상법률(법무부 간)법무부 싸이트에서 전자북을 통해 볼 수 있는 격월지이다. 교과서 보다 국제경제법의 변화 소개 속도가 빠르다 그런데 이는 상당한 전문가용이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의 심화용으로 한정 시켜야 한다. 그러면 한 권에서 한편 정도의 논문이 읽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축소될 것이다.
6. [사법 연수원 교재] ; 김성준 교수의 저서를 사법 연수원 교재용으로 축소시켜 놓은 것이다. 제1권은 WTO법 제2권은 신통상의제이다. 그런데 기실 이 내용도 5년전 얘기를 하고 있다.

II. 김대순 교수 저서와 정인섭 교수 저서 읽어내는 요령

1. 절 목차 처음 시작에는 거의 [법적 정의]가 서술되어 있다. 암기수준에 이를 정도로 반복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예를 들어 “ 국가관할권이란 사람, 물건 또는 사건 또는 자원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총체이다.”
2. 법적 정의는 이후 전개될 내용의 바로미터이다. 1958년 공해협약상의 공해의 정의와 1982년 협약상의 공해의 정의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 지, 왜 그런지를 생각해보라
3. 논쟁의 소개 뒤에 나오는 첫째, 둘째, 셋째하는 정리내용은 답안지에 꼭 들어가야 한다.
4. ‘입법’부’적 조약에서 알 수 있듯 따옴표안의 단어는 중요 단어이자 답안지에 들어갈 키워드이다. 또한‘부’자앞에 속 따옴표가 있는 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라
5. 제목의 옆에 부제를 국제법 인식의 바로미터로 삼으라. 가령 [범죄인 인도;국가의 형사관할권 행사의 영역적 한계를 메우기 위한 제도] 또는 [국가 승계;영토 주권의 변경과 그 법적 결과]를 들 수 있다. 그러면 이후 다음은 답안지 서술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
6. 한자 고민하는 학생들이 꽤 많은 것을 보고 많이 놀랐다. 강의시간에 잘 듣던가, 옥편찾는 수고를 들이던가, 쪽 팔림을 무릎 쓰고 옆의 선배에게 물어보라(만약 그 선배도 모르면 앞으로 그와 대화를 삼가라) 절대 그냥 넘기지 말라

7. 주요 국제법 용어는 영어와 한자로 알아두라 단 답안지에 시간절약상 모두 한자로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8. LN규약 제12조를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전쟁(war)에 호소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초등 학생도 아는 ‘war’가 있는 데 그 이유를 고민하라.
9. 그러나 Corfu 해협 사건 소개중‘수중 폭탄(depth charge)’라고 되어 있는 데 이런것까지 답안지에 쓰려고 용쓰지 말라. 영어시험지상에 ‘water bomb’이라고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10. 본문 중에 특정 조문이나 원 ICJ 판결문이 그대로 소개되어 있는 경우 매우 중요한 것이니 숙지하라. 핵심적 어구는 똑같이 쓸 수 있도록 반복하라
11. 판례는 본문에 사건의 개요가 소개되어 있는 정도라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단지 사건명 정도만 되어 있다면 크게 패넘치 말라.
12. 판례 색인 중 인용횟수가 많은 것은 특히 중요하다
13. 기초 법학 용어는 사전 학습이 있어야 한다. 가령 실체법, 절차법/의의, 요건, 효과/고의, 과실/형사, 민사/조각(탈락)
14. 한국 관련 법령이나 판례는 특히 숙지하라.
15. 논리의 횡적 구성을 하도록 수차례 반복하여야 한다.
16. 정인섭 교수의 영어로 된 판례 부분은 반드시 읽고 제대로 해석하여 법의 참맛을 알아야 한다. 이 작업을 한 사람은 답안지가 심도있는 논거의 전개가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의 답안지는 외운 ‘티’가 대번에 난다. 이런 친구는 죽어라고 공부하고 “반드시 떨어진다”.

III. 공부방법

1. 목차위주의 학습내가 지금 읽고 있는 분야가 어느 부분인지 반드시 확인하여 방향감각을 찾아야 한다. 각 교과서의 목차편을 미리 복사하여 학습중 비교하는 방법을 권한다.
2. 정독 후 다독
맨 처음에는 가볍게 목차를 확인하고 그 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다음, 정독을 통하여 주요 쟁점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주요 쟁점이란 context, key sentence, keyword 파악을 의미한다). 그 후 다독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책 전체를 친숙하게 하여야 한다(눈을 감은 후 책의 개요가 눈 앞에 떠오를 정도가 되어야 한다).
3. 條文UN헌장, ICJ 규정 및 1969년 조약법 협약은 原本을 구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그 외 78년도 조약 국가 승계 협약, 61년 외교관계 비엔나, 2000년 국가책임협약 제2회독 초안 및 해양법 협약 등은 책을 읽는 도중 중요한 條文을 따로 정리해 두어 암기하여야 한다.
4. 판례는 기본적인 교과서 내용 전개상 반드시 얘기해야 하는 것은 써 주어야 한다. 추적권에 대해 쓰면서 [I'm Alone.호]을 쓰지 않는다면 감점요인이겠다. 더구나 고득점하려면 최근 판례를 더 소개하라.

II. 과목별 必 합격 공부 방법론

5. 답안지에다가 판례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쓴다. “여기에는 무슨 판례가 있다” 이 무슨 망발인가? 이런 판례가 단순히 “있다는 것이 뭐가 중요한가?” 단순 무식한 답안지가 사실 너무 많다. 판례를 언급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요소가 2줄에서 3줄정도 들어가야 한다. “무슨 사건에서 어떤 재판소는 무슨 이유로 뭐라고 판시했다”라고 써야 한다.
6. [法理]를 꿰뚫어 알아야 한다. 아니면 구성이라도 할 줄 알아야 한다. 제3차 해양법제 121조상 모든 섬은 영해, 접속수역, 대륙붕, 군도수역은 가질 수 있다고 하면서 왜 인간이 거주할 수 없다든가 독자적 경제 생활이 불가능한 섬은 대륙붕이나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없다고 하였는가? 이것은 전통적인 해양법의 법리인 [The land dominates the sea]라는 것 때문이다. 인간은 육지에서 걸어 다니면서 곡식을 먹지만 가끔은 [바다의 ‘생선’]도 먹어야 한다. 따라서 해양에 대한 권원은 사실 육지에서 發揚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인간이 살 수 없는 암초에는 대륙붕이나 배타적 경제수역이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7. 항상 자신의 사고 체제나 답안지는 “왜”라는 문제에 스스로 답하면서 수립해야 한다. 즉 논거가 들어가야 한다. 다시 말해 path of logic 내지 development of idea가 뚜렷하게 나타나야 한다.
8. 국제법 위원회(ILC)에서의 논의 과정에 대해 항상 관심을 기울이기 바란다. 사실 이는 [국제 법평론]에 매번 소개 되고 있고, 가끔은 인터넷의 ILC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기를 바란다.

IV. 답안지 작성 요령

[1] 형식적인 면

1. 문제의 문장의 길이가 꽤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단어 하나하나에 법적 판단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무엇을 묻는 문제인지 파악하라(ex:33회 외시 2번 문제인 [군화 25000 켈레 수출계약을 외국 국방부와 맺은 사인의 대금 반환문제]가 “국가면제”에 관한 것인지, “국가행위론”에 관계된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 하면 정말 곤란하다. / UN헌장의 2조 4항,5항 또는 6항이 무슨 내용인지,51조와 53조 의 차이는 무엇인지 숫자만 보더라도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한다. 조약법 8조, 27조, 46조, 47조의 의미를 헛갈리지 마라! 이것은 기본이다!)
2. 우선 초안 작성시 초기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 그 다음 문제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라. 예를 들어 [EU법과 회원국 국내법과의 관계]를 쓰라는 문제에서 어떻게 수험생의 70%가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를 쓸 수 있었는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 이는 실은 채점 위원의 사후담이다. 그 채점위원은 문제가 잘못된 것도 아닌데 너무 실망스럽다고 하신 바 있다.
3. 그리고 나서 그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지 않도록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내용부터 쓰기 시작하라.(ex:<공무원의 越權行爲에 의한 국가책임>을 논할 때 국가책임이란 무엇인지, 국제범죄는 무엇인지, 위험한 결과 책임은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나서 국가 행위의 “귀속”과 “위법 행위”의 발생을 언급하고 (이미 답안지의 1장 반을 쓰고) 그 다음에서야 공무원의 越權 행위를 논하는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문제가 요구하는 것을 쓰려할 때 교과서에서 언급된 서설부분은 자신의 답안지의 논조를 보강한다는 의미에서만 답안지의 양과 주어진 시간을 봐서 핵심적 단어만을 구사하자)
4. 문제 출제의 시사성이 없는지, 한국의 최근 국제법적 쟁점과 관련은 없는 지를 파악하고 답안지 말미에 관련 사안에 대해 간략히 언급함으로써 국제법을 항상 현실과 관련하여 자신이 법적 판단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5. 답안 내용이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지 않도록 문제에 대한 답안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몇 등분을 하라. 이때 意義要件(요건의 제한),效果(효과의 제한)를 빠트리지 않도록 하라. → 이는‘효과’를 위주로 문제되는 쟁점을 찾아내는‘思考’를 갖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6. 답안의 모든 목차를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을 갖도록 설정하고 그 해당내용도 목차 바로 다음부터 즉각적으로 시작하라. (왜냐하면, 채점위원들은 정말(!) 목차만 보고 채점하는 경우가 茶飯事이고 또한 2시간 10면이라는 제약조건을 감안해 볼 때 자기가 많이 안다고 구구절절 써 나가지 말고 체계적으로 알고 있다고 요령 있게 쓰려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7. 문장이 되게끔 써야 한다. 몰아 닥치는 생각들을 쏟아 부우려 하지 말고 단문위주로(한 문장이 두 줄 이상을 넘지 않도록)쓰라. 만연체는 자신이 모른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니 채점위원이 읽어 봐도 무슨 말인지가 모를 때가 자주 있다.
 8. 목차는 일련의 순서를 정하고 일관되게 써 나가라(ex; I, 1. 1) ㄱ.)학생들의 목차부여에서 애로 사항이'어떻게' 잡아야 하는가가 문제라는 것이다. 우선 쓸 내용을 단어 한 두개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택하여 쓰라. 사실 목차 부여가 자연스러운 사람일수록 그 해당 분야의 전반적인 레파토리 어떻게 전개되는지 아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초국경적 환경침해에 대한 결과책임》**

 1. 책임의 의의
 2. 책임의 내용
 3. 책임의 성립 요건 ; 전통적 국가책임과의 관계
 - 1) 국가로의 행위귀속의 불필요
 - 2) 국가의 국제법상 의무위반의 불필요
 - 3) 유일한 성립요건 ; 초국경적 손해의 발생
 4. 책임의 성질
 - 1) 보충적 성격 ; 실질적 활동주체의 보상책임을 보충
 - 2) 제1차 규범적 성격 ; responsibility가 아니라 liability
9.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본론이나 결론쯤에 가서 상충되는 내용을 쓰지 말라.(ex;니이에레방식과 잠비아 방식이 관습법적 효력이 있다고 해 놓고서는 나중에 이를 성문화한 것이 국가 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인데 그 협약이 국제법상 일반원칙을 반영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는 경우) → 평소'도표'를 활용하여 <체계점검>을 하라.
 10. 주요 라틴어 표현은 꼭 써 주라. 그래야만 답안의 品格이 생긴다. 또한 한자에 대해 강박관념을 갖지 말고 주요 용어만 한자로 써 주면 족하다.(居中調整이라 쓰면 채점자의 인상을 구기는 수가 있다)

[2] 내용적인 면

1. 주요 개념이나 의의(즉 legal definition은 필수적 암기)는 답안의 서두(서론이 아님)에 분명하게 밝혀 둔다. 즉, 예를 들어 “이 사안에서는 국가면제가 적용된다”라고 쓰는 것보다 두 세줄 앞에서 간단히 “국가면제란 법정지 국가가 자국 영역내에서 외국 및 그 재산에 대해 재판관할권 행사를 면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사안에서는...)
2. [법적 정의]로부터 (법률행위의 적법한)‘요건’이 자연스럽게 도출 가능하다.
3. 이때 관련 법규(조약)을 반드시 밝혀 준다.(“조약의 유보”가 비엔나 협약 2조 1항 d호임을 밝혀주는 것 또한 기본이다 / 난민의 인정요건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박해 운운하거나 또는 인종 성별 언어 종교 등의 이유로 박해를 받을 이유라는 등 하는 사람은 다음해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 평소에 조약문이나 법전을 참조하면서 몇 조인가를 확인한 후 소리내어 몇 번 읽어본다. 그 후 수시로 자기 확인해야한다.)

II. 과목별 必 합격 공부 방법론

4. 사안을 풀 때 관련 준거법은 반드시 언급한다. “UN헌장 제2조”에 의하면”이라든가, “관습법상”이라든가, “UN 총회 결의 제2625호 우호관계원칙선언에서”라든가 하는 것을 말한다.
5.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고, 요건이 있으면 요건의 제한이 있고, 위법성이 있으면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고, 불소급효가 있으면 소급효가 있고,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효력 발생이 있으면 무효사유가 있고, 금지되는 경우가 있으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UN헌장상 근거와는 달리 UN의 실제 관행은 어떠한가 하는 것처럼 그 반대측에 있는, 잘 생각하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점을 빠트리지 않도록 평소 국제법 교과서를 감각적으로 숙지하라. (ex; 국내문제 불간섭 의무의 원칙에 대해 쓰라고 할 때 머리 속에서 국가의 의무는 그 권리의 당연한 corollary이며, 국내문제는 국제법의 규율대상이 아닌 분야이며, 불간섭은 먼저 간섭이란 무엇인지를 논하고 왜 불간섭해야 하는가를 언급하고 마지막으로 그 원칙의 예외 즉 적법한 간섭은 어떤 경우가 있는가를 생각하라!!!)
6. 답안은 항상 서술식으로, 이치를 따져가며 써 주라
7. 논리의 橫的 構成을 할 수 있도록 평소 국제법 교과서를 꽤 뚫는 慧眼을 갖추라. (ex; 국가의 관할권이 면제되는 경우를 논할 때 주권면제만 딸랑 생각나는 사람은 곤란한 축에 속한다) ⇒ Brain-storming을 하라!
8. 기존 교과서 내용의 요약에 그치지 말고, 알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독창적인 답안지를 구성하라 → 특히 극히 일반적인 문제가 출제될 경우, 교과서의 내용 정리의에도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입체적인 답안지를 구성하라
9. 저자에 따라 상이한 견해가 제시되는 문제인 경우, 가장 적절한 견해를 택하여 기본 골격을 잡은 후 여타의 견해 또는 입장들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극복하는 접근자세를 취하자.
10. 전혀 생소한 문제가 나와도 절대 백지 답안지를 내지 말라. 실제 채점과정에서는 많이 참작되는 경우가 있다. 즉 실제 자기의 만족 수준과 실제 점수와 차이가 나는 경우이다. (ex; 지구 정지궤도에 대해서 우주법 일반원칙에 대해 직·간접으로 언급이 되어있으면 호점수가 나왔었다.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에 대해서도 국가 관할권 성립의 준칙이나 일진 다이아몬드사건등 관련될 만한 것은 모조리 써주라)
11. 케이스의 경우 <사건 개요>, <법적 쟁점>, <판결>, <추론>의 4단계로 나누는 것이 좋다(추가적으로 ‘평석’(comment)를 약간 가미해도 좋다) 이는 평소 판례를 정리할 때 특히 필요하다. 단 고시 답안지에서는 <법적 쟁점> 과 <판결; 사안의 해결>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집중적인 언급이 있어야 한다.
12. 케이스 문제인 경우, 설문이 함축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몇 개로 구분해내어, 이에 대한 답변을 두괄식으로 제시한 경우 법원칙을 인용하여 그 근거를 제시하라
13. 법적 마인드는 [규범적 인식]에서부터 시작한다. 법규범은 [규칙; rule]뿐만 아니라 [원칙; principle], [목적; ends]등도 포함한다. 규칙의 가장 큰 특징은 원칙, 목적과는 달리 그 내용이 [특정적]이라는 데에 있다. 즉 원칙의 경우 그 내용이 열려 있는(open-textured)데에 반하여, 규칙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다. 국제법은 전통적으로 규칙중심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현대 국제법체계는 다수의 원칙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4. 모든 법의 내용을 다음의 체제를 동원하여 정리한다. 답안지 작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의의 → 법적 정의 → 취지 → 연혁 → 관련 법원 → 요건(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 → 요건의 제한 → 법률적 효과 → 판례 소개 → 비판론(입법론 시각에서) → 관련 시사문제
15. 법적 효력은 인적(누가), 물적(무엇을), 장소적(어디서), 시간적(언제부터), 총 4가지 시각에서 전개되므로 항상 따져보면서 공부해야 한다.

국제법상 가치 충돌의 사례

논리와 판단 윤 경찰

1. 69년 조약법협약 제26조(Pacta sunt servanda) vs. 69년 조약법 협약 제62조(사정 변경의 원칙, rebus sic stantibus) → 26조가 더 중요하니까 26조 중심으로 서술해야. 62조는 예외적.
2. 민족자결권(UN의 목적의 한도 내에서의 무력 사용 가능) vs. 영토 보전의 원칙
3. 임의규범 vs. 강행규범
4. *si omnes* vs. *erga omnes*
5. 의사주의 vs. 객관주의
6. 유보에 있어서 조약의 보편성 vs. 조약의 일체성(이것 때문에 유보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 법 규정에 의한 제한, 법 원칙에 의한 제한, 법 자체의 성질에 따른(강행규범 등) 제한)
7. 조약의 당사자효 vs. 제3자효
8. 국제법상 금지되는 간섭(정당한 권원 없음. 사실상 간섭) vs. 국제법상 허용되는 간섭(정당한 권원 있음. 법률상 간섭)
9. 쌍방행위 vs. 일방행위
10. UN헌장상 허용되는 무력의 행사(51조 자위권, 7장상 조치, 107조 구적국 조항, 8장 지역적 기구에 의한 조치) vs. UN헌장상 금지되는 무력의 행사
cf) '일반 국제법상 허용되는 무력행사'라고 하면, 관습법상 허용되는 무력행사가 추가되는바, 이는 자국민 보호를 위한 무력행사, 긴급피난(국가적 필요상황)(1967년 Torey Canyon 사건, 아랑항 피격사건, 덴마크 함대)
11. 국가주권(B규약 4조: 일탈조항)(B규약 제1선택의정서: 국가가 수락해야 개인이 고발할 수 있음.)(51년 난민협약 제33조 2항: 1항의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에 대하여 국가 주권을 옹호하는 조항) vs. 인권
12. 개발(개도국들 주장) vs. 인권(서구 국가들 주장)
13. 승인 여부: 정치성을 가짐 vs. 부여된 승인: 법률적 효과를 가짐.
14. 국가관할권에 있어서 보편주의 vs. 주권 (ex. Eichmann 사건) → 인도 or 소추 원칙
15. 보편주의 vs. 죄형 법정주의 (ex. 뉘렌베르크 형사재판소)
16. 국가의 형사집행관할권 vs. 범죄인의 인권과의 충돌 문제 (특정성의 원칙,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인도적 고려의 원칙 → 이 세 개가 형사집행관할권이 범죄인의 인권을 고려해주는 원칙들. 쌍방범죄 원칙 등은 단순히 사법 공조를 위한 것)

II. 과목별 必 합격 공부 방법론

17. 국가 면제 vs. 개인의 권리(이익) (절대적 면제이론 & 제한적 면제이론)
 cf) 최승환 교수 Q: 개인이 외국 정부를 상대로 자국 법원에 소송 제기시 재판 관할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는? (이 문제는 국가행위이론으로 가져가면 안됨. 문제에 '외국 정부를 상대로'라는 문구가 들어갔잖아. That means 이 문제는 국가 면제의 문제라는 것)
 - 범위: 제한적 면제이론에서 공법인으로서 한 행위와 사법인으로서 한 행위 차이
 - 한계: 집행관할권 포기해도 강제집행권까지 포기한 것은 아님.
18. 국가행위이론에서, 과거에는 국가와 국가 지도자를 동일시하였으나, 오늘날에는 국가와 국가 지도자가 분리되어 국가 지도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국가행위이론을 원용할 수 없다. (뉘렌베르크 제 7조, ICC 27조)

19.

분권적 국제공동체	탈분권적(조직화된) 국제공동체
국제법의 성질 논의	국제법의 성질 논의 필요 없음. 당연한 것.
임의 규범	강행 규범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이 논의도 필요 없음
국가 승인	논의 필요 없음
대응조치 (self-help)	sanction(이 '제재'라는 것은 국가 대 국가 관계에서는 쓰는 용어 아님.)
임의관할권	강제관할제도
국내문제	국내문제의 영역은 축소될 것.
연안국의 대양을 향한 주권의 확장(영해의 범위 확장, 군도수역, 접속수역, 대륙붕, EEZ)	국제사회의 연대성 강화 측면 (공해 자유의 원칙, 해양 관련 분쟁 해결을 해양법 재판소로 단일화, 내륙국의 이익을 보호, EEZ에서 타국에게 어획량 할당해야 하는 것 등)
영공에 대한 완전, 배타적 주권(시카고협약 제1조)	조난당한 항공기에 대해서는 필요한 원조, technical landing의 허용
우주물체도 등록국의 관할권, 통제 하에 놓인다.	우주에도 국제법 적용, 평화적 이용, 우주비행사는 envoys of mankind to outer space이므로 지원해야 함.
title (권원)	인류 공동 유산
남극협약 4조: 영유권 주장 동결	평화적 이용, ATCPs → 여기에서 사찰 실시
보고타 선언	우주 정지궤도의 자유 이용
spillover	전파 자유이용
동의 요구	remote sensing

20. 주재국의 관할권 vs. 외교 특권, 면제(외교 공관의 불가침성, 외교관 - 신체의 불가침(형사관할권에 관해서는 완전 면제, 행정 및 민사관할권에 관해서는 원칙적 면제. 3가지 예외(부동산, 상속, 영리 행위))
21. 주재국의 관할권 vs. 영사의 특권, 면제 (영사는 비정치적 기관이기 때문에 외교관계 단절되었다고 영사관계 단절되는 것 아니고, 영사는 정치기관에 직접 접촉 못하며, 국가 원수의 변경과 관련 없이 계속 유지, 증언의 의무도 진다. + 외교관은 국내문제 간섭이 되기 때문에 주재국 재판에 관여 못하지만, 영사는 할 수 있음.)
22. 주재국의 관할권 vs. 국제기구 공무원의 특권, 면제
23. 주재국의 관할권 vs. 군대의 특권, 면제 → SOFA 문제.

24. 국가 행위로의 귀속(a. 국가기관 내지 기관원, b. 직무수행중이어야, c. 국가 공권력 행사를 위임받은(empowered) 주체의 행위, d. 사실상(de facto) 국가 기관원으로서의 행위) vs. 국가 행위로의 불귀속
25. 국내구제 완료의 원칙: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권 vs. 현지의 사법주권 존중
26. 국적: 국가와 개인의 법률적 유대.↔ 국적이 개인에 대한 질곡; 국제 인권법의 발달
27. 국유화: 수용국의 권리 vs. 외국인의 재산권(Hull 공식 effective, adequate, prompt)
28. 피승계국과 승계국은 주권평등원칙하의 별개의 지위 ↔ 제3국과의 법적 안정성

국제정치학(외교사 포함)공부방법론의 총체

국제정치학 담당 윤경철

I. 국제정치학에 대한 초학자들의 생각

외시(외교아카데미)를 입문하는 학생들의 국제정치학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우선 상당한 흥미를 느낀다는 점이다. 전쟁, 평화, 글로벌 금융 위기, 서울 G-20, 북핵문제, 오바마, 사르코지(부르니 포함), 후진타오, 이명박, 김정일 등이 매일 같이 터져 나온다.

더구나 필자가 강의시간에 요구하는 외시(외교아카데미) “입문 동기” 보면, 잠깐의 외국 체류 생활 중에서 [외교관]이라는 것에 대해 직업적 매력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외시과목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국제정치학에 대해 슬슬 ‘공포’(fear)를 느끼기 시작한다. (물론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고시 스타일에 대해서는 다시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우선 그 공포는 우선 어느 정도까지가 고시에 필요한 범위냐는 것이다. 해도 해도 끝이 없다는 푸념이 많다.

둘째, 국가의 정치생활을 알려면 우선 그 국가의 역사적 삶을 알아야 할 것이다. 즉 역사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그 흐름을 알고 있어야 하는 데도 그렇지 못하다.

셋째, 국제정치학적 논리 같은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어째 사람마다 그리도 다른 얘기를 한다는 말인가. 넷째 시사 상식이 중요한 줄은 알겠는데 어떻게 하여 섭취를 하는가하는 것이다.

다섯째 상당한 추상적 개념을 논할 때는 알듯 말듯하다는 것이다.

여섯째, 너무 자주 변한다는 것이다.

II. 국제정치학이라는 학문의 구성적 특성

우선 국제정치‘이론’에 대해서 보자. 이론이란 간단히 말해 [사실의 설명을 위한 논리적, 개념적 틀]을 말한다. 그런데 이것을 논하는 범주와 차원이 상당히 다양하다. 그래서 나누어 보자면 크게 설명이론, 메타이론, 규범이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설명이론]은 “왜”에 대해 설명을 하기 위해 일관된 가설(hypothesis)을 전제로 한다. 여기에는 [거대(일반)이론;현실주의,자유주의, 구조주의, 구성주의, 비판이론 등],[중범위 이론; 세력균형론, 세력우월론, 국제정치경제론, 패권안정론 등],[세부이론;동맹이론,협상론, 안보딜레마론,군축이론 등]을 들 수 있다.

[메타이론]은 이론에 관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인식론과 존재론]의 대립과 [전체론과 개체론]의 대립이 있다. [규범이론]은 이론을 뒷받침하는 가치관, 자유, 평등, 질서 등을 다룬다.

이론은 국제정치‘사상’에서 배태된다. 물론 정치사상사에서 파생되는 면이 있다. 하지만 국제관계에 관한 ‘사상’이라는 부분에 좀 강조하고자 한다. 국가성립의 기원을 다루는 ‘사상’과는 약간 포인트를 달리 한다. 이는 ‘역사성’(historicity)을 떨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사회과학은 현실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존재의의를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책’ 또는 ‘전략’이 필요하게 된다.

국제정치학은 이 영역을 다루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특히 스카치폴이 말하는 [world historical time]의 세계에서 분석적 자세를 요구하게 된다. 時空을 넘나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III. 주요 필독서

1. 비전공자, 왕초학자의 경우

유현석 교수의 [국제정세의 이해]를 권한다. 왕초보용이다.

베일리스 스미스의 [세계정치론]을 권한다. 전 세계에서 교재로 가장 많이 채택하는 책이다. 조셉, 나이의 [국제분쟁의 이해]; 다양한 사례와 정확한 평가가 돋보인다

2. 본격적 준비서

윤정철, 編著, [제5판 핵심과 맥락 국제정치학]; 고시 국제정치학의 거의 모든 것과 석사과정수준의 주요 원전 및 논문이 요약 소개되어 있다. 또한 이론과 시사의 접목이라는 시각에서 각종 칼럼을 결부시켜 생생함을 더 해주고 있다.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중 하나는 국제정치학을 공부할 때 도무지 몇 권의 책을 읽어 두어야하는 지에 대한 반발감이었다.. 그래서 이 책 제2판이 나올 때까지 10년간 자료의 수집과 꼬박 1년간의 집필이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출간되는 거의 모든 책을 참고로 하였다. 수험생들에게 이 한 권만 보고가면 합격할 수 있게끔 “야심”을 부렸다. 그 결과 지금도 이 책의 각주에 나오는 책은 따로 또 읽을 필요는 없다고 “지금도” 단언한다.

3. 주요 논문인테

국제정치학회 논문, 세종연구소간 [정세와 정책], [국가전략] 경남대 [국제문제연구] 등이다.

수업시간에 상당한 양을 제공한다. 여러분은 그저 읽고 고민하고 정리하면 된다.

논문은 아무래도 4명 정도의 스터디를 통하여 해소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 혼자서는 힘들다.

일주일애 논문 한편은 반드시 읽어야 하고 그것을 요약하여 다른 논문 요약 3편을 해온 친구들 앞에서 짧게 강의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의문점에 대한 간단한 논쟁(NOT discussion, BUT debate)을 해두는 것이 좋다. 그래야 스스로 논리전개력이 생겨 답안지의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쳐 나갈 수가 있다. 그런데 논문의 양보다는 하나를 읽더라도 얼마나 정치학적 감각으로 자신이 소화를 해내는가가 더욱 중요하다.

IV. 공부방법론

1.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이론의 숙지도는 높다. 그런데 공부를 [잘]한 사람은 이론과 실제를 결합한 입체적 사고를 한다.

2. 영어와 담쌓으면 국제정치학 공부는 실패한 것이다. 핵심과 맥락에서 영어 원전 단락만 쏙 빼고 읽은 사람치고 영어에 비교우위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3. 이론은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차근히 이해해주로 익혀 나간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론을 쓰라고는 절대로 출제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국제정치 패러다임]을 읽고 그대로 답안지를 쓰면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 중요한 점은 모든 국제정치현상을 이론적으로 해석한 결과를 답안지에 쓰는 것인데 명칭한 수험생들은 이 사실을 모른다. 이론적 해석은 강의 속에서 터득하게 된다. 이후 본인의 훈련이 중요한데 강의실을 떠나는 순간부터 게을러지기 때문에 등한히 하고 다른 과목 때문에 더욱 하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이다.

4. 우선 학교 수업이나 학원수업보다 약간 빠르게 자신의 진도를 나간다.

5. 모르는 것,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확인하려고 애쓰지 말라. 단지 이런 것도 있구나하는 정도면 족하다.

6. [political feel]이 매우 중요하므로 항상 의식하라. 즉 국가간 정치권력적 관계의 추이가 어떻게 변화하며 그 함의는 무엇인가에 대해 물밑을 보는 시각을 키워서 그것이 고스란히 답안지에 담겨야 한다.

7. 질문사항, 의문사항을 되도록 많이 만들라.
8. 평소 스포츠신문이 아닌 주요 일간지, 주간지, Economist, Foreign Affairs등을 읽는 습관을 형성한다.
9. 주요 기사는 자기가 보는 기본서에 붙여두라 아니면 적어도 개인적인 [시사정리]노트를 만들고 운영하라.
10. 국제정치학의 존립목적은 전쟁(갈등,빈곤)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극복하여 평화(협력, 번영)의 달성 조건을 모색하는 학문이라는 것을 항상 유념하라.
11. 눈과 귀를 통해 들어오는 모든 정보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말고 “아니 왜 그렇지?”라는 의문 해소의 screening장치를 사유 속에 반드시 세워 두어야 한다.
12. 이런 습관을 들이면 답안지도 path oh logic 내지 developments of idea가 자연스레 나오게 되며 그는 반드시 합격하고 만다.
13. 답안지는 죽어도 직접 채점 안해 주면서 강의도중 웃겨주기만(혹은 헐박만) 하지 실은 알맹이 없는 강의에 대해 나 스스로 고시에 쩌들다보니 혹시 이에 빠저든 것은 아닌지 자기 자신을 항상 점검하라, 대개 떨어지고 나서 그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14. 답안지는 수험생 자신의 인생을 걸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채점자도 마찬가지로 여야 한다. 그런데 아르바이트생들의 만행이 너무 난무하다.

V. 외교사 방법론

외교사는 우선 평소에 머리를 식히는 일환으로 접근해야 한다. 머리 싸매고 집어넣으려 해도 잘 되지 않는다.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는 핵심과 맥락의 테마를 참고하라.

학습방법은,

1. 국제정치사의 시스템적 분석을 우선 이해하여 큰 맥락을 잡는다.
2. 그 맥락 속에서 특정사건에 임하는 각국의 목표, 입장, 외교정책은 어떠한지를 파악한다.
3. 지명은 반드시 지도를 통해 참고한다.
4. 전쟁이나 주요 사건 끝에 맺게 되는 조약의 핵심 내용이나 합의 사항은 무엇인지 파악한다. 특히 영토의 이전이나 영향권의 변화를 추적한다.
5. 그것이 지니는 국제정치사적 의의를 음미한다.
6. 현재 각국의 외교 정책에 투영된 모습을 포착한다.
7. 국제정치 이론을 접목하여 볼 수는 없을 까를 항상 생각하라.
8. 과거의 특정 사건과 오늘날의 국제정치의 “결과”와의 유사성 및 차이점은 무엇인가 주변 친구들과 토론을 벌이라. 시험문제는 [통시대적]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9. 국제법의 판례에서 주로 논의되는 지역이 어디인지, 그런 사건의 당시 시대배경이 무엇인지 관련하여 공부하자.

- 만화나 도표로 되어 있는 [먼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 세계사] 같은 책이 많다. 특히 [하룻밤에 읽는 세계사 2] 중앙 M&B간이다. 역사가 약한 여러분께 강권한다.

VI. 수험생들이 주의할 점

- 국제정치학은 재미있는 학문이라는 것을 인식하자. 재미가 있으려면 단순히 고시 과목이라기보다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세계가 어떤 모습으로 흘러왔는가에 대해 최소한의 흥미가 있어야 될 것이다.
- 국제정치이론에 대해 너무 고민하지 말라. 우선 국제정치이론 전체를 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려라. 이론의 주요 골자만 알고 오히려 특정 사건이나 시사문제를 이론의 시각에서 어떻게 보이는 가, 어떻게 비쳐지는 가, 어떻게 해석되는 가만을 설명하면 된다.
- 특히 이를 위해서는 도리어 시사문제에 대해 남들 잘 모르는 이면의 것을 보기 바란다.
- 그렇다면 특히 신문 읽는 습관을 제발 좀 들이기 바란다. 외무고시 만큼이나 시사문제와 강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시험도 없다. 인터넷 신문은 NO!
- 항상 상황 이해 → 상황 분석 → 상황 평가 → 대안의 전략 제시의 형태로 되어 있다. 이때 제발 좀 정치적 상상력을 동원하라.
- 기본기를 확실히 닦고 조금씩 논문으로 넓혀 나간다. 논문 읽으면 좋다고 무대포로 읽어 제끼려고 하지 말라. 정말 중요하는 것은 생각해 나아가는 힘 즉 Path Of Logic 내지 Developments of Idea를 기르라. 사색과 토론이 요구된다.
- 최근의 책을 위주로 보라. 2년 내지 3년만 지나도 이미 낡은 책임을 유념하라.
- 남북의 근현대 정치사에 대해 관심을 두고 어떻게 하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 좀 해야 한다.
- 관련 시사적 [fact]소개시에 숫자, 고유 명칭, 년도 표시 등을 유념한다. 신문, 방송 등을 계속 주시하라.
- 어떠한 문제이든지 그 쟁점이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분쟁 유발적(에스컬레이션의 가능성도 염두)으로 될지, 또는 국제평화를 달성하기위해 어떠한 모색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 국제 정치학의 존립 목적을 생각해 보라!!!)

국제정치학 2차 답안지 작성 요령

核心과 脈絡 윤 경찰 제공

I. 소극적 의무(피해야 할 사항)

1. 형식상

- 1) 글자는 반듯하게 써야 한다. 악필은 채점자에게 고통이다.
- 2) 문학적 표현은 가급적 피한다.(▶ 현재 동북 아시아의 국제 정치적 상황은 마치 호수위에 고고히 떠있기 위하여 물속에서는 끊임없이 물갈퀴를 저어대고 있을 백조의 모습과 흡사하다:x//단 정치적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다면 무방하겠다.(▶ 칼을 녹여 쟁기로)
- 3) 만연체로 쓰지 않는다.(▶ 한 문장의 길이가 답안지 세줄을 넘지 않는다.)
- 4) 序를 쓰면 반드시 結을 쓴다.(▶ [結: 생략] →떨어지는 지름길!)
- 5) 최소한 알아 볼 수 있는 정도로 써야 한다.(▶ 惡筆은 약간 무거운 필기구로 바꿔 보라)
- 6) 최소한 8장은 써야 한다.(▶ 평소 학습시 1시간에 몇 장을 쓸 수 있는지 자신의 역량을 체크한다.)
- 7) 『영어 능통자』:한번 쓴 영문 표현은 재차 반복해서 쓰지 말라(▶ Thesaurus 평소 휴대 학습!)
- 8) 『영어 능통자』:서두에 일별 목차를 쓰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됨(▶ 초안 작성과 기능상 중복되고, 쓰는 도중 초안과 다른 내용 및 논리를 전개할 수도 있기 때문임)
- 9) 『영어 능통자』:기초 영문법을 틀리면 국가를 위해 영어능통자직렬을 떠나라!(1부하라는 말)

2. 내용상

- 1) 언술 체계의 비정직성은 禁物!(▶ 목차와 다른 내용 / 문제제기와 관련이 없는 결론 / 쓰는 도중 논리의 변질/답안지 서두에서는 무슨 이론으로 파악해본다고 하고선 실제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 등)
- 2) 목차간 Logic의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 (국제법처럼) 지나친 세부 목차에 집착하지 말라)
- 3) 냉전적 사고에 사로잡히지 말라.("북한의 남침 야욕을 분쇄시키기 위해 한미 동맹이 필요하다."→x)
- 4) 국민 윤리식의 답안은 지양한다.("우리의 우방인 미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x)
- 5) 사실 나열식 또는 회화식 저널리즘적 표현은 삼가한다.("클린턴은 르윈스키와의 '부적절한 친밀한 관계'를 만회하기위해 수단과 아프가니스탄을 폭격했다."→x)
- 6) 문제의 핵심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땀 들이기식 순환논리를 피하라. (▶ 답안지 서두에서 바로 핵심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다.
 ● 세 가지 패러다임으로 판단해 보겠다고 해놓고서는 패러다임 소개만 하고 끝나던가 / 중이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았던지 답안지 후반부에서 갑자기 문제가 요구하는 내용을 쓰느라고 논리의 생략 내지 비약이 나타나던가 /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너무 뻔한 국제정치 상황을 공연히 진지하게 나열하다가 갑자기 맥락에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이제부터 문제의답을 쓰겠노라 한다던가)
- 7) 결론에서 '그러나, 그런데'식으로 그때까지 해 오던 내용의 반론은 피하라.(▶ 단 다른 시각도 있음을 보이는 反轉의 '시도'는 문장력이 뒷받침된다면 해볼 만하다.)
- 8) 전혀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절대 백지 답안지를 내지 말라.
- 9) 국제법적 시각 또는 국제법적 용어를 절대적으로 피한다.(▶ K.Waltz의 3rd level에서 전쟁 방지책으로서 ICC창설의 목적을 장구하게 서술한다 던가 /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란 문제에서 국제법 교과서와 거의 유사한 내용을 서술한다던가 / 나토의 군사력의 '역외적용'시 / 정보에도 지적재산권이 미친다고 하면서 그 원칙으로 최혜국대우, 권리소진원칙등을 언급하는 경우 / '분권적인 국제체제에서' ♪🎵)
- 10) 『영어 능통자』:영자 신문의 해외 소식 논조나 국제정치학 원서 논조를 피하라. 자기 생각이 담겨야 한다는 것이다.
- 11) 『영어 능통자』:자신이 겪었던 해외에서의 어떤 사건에 집착하여 전체의 그림을 망치지 말라.
- 12) 『영어능통자』:당위론적 표현은 피하라. 국제정치학은 과학이지 규범이 아니다.

II. 적극적 의무(반드시 해야 할 사항)

1. 형식상

- 1) <2시간 10장>이라는 제약 조건속에서 어떻게 하면 중요 논점을 빼먹지 않으면서 간결하게 함축적으로 쓸 수 있는가를 항상 연구하라. (자칫 자신이 ‘찍은’ 문제가 나왔다고, 혹은 깊은 부분까지 알고 있다고 ‘신나게’ 써 나가다가 문제당 한정적으로 주어진 시간과 분량을 초과하지 말라.)
- 2) 개별 문제의 해당 점수배분을 먼저 확인한 후 그에따라 써나갈 답안지의 양을 가늠한다.
(▶ 50점,25점,25점⇒ 5장,2½장, 2½장 ; 40점, 30점, 30점⇒ 4장, 3장, 3장. 물론 초안 작성시에 들어가는 시간을 빼면 약간의 에너리는 있을 것임/ 모든 문제의 초안을 잡고 쓰는 것은 아니니 자신 있는 문제는 바로 써나가도 될 것이다.)
- 3) 어느 학자를 언급할 때 그의 출세작을 꼭 原語로 언급한다.
- 4) 유명한 단어, 語句, 문장은 영어로 써 준다.
- 5) 이때 [Putnam은 이렇게 말했다]라고 쓰지 말고 [Putnam의 생각에서 알 수 있듯이 또는 (그의) 생각처럼~]이라고 쓴다. 즉 외국 학자의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함의”를 이해하여 결국 자신의 아이디어를 쓰라는 것이다.
- 6) 주 목차만 봐도 무슨 내용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집약적 어구를 선택한다.
- 7) 목차와 목차간의 긴장의 고조도를 섬세하게 구사하도록 노력하자.
- 8) 문제의 문장에서 출제자가 원하는 바를 파악하여 그것을 바로 목차로 잡는다.(그들은 묻는 말을 찾아 채점을 끝내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 9) 채점 기준표에 “논증력 항목”이 들어 갈수 있다. 이는 수험생의 ‘논리적 증거’제시와 ‘경험적 증거’제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이론은 어떤 주어진 질문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갖고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
- 10) A를 설명하려고 할 때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B를 대조시키면서 서술한다(▶ UN↔LN, 核무기↔재래식 무기, 탈냉전↔냉전, BOP↔CS/PP, 다자주의↔쌍무주의, 세계화↔국제화: 이때 문제의 輕重을 가려야 한다.)
- 11) 일부 학생들의 문장력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서론의 쟁점 제기력은 돋보이나 본문에서는 그것에 대한 문제 해결능력이 부족한 경우, 논리적으로 간결하나 구체성이 결여된 경우, 키워드(key word)는 잘 제시하나 문장력은 그에 못 미치는 경우, 아이디어는 참신하나 그것을 엮을 구성의 짜임새가 부족한 경우, 기존 논의의 소개는 원만하나 자기 결론을 제시하는 능력은 부족한 경우 등 이 그것이다.

2. 내용상

- 1) 어떠한 문제이든지 그 쟁점이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도움이 되는지,아니면 분쟁 유발적(에스컬레이션의 가능성도 염두)으로 될지, 또는 국제평화를 달성하기위해 어떠한 모색이 가능한지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 (▶ 국제 정치학의 존립 목적을 생각해 보라!!!)
- 2) 어떠한 문제이든지 <안보>에 대한 영향을 언급한다.(▶ 다양한 안보 개념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
- 3) 무슨 문제이든지 관련된 <Power>개념에 대해 언급하자.(▶ 정치학은 곧 권력학이므로)
- 4) 思想-理論-政策이라는 큰 범주의 사고 영역을 나누고 여기에 실제사례나 外交史를 접목한다.
- 5) 이때 3가지의 국제정치 패러다임의 시각에서 思考할 수 있음을 보인다.
- 6) 최소한 세가지<분석 수준>과 <분석 영역>을 구분하여 양자 결합시각으로 답안을 구성한다.
- 7) 한쪽 끝에 ‘국가(민족국가, 주권, 웨스트팔리아 체제)를 설정하고 다른 한 쪽 끝에는 논하려는 국제정치 이슈를 위치시켜 양자간의 보완적, 갈등적, 타협적인 측면을 반드시 머리속에 각인시켜서 답안의 핵심을 이끌어 내는데 고뇌의 흔적이 있음을 보인다.(▶국가↔세계화/통합/TNC/국제기구/상호의존/시장 등)
- 8) 국제정치이론과 국제정치 실체를 결합해서 論한다. 이론의 “implication”을 숙지 할 것.
- 9) 무슨 문제이든지 한국에 대한 함의나 동북아시아에 주는 함의를 놓치지 않고 서술한다.
- 10) 국내정치에 대한 영향 또는 국내정치에서 시작된 변화요인을 언급한다.
- 11) R.Cox의 물질, 제도 사상이나 사회세력, 국가형태, 세계질서라는 프레임워크를 짜놓고 평소 국제

II. 과목별 必 합격 공부 방법론

정치학적 마인드를 기르도록 하라 (▶ 우선 R.Cox의 논문 먼저 읽어야 한다.)

- 12) 국제정치학에 모범답안은 없지만 국제정치학적 논리(Logic)는 있다.
- 13) 관련 시사적 [fact]소개시에 숫자, 고유 명칭, 년도 표시 등을 유념한다. 신문, 방송 등을 계속주시하고 있었음을 암묵적으로 강하게 풍기도록 한다.
- 14) 학문의 과정속에서 고시 논리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고나 할까요? ; 현실세계의 변화 양상 소개 및 이해 → 그 원인을 설명해 줄 논리적 개념들의 형성 내지 제시 → 이론의 적실성 여부 판단(논리적 및 경험적) → 정치적 의미의 접목 → 자기의 최종적인 진지한 결론.

외무고시(외교아카데미 시험) 입문에서 성공까지

합격의 법학원 윤 경철

안녕하세요. 이글은 외무고시를 마음속에 품는 그 순간부터 합격에 이르기까지 여러 험한 과정을 경험과 13년 동안 한국 최고의 고시메카 신림동에서 여러 학생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느끼고, 도와주고, 같이 슬퍼하며, 결국 웃는 그날까지의 과정을 경험 삼아 몇 가지 도움을 드리기 위한 글입니다.

I. 외무고시(외교아카데미 시험) 입문 동기

여러 가지 입문 동기가 있죠. 수업 첫날은 항상 외시 입문 동기를 간단히 써서 제출하게 하는 데 그 중에는 1. 원하는 대학에 가지를 못해 그렇다고 재수나 삼수도 못해 먼 미래를 보고 패자 부활전을 하려고 2. 대학에 왔더니만 별로 마음에 와 닿는 의미 있는 일을 찾지 못해 3. 고등학교때 이과를 잘못 선택해서 이공계열로 대학을 들어 왔으나 더는 자신의 특성을 억누르고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행하는 것이 너무 너무 싫어서 4. 부모에 효도하기 위해 5. 가문의 영광을 위해 6. 여성으로서 떳떳하게 그리고 차별받지 않는 직업으로서 7. 이슬람 국가에 선교하기 위해 8. 그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9. 병환중인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10. 점쟁이가 官運이 있다고 해서 11. 한국이 몇몇한 대미 외교를 펼치지 못해 분해서 12. 외국에서 자신이 연루된 특정사건에서 현지 외교관 내지 영사가 해결해주는 것을 보고 너무 멋있어서 등이다.

뭐든 좋다. 단지 한 번 더 자기 자신에게 솔직히 물어 보라고 권하고 싶다. 나중에 10여년 후에 지금의 결정이 결코 후회되지 않고 나의 모든 열과 성을 치밀하게 쏟아 부은 결정이었기를 바란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여러분은 20대 초반, 중반, 후반 또는 30대 초반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의 인간관, 생활관, 인생관, 세계관이 변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이 결정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5년 아니 6년 아니 7년 이상의 고된 불합격의 고통이 지속된다고 한들 끝끝내 해내고야 말겠다는 신념이 생긴다면 그렇다면 결국은 해야 하는 것이다. 한두 번 준비도 제대로 안 한 채 즉 고시가 운전 면허시험정도 되는 줄 아는 사람은 아예 근처도 가지 말 것을 말하는 것이다.

II. 외무고시(외교아카데미 시험) 준비기

우선 자기의 기질을 알아야 한다. 이해는 빠르나 금방 까먹는지, 특정 경험이나 사실을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는지, 매사 준비형인지, 아니면 유유자적하다가 벼락치기형으로 변신이 능한 사람인지, 감성이 풍부한지, 매정한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만을 챙기는 이기적인지, 아니면 쓸데없이 남을 걱정해주는 스타일인지, 매사 쾌활한지 아니면 늘 비관적인지, 술주정은 어떻게 하는 지 아니면 그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무엇인지를 말이다.

이는 고시준비기동안 공부스타일, 그 공부속에서 개념을 찾아 자기의 소양 내지 실력으로 어떻게 체득되는지 아니면 그것이 잘 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활로를 찾아 내는지, 답답하고 열받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소하는 지를 결정 짓는다.

둘째, 자기만의 공부 근거지를 정해야 한다. 변하지 않는 장소, 항상 내가 그곳에 있어야 마음 이 편해지는 장소, 그곳에서 세상을 논하면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장소(물론 진짜 꿈을 꾼다 쪽팔리지 않는 장소여야 함) 아마 학교 도서관, 고시반, 고시원일 듯싶다.

공부장소가 일정치 않다면 그만큼 자기의 집중력은 떨어져있다는 것이요, 시간 허비도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셋째, 자기의 생활을 단순화시켜야 한다. 학교 수업이외의 기타 동아리 활동, 아르바이트, 여자 남자 친

II. 과목별 必 합격 공부 방법론

구와의 잦은 만남, 사회 활동, 기타 여러 행사를 가급적 줄여야 한다.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 어려울 줄 안다. 허나 고시 기간이 해보면 그다지 많은 시간이 허용되지 않았음을 깨닫는 다면 어쩔 수 없다. 주변에 양해를 구하면서 점차 그들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든다.

III. 외무고시(외교아카데미 시험) 본격 진격시기

첫째, 자기 공부 근거지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생겨나야 한다. 돌부처(곧은 자세로 걸상에 등을 붙이지 않고 최소 3시간이상 일어나지 않는 사람)니, 본드걸(영당이에 본드가 나와 마치 걸상이 딱 달라 붙어 떨어질 줄 모르고 계속 공부하는 여학생)이니 하는 소문이 돌면 더 좋다. 알게 모르게 주변이 인정한다는 의사표시인 것이다.

한 예를 들어보자. 저도 학교 도서관에서 아침마다 일정 자리를 두고 먼저 앉으려고 경쟁하는 사람이 있었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다가 줄곧 내가 먼저 차지하였다. 그런데 어느날 너무 피곤해 30분정도 늦고 말았다. 아 뺏겼구나 하면서도 도서관에를 가보니 아! 웬일인가. 그 경쟁자가 다툼의 대상이 된 명당자리가 아닌 바로 옆 자리에 있지를 않은가. 이상하다 하면서 내가 앉았지만 영 궁금한게 아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슬쩍 물어봤다. 왜 여기에 앉지를 않았느냐고. 그가 하는 말이 자기가 어찌다 한번 일찍 왔다고 내가 좋아하는 자리에 앉으면 공연히 내가 공부가 잘 되지 않아 보여 괜시리 미안해 지더라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자 난 이런 배려심도 평소에 없었구나 하는 반성과 함께, 한편으로는 웬지 기분이 좋았다.

왜 좋았을까? 여러분도 알 것이다.

둘째, 모든 정보, 사실, 사건, 지식 등이 눈으로, 귀로, 손으로 들어 올 때 반드시 간간하게 스크린닝(screening)을 하라. 수업시간에 질문도 자주 하라, 친구들에게 문제제기도 자주 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견해도 귀담아 들어 두라. 그가 말하는 취지는 무엇인지, 무엇을 근거삼아 얘기하는 지, 이야기의 방향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를 생각하라. 이런 비판적 사고 함양은 자기의 정체성 확인 작업이기 때문이다.

셋째, 읽어야 될 책이라면 과감히 사라. 그리고 그날 바로 1개 챕터 정도는 읽어 둔다. 그리고 며칠 정도면 다 읽겠구나하는 것을 미리 정해둔다. 그리고 그대로 이행한다.

넷째, 기타 복사물 또는 파일 자료 등은 정리정돈을 확실히 한다. 정리되지 않은 정보는 다시 보기가 싫어진다. 그것은 쓰레기 일 뿐이다.

IV. 외무고시(외교아카데미 시험) 공부 심화기

첫째, 우선 초학자의 경우 독서량의 양적, 질적 확대가 있어야 한다. PSAT는 사실 많은 정보의 축적을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기가 참 어려울 지경이다. 행자부에서 최근 모의고사를 실시한다고 하니 그 결과와 당 부서 싸이트에 있는 예제를 꼼꼼히 연구를 해보자. 한림학원차원에서 모종의 준비가 끝나면 시작할 것이다. 그 이전에 평소 신문을 꼼꼼히 읽어두는 습관은 필수적이다. 일부 여학생의 경우 자기전 10분 정도 신문을 읽고 잠자리에 든다는 얘기를 듣고 질타한 적이 있다. 그래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제대로 알 수 있겠냐고 그래가지고 양질의 외교관의 기본 소양이 제대로 함양되겠느냐고. 어떻게 하루가 시작되면 아침부터 전날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렇게도 궁금하지 않았을까? 하루가 끝났을 때 읽어두는 조간 신문은 사실 이틀이 늦은 정보를 얻는 것이요 그것도 10분어치만이라니!

둘째, 헌법과 국사 공부는 가을 때 서부터 시작해도 늦은 것은 아닐 것이다. 비중도 줄었거니와 너무 일찍 시작하면 오히려 시험전에 지쳐 버릴 수가 있다. 대충 제시하면 한달은 기본서 숙독(모든 강의는 먼저 관련 서적을 탐독하고 임한다. 그날 서점에서 사서 그날 수업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그 강의의 모든 것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달은 강의 수강, 셋째 달은 강의 정리 넷째 달은 문제집 풀이 다섯째 달은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재독하는 여유와 심화를 하고 취약부분을 정리한다. 그렇다

면 내년 3월에 1차 시험을 친다고 가정하고 역산을 해보라

셋째, 영어는 매일 준비를 한다 단지 통과 의례식으로 토익에 임하지 말고 이차를 생각해서 영어의 근본을 새롭게 해야 한다. 대개 대학에 들어와서 영문법을 다시 익히지 않는 경우가 많은 데, 그 결과는 특히 이차 영작문에서 대가를 치루게 되어 있다. 영자신문정도 하나는 매일 봐야 한다. 일부는 Herald Tribune 또는 Economist를 구독하는 데 우려되는 사항은 학생들을 보니 제대로 자기가 무엇을 읽고 지면을 통해 무엇을 알아내는 가를 느끼면서 보는 지가 궁급할때가 왕왕 있다.

넷째, 제2외국어는 고등학교때 했던 것을 권한다. 이것이 어려우면 정말 새롭게 공부하고 싶은 언어에 새벽부터 매진하기를 바란다. 아마 이차 시험에 충분히 응할 정도가 되려면 최소2년 이상은 족히 걸릴 것이다. 그래서인지 외교 출신들이 외시에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국제법의 경우, 우선 교과서를 탐닉하듯 혀로 구석구석을 읽어 내라. 무슨 말인지 혹 모르면 표시해 두고 나중에 다시 보면 터득되는 경우도 있거니와 아니면 선배나 선생님들께 정중히 질문을 통해 해결하라.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하려다가는 도중 포기 가능성이 있으니 1획 독 때 이해도 60%, 2획독 때 80%로 올리고 난 후 강의를 수강한다. 학교강의는 필수이고 학원 강의는 특히 제 강의는 강한 권고사항(?)이다. 그 이유는 들어보면 안다. 맞다. 자신감의 표현인 것이다. 학교 강의는 천천히 전개되어 나가면서 가슴속에 남는 것이 있으며, 학원 강의는 스피디하게 전개되어 가면서 오직 고득점만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나눠준 자료, 필기 노트를 가지고 스터디 그룹을 만든다. 여기서 재토론을 한다. 그러다보면 자기가 뭘 모르고, 뭘 착각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대개 인터넷으로 모집한 데 오히려 학원 다니다가 유난히 눈에 띄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다. 기실 스터디는 이들과 하는 것이다. 말걸기 쑥스러운 사람은 선생이 중매를 잘 서준다.

마지막으로 교과서와 자료를 정리하면서 답안지 쓰기 훈련에 돌입하여 [2시간 10장]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음미한다.

여섯째, 국제정치학은 정치학 마인드를 깔고 여러 historical fact를 가지고 한번 엮어봐야 한다 이때 time-space compression을 구사해야 한다. 이는 시공을 응축해 자신의 인지경험속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너무 어려운 말을 했나? 쉽게 말해 비엔나 체제를 공부하면서 1815년 자신이 비인회의에 마치 있는 듯한 착각이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론 세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학문의 선각자들의 조언을 듣자. 논리적 근거와 경험적 근거가 양대 지주이다. 이를 교차적으로 구사하자. 마지막으로 존재 구속성의 고민을 하면서 한국외교정책에 주는 함의도 도출해본다.

일곱째, 대다수 학생들의 최대 난적 경제학에 대해 우선 친숙해져야 한다. 수식하면 공포를 보이는 학생들이 많다. 그러나 조금 알고 나면 아주 간단한 의사표시기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론부터 철저히 숙지를 하고 각론으로 들어간다. 그래야 속도가 나면서 실력이 층층이 쌓이게 되는 것이다. 또 응용문제가 나와도 기초개념을 동원될 수 있는 것이다. 미시, 거시 수지 무역 등 많은 양에 질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므로 한권을 정해 격파한다. 그 후 강의를 들으면서 정치한 논리체계와 고시적 분위기(답안지 작성 스킬)를 파악한다.

V. 외무고시(외교아카데미 시험) 좌절기

최종 불기까지 아마 한번 아니 두 번 아니 세 번 정도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 마라. 우리는 그까짓 낙방에 아프지 않을 정신무장을 이미 해두고 고시를 시작하지 않았는가?

심신이 지쳤을 것이다. 더 이상은 못해!라고 하면서도 성적을 받아보면 억하면서 다시 뭘가 끓어오르는 것 때문에 번민을 하다가 다시 마지막이다 라고하면서 태어난 이래 처음으로 쫓겨난 힘을 쏟아 낼 것이다. 사실 시험에 매번 떨어져도 이 고시세계에서 나가지 못하는 이유 중 근본 이유는 매번 시험 준비하면서 자기의 best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롯되는 자책 비슷한 안타까움 때문이다. 무서운 일이다. 자기의 발목을 자기가 잡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두려워 마라. 이것을 알 정도가 되면 불

을 정도가 된 것이다.

수험 도중에 여러 난관이 있다. 그것도 시험 직전에. 부모의 갑작스런 사망, 병마, 경제적 궁핍, 정신적 혼란, 자살 충동, 여자 문제 및 남자 문제 등이다.

고시의 마지막 공부는 마음공부이다. 집착하지 말고 집념을 태워야 한다. “여기서 끝나면 안돼” 라고 자신의 마음속에 울부짖어야 한다.

VI. 외무고시(외교아카데미 시험) 합격기

이차 합격자 명단에 자기 이름을 확인한 사람은 자랑스럽게 저한테 전화를 해온다. 그러면서 갑자기 걱정을 또 늘어놓는다. 자기가 삼차 면접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선생의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방법이 있습니다요.

선생의 기쁨은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의 이름을 일년에 한번씩 합격자 명단에 확인 했을 때이다. 슬픔은 그 반대의 경우이다. 그러나 시간은 흐른다. 그것도 매우 잘 흐른다.

외무고시 영어시험 경향과 대비 요령

정영한 박사

약 력 : 연세대학교 영어영문과

· 한국외대 통역대학원 한영과 졸업

· 前 코리아 헤럴드 신문 시사영작칼럼 "Write On", 중급영작칼럼 "Writing Start-up" 담당 칼럼니스트

· 現 합격의 법학원 외시 영어 전임

1. 시험 유형 및 경향

외무고시 영어시험은 보통 영한번역 지문 두 개 각 20점씩 총 40점 (또는 긴 지문 한 개 40점), 한영번역 지문 한 개 40점, 영어 에세이 20점 등 총 100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한번역과 한영번역 지문은 일반적 주제와 시사 주제가 모두 출제된다. 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 주제와 시사 주제가 50:50의 비율로 출제된다. (기출문제는 www.englishstop.com의 "자료실" 참조.)

2. 영한번역 대비

영한번역을 잘 하려면 첫째 글을 잘 이해해야 한다. 그러려면 어휘를 많이 알고 있어야 하고, 복잡한 구문을 제대로 파악하는 문법 실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여기까지는 평소에 관심 있게 꾸준히 영어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자신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영어로 된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우리말로 옮기는 것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문장이 길고 수식이 복잡한 경우와 직역을 했을 때 어색한 경우, 영어를 완벽히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또한 격식 있게 번역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가령, "She rightly pointed out that it was foolish of him to downplay the achievements of female human rights activists"를 우리말로 번역해보자. 아마도 "그녀는 그가 여자 인권 운동가들의 업적을 낮게 평가한 것은 명청한 일이었다고 옳게 지적했다"라고 번역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매끄럽게 번역하면, "그녀는 그가 어리석게도 여성 인권 운동가들의 업적을 폄하했다고 지적하였는데 그것은 옳은 일이었다"가 더 좋을 것이다.

시험 볼 때, 영한번역의 경우는 원문에 충실하여 가급적 직역 위주로 번역하되, 직역이 우리말로 너무 이상한 경우에 한해 의역을 한다. 가령 "The country does not allow private ownership."을 번역할 때, 원문 그대로 "그 나라는 사유재산제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되지, 이것을 굳이 의역해서 "그 나라에서는 개인이 재산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는 "The main role of a government i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its people."을 원문에 충실하게 "정부의 주요 역할은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로 직역하면 되는데, 이를 의역하여 "정부는 주로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의역할 경우 감점을 당할 수가 있다. 의역을 하다보면 자칫 그 정도가 심해져서 원문의 의미가 훼손될 수도 있고, 채점자 입장에서 볼 때, 의미 파악을 못해서 대충 얼버무린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80-90%의 경우는 가급적 직역(여기서 말하는 직역이란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는 것을 말함)을 하도록 한다. 다만, "The rain prevented me from going out."을 "비가 나로 하여금 외출하는 것을 막았다"라고 직역하면 우리말이 너무 이상하므로 "비가 와서 외출을 못했다"처럼 의역을 해야 한다. 이처럼 의역을 할 때에는 반드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를 가리켜 "원문 이탈 이유 존재의 법칙"이라는 말로 수업 때 학생들에게 설명하곤 한다. 원문을 이탈하여 의역하는 것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타당한 이유가 존재할 때에만 의역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원문에 충실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렇듯 의역은 어디까지나 차선택이라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한다.

문장이 너무 길고 복잡할 때, 원문과 똑같이 직역을 하고도 의미를 잘 전달하고 말도 매끄럽게 하여

읽는 사람이 이해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게 할 수 있다면 원문 그대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차선책으로서 적당하게 끊어서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는 게 좋다. 중간에 관계절이 여러 개 들어가 있고, 길이가 8줄인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똑같이 8줄짜리 우리말 한 문장으로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은, 더구나 시험 볼 때 긴장한 상태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괜히 긴 문장으로 직역하다가 완전히 망치는 것 보다는 문장을 2-3개로 끊어서 처리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이다.

또, 영어문장 맨 뒤부터 거슬러 올라오는 번역보다는 가급적 영어 어순을 그대로 따라가며 번역하는 게 더 좋을 때가 많다. 예를 들어 "You cannot pass the exam if you do not work hard."를 번역할 경우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시험에 합격할 수 없다"와 같이 뒤에서부터 번역하지 말고, "시험에 합격하려면, 열심히 노력해야한다"처럼 영어문장 순서를 따라 번역하도록 한다. 사실 문장의 길이가 짧은 경우에는 뒤에서부터 번역해도 무방하지만 문장의 길이가 두 줄을 넘어갈 경우에는 순서대로 하는 것이 속도도 더 빠르고, 읽는 사람도 이해하기가 더 쉽다. 또, "He was beaten until he died."를 뒤에서부터 번역해서 "그는 죽을 때까지 맞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순서대로 번역해서 "그는 맞아서 죽었다"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번역이다.

영한 번역 지문으로는 인문/사회/자연과학 서적과 영자 신문/잡지 기사가 주로 이용된다. 따라서 영어 어휘를 공부할 때는 인문/사회/자연과학 지문에 자주 등장하는 일반적 어휘와 영자 신문이나 잡지 기사에서 자주 쓰이는 시사 어휘를 모두 공부해야 한다. 일반적 어휘는 "영한 Vocabulary 30000 (정영한 지음)"을 가지고 공부하면 좋고, 시사 어휘는 헤럴드 출판사의 "TIME*CNN 필수영단어 (정영한 지음)"를 가지고 공부하면 도움이 된다. 어휘란 독해 공부를 하면서 그때그때 암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휘책 두 권 정도는 따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

문법은 독해는 물론 영작에 있어서 필수적이므로 기초를 확실히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 본 학원에 개설된 "영작/독해 기초반"에서는 수능이나 토익과 같은 객관식 문법 문제를 푸는 것이 목적이 아닌, 영작과 독해를 잘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문법을 마스터하는 것을 목표로 저술된 문법책 "영한 영작*독해 필수 문법" (정영한 지음)을 가지고 12과에 걸쳐 영작과 독해 공부에 필수적인 문법 사항들을 다룬다. 외시영어를 위한 문법 공부는 단순히 문법 사항을 아는 수준이 아니라, 각 문법 분야에 대해 영어로 예문을 만들어 쓸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령 도치 구문, 생략 구문, 가정법 구문 등을 이용한 예문을 만들 수 있도록 공부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영어 문장을 아무리 잘 이해했어도 우리말로 매끄럽게 옮기지 못하면 시험에서 아무 소용이 없으므로, 평소에 영어 글을 읽을 때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는 것이 좋다. 입으로 해도 좋고, 글로 써보면 더 좋다. 토플이나 독해문제집을 사서 거기에 실린 지문을 우리말로 번역해본 뒤 모범 번역과 비교해본다. 시사 주제도 많이 출제 되므로 타임이나 이코노미스트 같은 시사 주간지에서 중요한 기사를 뽑아서 읽고 우리말로 번역해보도록 한다. 이 경우에는 모범번역문이 없으므로 스티디 파트 너와 각자 한 번씩을 바꿔서 채점해 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독해 공부를 할 때는 다독보다 정독이 더 중요하다. 지문을 읽고 대충 줄거리만 파악하는 것은 소설책을 읽을 때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토플 시험처럼 지문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거나 외시에서처럼 번역을 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다. 꼼꼼하게 구문 하나하나를 분석하면서 읽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대명사 that, 관계 대명사 which가 나오면 앞에 나온 어떤 단어를 받는지 파악해야 되고, 도치나 생략 구문이 있으면 원래 문장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하고, 단어 간의 수식관계도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문에 대한 구문 분석이 자세히 나와 있는 독해 교재를 사서 공부해 보도록 한다. 대충 5페이지를 읽는 것보다는 1페이지라도 정확하고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3. 한영번역대비

영작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휘, 문법, 의역을 위한 분석력 세 가지가 필요하다. 외시에 나오는 모든 어휘를 다 공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최소한 정치, 경제, 법률, 군사 등 시사와 관련된 어휘들은 정리하고 암기해야 한다. "TIME·CNN 필수영단어 (정영한 지음)" 부록에 주요 정치, 경제, 법률, 군사 용어가 정리되어 있으니 반드시 암기하고, 그밖에 평소에 영자신문이나 주간지에 나오는 중요 어휘들을

따로 정리하여 암기한다. 특히 어휘를 암기할 때는 개개 단어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collocation)'를 암기해야 한다. 우리말에서 '완강히 부인하다', '구차한 변명'처럼 붙어 다니는 표현을 '언어'라고 한다. 우리말을 공부하는 외국인이 '완강히'와 '부인하다'를 따로 암기하면 안되고, '완강히 부인하다'를 같이 암기해야 하듯 'adamantly deny', 'flimsy excuse'와 같은 collocation은 같이 암기해야만 영어를 잘 할 수 있다. '의혹'을 뜻하는 suspicion을 암기하고 있다고 해도, '의혹을 해소하다'를 영작하려면 막막해지게 되므로, 'dispel suspicion' 같은 언어를 숙어처럼 암기해야 한다. 언어 공부를 위해서는 Oxford에서 나온 Collocations란 사전이 유용하다. 각 단어와 자주 함께 쓰이는 언어들이 잘 수록되어 있어서 한영 번역 공부를 위해 필수적인 교재이다.

또한 어휘를 암기할 때는 뜻만 암기하지 말고 그 용례를 같이 암기해야 한다. 가령 demand는 'He demanded her to sign the contract'처럼 쓰면 틀리고, 'He demanded that she sign the contract'로 써야하는데, demand를 암기할 때 이 같은 용례를 공부하지 않고 단순히 '요구하다'라는 뜻만 암기하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각 영어 단어에 대한 정확한 용례를 익히기 위해서는 Collins Cobuild에서 나온 Advanced Learners' English Dictionary라는 영영 사전을 활용하면 좋다.

문법은 위 '영한번역대비'에서 언급했듯이 각 문법사항에 대해 예문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채점상의 주관성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한영번역문제를 출제할 때는 아예 영어원문을 구해 놓고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그것을 시험문제로 낸다. 그리고 영어원문을 모범답안처럼 사용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한영번역문을 채점하게 된다. 따라서 가급적 원문의 구조나 표현과 유사하게 번역을 하는 것이 좋다. 가령 "정치 개혁에 대해 촉매 작용을 하다"라는 표현이 나올 경우 원문 그대로 "act as a catalyst for political reforms"라고 번역해야지, "act as a means to stimulate political reforms"라고 의역하지 않도록 한다. 왜냐하면 방금 언급했듯이 채점자들은 애초에 "act as a catalyst for political reforms"라는 영어 원문을 "정치 개혁에 대해 촉매 작용을 하다"라고 번역하여 시험 문제를 출제했고, 채점할 때에도 영어 원문을 정답처럼 활용하므로, "act as a catalyst for political reforms"라고 번역하는 것이 "act as a means to stimulate political reforms"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번역이고,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직역을 강조하는 것이다.

한영번역을 하다보면 직역이 불가능하고 의역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가령 "그 새로운 정책을 도입해 봄직하다"의 경우 "~해 봄직하다"를 직역하기가 곤란하다. 이를 의역하면 "그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좋은 생각일 것이다"로 의역하여, "It would be a good idea to adopt the new policy"로 번역하면 된다. 평소에 우리나라 신문 기사나 사설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로 바꿔서 표현하기(paraphrase)를 연습해보면 영작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4. 에세이대비

에세이는 크게 영어실력과 논리전개력 두 가지를 평가하는데 이 중에서 특히 영어실력이 중요하다. 학생들의 에세이를 채점해보면 논리전개력에서는 상위 20%와 하위 20%를 제외하면 나머지 60%의 실력은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영어실력은 현저히 차이가 나므로, 에세이 점수 중 70~80%는 영어실력에서, 나머지는 논리전개력에서 결판이 난다고 볼 수 있다. 영어실력은 위에서 말한 한영번역을 열심히 공부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 논리전개력을 키우기 위해 평상시 우리나라 신문 사설을 읽고 자기 나름대로 우리말로 요약하는 연습을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에세이는 주제나 글을 주고 그 주제나 글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쓰라는 형식과 외국인 관리나 기업인 등에게 실무적 내용의 편지를 쓰라는 형식이 있다.

<외시 영어 기출 문제와 모범 번역문 다운로드: www.englishtop.com의 "자료실">

행정고시 국제통상직 영어시험 경향 및 대비 요령

정영한 박사

1. 시험 유형 및 경향

행정고시 영어시험은 보통 영한번역 지문 두 개 또는 긴 지문 한 개 (배점 20~30점), 한영번역 지문 한 개 (배점 30~40점), 우리말을 영어로 요약하기 (배점 20점), 영어 지문 읽고 내용 파악하기 (배점 15~20점) 등 총 100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한번역과 한영번역은 거의 매년 출제가 되었고 나머지는 해마다 다르다. 영한번역과 한영번역 지문은 일반적 주제와 시사주제가 모두 출제된다. 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 주제와 시사 주제가 50:50의 비율로 출제된다. 영한번역과 한영번역이외의 [제3문]은 영어지문 읽고 내용에 관한 질문에 답하기, 주어진 한국어(또는 영어) 지문을 영어로 요약하기, 주어진 주제에 관한 에세이 쓰기가 출제되는데 2008년부터는 계속 에세이가 출제되고 있으므로 에세이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한다. (기출문제는 www.englishtop.com의 "자료실" 참조.)

2. 영한번역대비 / 3. 한영번역대비

행시 영어시험이 외시 영어시험 보다 약간 더 어렵고 시사문제의 비중이 좀 더 크다. 하지만 외시와 행시의 영한번역과 한영번역시험의 내용과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므로, 행시준비생들도 위에서 언급한 외무고시 대비 방법대로 공부하면 될 것이다.

3. 영어 요약 시험 대비

영작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영어 요약이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요약을 잘하려면 특히 paraphrase를 잘해야 한다. 뜻은 같으나 가급적 길이가 짧은 표현을 쓰는 능력이 중요하다. 가령,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root out corruption."을 "Korea's government needs to eradicate corruption."으로 paraphrase할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하다. 요약을 할 때 원문을 내용을 많이 빼는 것보다는 이렇게 길이가 짧은 표현을 씌으로써 가급적 원문의 내용을 많이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소 영작 공부를 할 때 이 점에 신경을 써서 공부하도록 한다. 한국어를 바로 영어로 요약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한국어를 한국어로 요약한 뒤 그것을 영어로 가급적 짧게 번역하도록 한다. 요약 문제를 풀다보면 기준 단어 수에 미달되는 경우보다는 초과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평소에 한국어 사실을 우리말로 요약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4. 영어 내용 파악 문제 대비

2003년과 2004년에 출제가 되었다가 2005년과 2006년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다. 앞으로 출제가 될 지의 여부는 확실치 않으나, 그래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놓는 것이 좋겠다. 이 분야의 공부는 기본적으로 영한번역 공부를 하면 70~80%정도는 커버가 된다. 하지만 글을 읽는 것과 문제를 푸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토플 독해 문제집을 한 권 정도 풀어보면 영한번역시험과 영어 R/C 시험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다.

<행시 영어 기출 문제와 모범 번역문 다운로드: www.englishtop.com의 "자료실">

□ 영작문 독해 기초반 (실강 + 동영상)

영작 · 독해에 필수적인 문법(고등학교 문법 이상의 수준 - 가령 but, yet, however, nevertheless, by contrast, on the other hand, on the contrary의 차이점)을 배우고, 각 문법 사항을 응용한 단문 영작/독해 연습을 한다. 본 과정은 총 16회에 강의로 진행되며 문법책 12과를 다룬다. 반드시 1과부터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중간에 신규등록을 해도 무방하다. 3월부터 6월까지 매월 3과씩 진도를 나간다.

□ 영작문 독해 (실강 + 동영상)

매월 4회 강의(<1교시 + 3교시 영작> + <2교시 독해>)로 연중 진행된다. 실제 시험과 유사한 난이도와 내용의 영어/한국어 지문을 번역하는 연습을 한다. 1회 강의에서 영어/한국어 지문 각 2페이지씩 번역하는 연습을 한다. 영한 번역의 경우 단순한 지문 이해를 넘어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번역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한영 번역의 경우 문법에 맞으면서도 좀더 격식있는 표현을 써서 영어로 번역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월 4회 강의 중 1회는 모의고사로 진행한다. 월 2회 영작 또는 에세이 첨삭지도를 하며 장기수강생(7개월 이상)의 경우 수업한 내용에 대해 무제한 첨삭지도를 한다.

□ 모의고사반 (실강)

3월과 4월에는 외시 대비, 5월과 6월에는 행시 대비로 모의고사반을 진행한다. 2시간동안 실제 시험과 동일한 난이도, 길이, 주제로 출제된 모의고사를 푼다. 당일 모의고사에 대해 강사가 미리 준비한 모범 번역문을 가지고 1시간 동안 중요 부분을 설명하고, 시험시의 주의사항과 대처요령에 대해 설명한다. 희망자에 한 해 한영번역, 에세이, 또는 영어 요약 첨삭 지도를 해 준다 (첨삭료 별도).

□ 영작·독해 필수 문법 (동영상)

영작문 독해 기초반 내용 중 영작과 독해 설명 부분을 빼고 문법부분만 편집한 강의. 영작과 독해의 기초가 잡혀 있는 학생이 빠른 시간 안에 고급 문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가 있다.

□ 어휘 특강 (동영상)

독해 지문에 자주 등장하는 인문/사회/자연 과학 어휘를 어원별로 정리하여 예문과 함께 실은 어휘 교재 『영한 Vocabulary 30000』을 주교재로 하여 2개월(8회)에 걸쳐 진도를 나간 수업이다. 8회에 걸쳐 책의 중요 부분을 공부함으로써 향후 혼자 2회독할 때 더 빠르게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한다.

□ 에세이 특강 (동영상)

2개월(8회)에 걸쳐 에세이 쓰는 기술에 대해 설명한 강좌이다. 기출문제와 모범에세이를 가지고, 에세이 쓰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며, 학생들이 작성한 에세이를 가지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 자세한 내용은 www.englishstop.com을 참고하세요.

제2외국어 공부방법론

김미선 박사
이화여대 독문과, 동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독일 마르부르크 대학 수학
이화여대 강사
現 합격의 법학원 독일어 전임교수

□ 독일어 연간 강의 계획

독일어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원 강의는 ‘문법-독해-작문-에세이’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동사의 시제와 위치, 능동과 수동, 동사와 전치사 등의 격 지배, 부문장 등의 문법지식이 있어야 해석과 작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법 공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어의 기본 문장을 익혀가는 데 초점을 맞춰 강의를 진행합니다. 학생들이 새로 나오는 기본 단어들을 꾸준히 암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때 단어로 외우지 말고 짧은 문장으로 외우는 것이 유용합니다. 또한 독일어 교재에서 접하게 되는 문장들을 거꾸로 한국어에서 독일어로 작문하는 연습을 병행해야 합니다. 해석도 그렇지만 작문은 단시간 내에 마스터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급문법을 공부할 때부터 아주 간단한 문장이라도 작문연습에 활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법 과정에서부터 작문과 독해를 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어 문법에 대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는 학생이라면 독해와 작문 연습을 병행한 강의부터 수강할 수 있습니다. 독해 강의는 초급, 중급부터 시작하여 독일 방송과 신문에서 발췌한 시사적인 내용까지 확대해갑니다. 시험에 필요한 어휘들을 확실하게 익히기면서 어휘와 독해, 작문 실력을 늘려가는 과정입니다. 작문연습은 한 가지 교재를 기본교재로 하여 기본 문장들을 익혀가고, 그 토대 위에서 다양한 단문, 장문들을 연습해갑니다.

에세이는 3월과 4월의 모의고사 과정에서 연습하게 됩니다. 모의고사에서 선정된 여러 가지 주제에 맞춰 글을 쓰는 연습을 하고 첨삭지도를 받게 됩니다.

5월에 초·중급 수준에서 시작하는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연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5월-6월> 초·중급 문법 + 독해

- 주요 문법을 정리한다.
- 짧은 문장을 중심으로 한 작문 연습, 초급 독해를 병행한다.

<7월-8월> 초급 독해 + 작문

- 2개월간 습득한 문법을 이용하여 간단한 작문을 연습한다.
- 초급 독문해석과 작문을 여러 교재에서 발췌하여 연습한다.

<9월-11월> 중급 작문 + 독해

- 교재를 중심으로 작문에 중점을 두어 단문, 복문을 연습한다.
- 인터넷 등에서 발췌한 프린트로 중급 독해를 연습하며 어휘를 강화한다.
- 작문 과제를 첨삭 지도한다.

<12월-2월> 독해작문 (A / B / C)

- 중급, 중상급 수준의 프린트로 실전과 유사한 독해와 작문을 연습한다.
- 작문 과제를 첨삭 지도한다.

<3월-4월> 실전대비 모의고사

- 실전과 유사한 내용과 분량의 작문, 독해, 에세이 모의고사를 실시한다.
- 답안을 첨삭 지도하며 보다 나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독일어 강의는 보통 1주일에 2회씩, 한 달에 7회 진행됩니다. 1회당 수업 시간은 2시간 30분 정도입니다.)

외무고시에 대비하여 독일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은 물론 한 마디로 답하기 어려운 문제이고 모든 공부에 왕도가 없는 것이지만, 처음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과정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2004년 외무고시부터는 독일어를 포함한 제2외국어 시험에 에세이 10점, 작문 20점, 해석 20점, 즉 총 50점 만점이 배점되어 있다. 독일어는 동사의 시제와 위치, 능동과 수동, 동사와 전치사 등의 격 지배, 분리동사, 부문장 등의 문법지식이 있어야 해석과 작문이 가능하다. 따라서 처음에는 우선 중요한 문법지식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처음 3개월 정도는 기본적인 문법을 공부한다. 너무 심화된 문법은 과감히 버리고 독일어의 기본적인 문장 구조를 익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새로 나오는 기본 단어들은 꾸준히 정리하면서 외워야 하는데, 이때 단어로 외우지 말고 짧더라도 문장을 외우는 것이 유용하다. 또한 교재에서 접하게 되는 문장들을 거꾸로 한국어에서 독일어로 작문하는 연습을 병행해야 한다. 해석도 그렇지만 작문은 단시간 내에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문법을 공부할 때부터 아주 간단한 문장이라도 작문연습에 활용해야 한다.

문법교재는, 초보자에게는 너무 간단하거나 너무 심오하지 않게 씌어진 우리말 문법책이 좋다. 그리고 중급자에게는 『외국인을 위한 독일어』 정도가 추천할 만하다. 하지만 이 책은 연습문제 해답이 없고 한국어 설명도 거의 없기 때문에 초보자가 혼자 공부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

문법을 공부한 이후에는 독해와 작문 연습을 병행한다. 독해와 작문을 공부할 때는 모르는 것을 대충 넘어가지 말고 확실하게 이해한 후에 지나가야 한다. 독해는 우선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로 초급부터 중급 정도까지 공부한다. 고급독해 서적들은 지나치게 심오한 철학과 과학에 관한 지문이 많이 들어있어서 시험대비에는 그다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 어느 정도 독일어 문장에 익숙해진 후에는 인터넷을 통해 독일 방송과 신문에서 짧은 기사들을 발췌해 읽는다. 신조어나 어려운 전문용어보다는 기본적인 어휘들에 밑줄을 그어가면서 확실하게 익히는 것이 좋다.

독일이 작문연습은 교재가 몇 개 있기는 하지만 일부 문법에만 편중되어 있어서 독일어 문장 전반에 걸친 연습은 되지 못한다. 교재 한 권을 선택하여 자신이 부족한 면에 대해서 보충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작문이라고 하면 아주 간단한 문장조차 두려움을 느끼고 쉽게 실수하는 것을 보게 된다. 따라서 앞서 말했듯이 문법과 독해를 공부할 때 처음부터 문장들을 골라 한국어에서 독일어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보다 추천할 만한 방법이다.

에세이는 독해와 작문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다다랐을 때 가능할 것이고, 여러 가지 주제를 선정해 주제에 맞춰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주의할 것은, 독일어 실력은 초등학교 학생 수준이라고 해도 사고력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에세이 연습 답안을 보면 독일어 실력이 부족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앞뒤 문맥이 맞지 않고 너무 단순하게 전개시킨다는 문제점이 눈에 띈다. 단순한 문장을 쓰더라도 생각을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풀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이상에서 독일어 공부 방법을 간단히 제시해보았다. 끈기와 노력이 외국어공부에서도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것이다. 아래에 해석 연습 겸 제시하는 독일어 문장에서도 역시 '인내와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 Wer eine fremde Sprache beherrschen will, soll wissen, daß zum Sprachstudium unter anderem Geduld gehört. Er muß jeden Tag etwas lernen und keinen Tag vergehen lassen, ohne etwas gelernt zu haben. Auch

II. 과목별 必 합격 공부 방법론

nur ein einziges neues Wort oder eine einzige Regel genügt, um ihn vorankommen zu lassen. Er muß keine Mühe scheuen, sich Wörter, Wendungen und die wichtigsten Regeln einzuprägen. Er muß sich bewußt sein, daß zu diesem Zweck Wiederholung immer eines der besten Mittel ist. Er muß sich klar darüber sein, daß ein ungenutzt verbrachter Tag nicht Stillstand, sondern Rückgang bedeutet. Wer einer fremden Sprache Herr werden möchte, muß also fleißig arbeiten, regelmäßig und geduldig über Jahre hin wiederholen.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학공부에 무엇보다도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사람은 매일 뭔가를 배워야하며 하루라도 무언가 배우지 않고 보내서는 안 된다. 새로운 단어 하나, 또는 규칙 하나만으로도 자신을 향상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는 단어와 숙어, 가장 중요한 규칙을 암기하는 일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복이 언제나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라는 사실을 인식해야한다. 그리고 하루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보내버리는 것은 정지가 아니라 후퇴를 의미한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한다. 외국어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은 그러므로 부지런히 공부하고 규칙적으로 끈기 있게 다년간에 걸쳐 반복해야한다.>

다음은 실전문제로 들어가 2004년 시행 제38회 외무고시 독일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로 한다. 에세이 문제는 “영어 조기교육”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작문과 해석은 각각 10점짜리 두 문제씩이 출제되었다. 이전에 100점 만점으로 출제될 때에는 쉬운 문제가 하나씩 섞여 있었던 반면에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중급 정도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하지만 낯선 단어보다는 독일어 공부에서 반복되는 익숙한 단어들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8회 외시 독일어 시험 중 해석 문제 하나를 아래에 예로 들어 답안을 제시해 본다.

<해석 2번 문제>

2) In manchen Kommunikationssituation ist der Journalist oft Vermittler und Übersetzer. Er muss versuchen, die fachsprachlichen Informationen so weit wie möglich für solche Leser und Hörer zuzubereiten, die mit diesen Fachsprachen keine unmittelbaren Erfahrungen haben. Wie schwierig das ist, weiß jeder Journalist aus seiner alltäglichen Praxis.

Kein Zweifel, dass hier ein Normproblem liegt. Es ergibt sich daraus, dass die Produzenten fachsprachlicher Informationen, häufig Wissenschaftler, an einem eng umgrenzten Kreis von Adressaten gewöhnt sind, während sich Journalisten grundsätzlich auf einen großen und unspezifischen Kreis von Adressaten einstellen müssen. Sie können daher nicht in der gleichen Weise sprechen oder schreiben, wie es die Experten zu tun pflegen. Hier entsteht das dringliche Problem der Verständlichkeit.

<많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기자는 흔히 중재자 겸 번역자이다. 전문용어에 대해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는 독자와 청취자들을 위해서 기자는 전문용어로 된 정보를 가능한 한 폭넓게 준비하려고 애써야 한다. 기자라면 누구나 매일의 경험을 통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다.>

여기에 기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것은, 전문용어로 된 정보의 생산자, 즉 흔히 학자들은 좁게 제한된 범위의 수용자에 익숙해 있는 반면에, 기자들은 원칙적으로 광범위한, 비전문적인 범위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기자들은 전문가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말하거나 글을 쓸 수 없다. 여기에서는 쉽게 이해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문제가 생겨난다.>

Ich wünsche Ihnen alles Gute! Viel Erfolg!!

□ 스페인어

박기호 선생

합격의 법학원 행의시 2차 스페인어 전임

학습과정	교재	목표	개설시기
1. 문법 및 회화입문 (2개월)	가장 쉬운 스페인어 첫 걸음의 모든 것 (동양문고)	1. 기본 ABC~총정리 2. 어학감각도모 회화입문	5개월씩 순환되어 개설. 매월 시간표 참조. 회화 수업은 본인 학습목적(어학능력시험) 및 선호(회화를 통한 학습효과 배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무료 특강임. 문법 수업을 놓친 경우 독학으로 어느 정도의 지식을 습득한 경우 초급과정 수강 가능.
2. 초급 및 기초회화 (3개월)	Dos Mundos (추후구매)	1. 자세한 텍스트 분석을 통한 문형숙지 및 중급을 위한 어휘 다지기 2. 기본회화 강화를 통한 어학감각도모 및 초중급회화 준비	

3. 중급	중급에서 고급수준까지의 다양한 프린트 제공	일반주제에서 시사까지 다양한 주제의 독해연습 및 작문첨삭을 통한 중급 및 고급수준 형성도모 * 연계 회화연습 추후공지	년 중 매월 다른 내용으로 개설(3월제외)되며 학습 기대치 및 방향에 맞추어 수강기간 조절함. 본 과정 수강 초반에 본인의 문법 및 어휘 지식을 스스로 점검하며 어학수준을 올리는 눈을 갖도록 함. 5급공채 및 어학능력시험 등을 위한 튼실한 사전작업.
-------	-------------------------	--	---

4. 모강	1개월	실전대비 독해/작문/에세이	3월 개설 실전대비 연습 및 실력 체크
-------	-----	----------------	--------------------------

1.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어요!

"남들이 스페인어가 쉽다고 해서 선택했어요, 얼마나 공부하면 됩니까?"
"어, 글썄요..."

[쉬운 일 세상에 없다는 말, 사실입니다. 어느 외국어는 쉽거나 어렵다는 말은 사실일 수도 있지만, 한 나라의 문화가 녹아 들어 있는 외국어를 abc 처음부터 배워 적정수준의 단계에 올라 버겁게나마 번역을 할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면서 즐거운 고생(?)을 해야 합니다. 개인이 하루에 얼마나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집니다.]

"저는 영어를 합니다. 스페인어로 된 문장들을 보면 대충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아, 예"

[스페인어 첫 수업, 굳이 처음부터 알파벳을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abc 알파벳이 거의 영어와 같고 발음기호

Ⅱ. 과목별 必 합격 공부 방법론

가 따로 없이 그대로 발음되기 때문에 30분 안에 읽기가 완성되고 관사용법도 영어지식을 이용해 금방 숙지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가 중고급 수준의 글을 보아도 대략적인 뜻을 파악할 수있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자신의 어학적 감각과 능력을 다소 높게 평가하여 조금만 공부하면 되겠거니 할 수 있지만, 나에게 쉬운 것은 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영어지식과 고등학교 때 배운 다른 외국어 지식이 상당한 도움이 되어 스페인어 학습 과정이 수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고 우수한 쓰기와 읽기를 위해서는 당연한 말이지만 적정시간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스페인어는 동사변화 외우기가 힘들어요"
"음..."

[모든 외국어가 현지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터득 되기도 하지만 보통 우리는 문법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공통 외국어 영어는 이르면 초등학교부터 아주 조금씩 노래도 하고 만화도 보면서 되도록이면 외국어에대한 거부감 없이 편안하게 노출되는 과정에서 감각을 키우고 흥미로운 학습이 되게 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뒤늦은 출발을 하는 제2외국어학습은 시간상의 문제로 (특히 행외시 시험준비의 경우) 단권화된 다소 두꺼운 문법책을 1~2개월 만에 이해하고 암기한 뒤, 바로 스페인어로 또는 한국어로 번역하는 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외국어를 접하는 기쁨과 재미를 조금 느끼는 것과 동시에 추상화와 같은 생소한 단어를 처음부터 많이 외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I am a student 하며 영어를 배운 것 처럼 Soy estudiante 같은 여러 문장들을 암기하면서 문형을 빨리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스페인어를 공부하면 시제별로동사가 어미변화를 하는 것을보게 됩니다. 이는 영어와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영어와는 다르네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르지요, 나라가 틀리고 문화가 다르니까요. 위에서 말한 것처럼 단기간에 공부해야 하기에 무게감이 느껴진 것이지 더 어렵다거나 쉽고 한 것은 아닙니다. 불어, 독어, 일어, 중국어 모든 외국어가 다 자기만의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한국어, 영어의 세계와는 다른 스페인어의 매력에빠져 중얼중얼 동사를 자연스럽게암기하게 됩니다. 이상한 느낌없이!]

2. 입문 ABC ~ 번역

"교재는 무엇이 좋을까요"
"수준에 따라 선택하세요"

[스페인어 학습과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보겠습니다.

입문 ABC : 두꺼운 문법책부터 학습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 가벼운 회화 위주의 얇은 책이나 문법 전반을 쉬운 예문으로 설명해주는 교재를 통해 전반적 이해를 합니다. 기간: 1~ 2개월

□ 문 법 :

입문과정을 생략하거나 예전에 스페인어를 배운 경우, 시제,관계대명사 용법, se의 용법을 정확히 이해해야 추후 독해작문 과정에서 예문을 통해 자기것으로 만들 수 있으므로 자세하고 꼼꼼한 설명과 이해를 통해 추후학습을 통한 상승효과를 갖기를 바랍니다. 문법과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 독해시 간단한 문법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을 어렵게 여겨 독해작업에 쉽게 지치는 경우도 있고 작문시에는 쉽사리 풀어나갈 수 있는 문장을 정확한 어법을 사용하지 못해 계속 틀린 문장을 사용하거나 어렵게 문형을 만들어 뜻을 통할 수 있으나 눈에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문장을 나열할 수 가 있습니다. 입문 혹은 문법과정을 통해 매일 공부하면서 한국어의 어떤 문장을 스페인어의 어떤 문장으로 전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능동적 학습을 해야겠습니다. 한번 더 언급하자면, 초기에 정확한 이해를 통해 튼튼한 기초를 쌓아야 추후 공부에 시간이 덜 소모되고 실력향상이 더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기간: 1~3 개월* 발음부터 문법까지의 교재는 선택적임, 고급수준의 어려운 책도 있고 예문이 책도 있습니다.

□ 초급과정 :

쉬운 독해교재와 단문형태의 작문연습을 통해 스페인어의 모든 문형을 숙지하는 과정. 어학시험을 치르는 경우 시험 내용이 어려운 단어나 문장이 포함되어 있는 가운데 대부분 기본 문형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무리 쉬운 단어라도 내가 모르는 경우 그 단어는 어려운 단어입니다. 특히, 제2외국어에서는 영어의 중고급 수준의 단어라도 외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해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고급수준의 글도 읽어야 하지만, 초중급의 단어를 알고 있지 못하면 결국 작문에서 허점을 보이게 됩니다. 모든 문장은 결국 단어가 바뀌는 것일 뿐, 고급수준이라고 해서 새로운 문법이 포함된 것은 아니므로 단문작문 연습을 통해 어떤 한국어 문장을 보더라도 스페인어 문형의 틀 속에 맞출 수 있는 훈련을 해야합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꾸준한 연습을 하면, 한국어에서 스페인어로의 문장구성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됩니다. 초급수준의 글을 읽으면서 기본동사에 대한 응용, 동사시제에 대한 암기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연습이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아울러, 학교, 가정, 여행, 음식 등 문화와 관련된 기초 단어들이 생소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학습기간은 따로 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나의 교재를 반복해 본다면 수업진도, 본인의 성취도에 따라 정해야겠습니다. 영어로 설명이 된 스페인어 문법독해 겸용의 교재도 권장할 만 합니다. 초급문법과정에서 이미 한국어로 된 교재로 공부하였으니, 영어지식을 활용해 스페인어를 공부하면 이해도가 빨라지며, 아울러, 영어와 스페인어의 관사사용이나 표현상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영어로 설명된 스페인어 교재에는 문법은 쉬운 예문들로 설명을 하고 독해에는 문화, 역사 등에 대해 중고급의 단어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수준을 높여줍니다. 이를 통해 문법을 익히면서 중고급으로 발전해 갈 수 있고, 학습분야 별로 단어가 구성되어 다양한 분야의 단어를 외울 수 있습니다.

□ 중고급과정 :

기초를 확실히 하고 중고급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중고급 수준의 글도 읽고작문도 하면서 다시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기초= 중고급, 즉 같은 수준의 것입니다. 중고급 수준의 글을 읽다가도 시간을 내어 초급수준의 글도 짚고 읽어 가면 미처 발견하지 못한 표현법도 새로 터득하게 되고 한국어의 어려운 표현도 쉬운 스페인어 표현에 맞추어 작문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신문 기사라든지 중고급 수준의 단어가 들어있는 글도 읽어야 합니다. 독해가 작문 연습입니다. 독해시 쉬운 표현과 단어를 잘 익혀두어 작문에 활용하여 작문실력이 향상되게 합니다. 작문은 일단 펜을 들어모든 문법, 어휘실력을 동원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고, 스스로 다시 읽어 보면서 틀린 문법이 있는지 어휘가 적절한지 철자가 틀리지 않은지 문법책과 사전을 찾아보면서 단어, 숙어, 문법을 정확히 정리해 두어 향후틀리지 않고 쓸 수 있게 합니다. 수업이나 스터디를 하면서 작문연습을 한다가나 독해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표현이 맞았는지 확인하게 되는데, 우리가 외국인과 자꾸 틀리면서 말을 하는 과정에서 말하기 실력이 커지듯이 작문과 독해도 틀리면서도 계속 해봐야 합니다. 교재 및 학습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꼭 정해진 만큼 조금씩이라도 해야 하며 시험직전까지 노력하여 어느 경우라도 담담하게번역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기도록 공부합니다. 교재는 따로 정할 필요없이 책, 신문, 인터넷등에 발췌해 보면 되겠습니다.

□ 실전연습 :

여러 분야의 글을 읽어보고 일반적으로 알아야하는 단어들을 익혀둡니다. 평소 글을 읽을 때 뜻을 잘 이해하고 분석적으로 읽어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경우 적절히 처리하고, 작문시에도 문장이 잘 풀리지 않은 경우, 그 뜻을 헤아려 쉽게 전할 수 있는 대처능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시험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가요"

"독해 및 작문 각각두 개씩, 그리고 에세이(행시제외)가 출제됩니다"

"스페인어를 공부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스페인어 재미있는데~"

□ 일본어 공부방법론

민혜정 선생(합격의 법학원 행외시 2차 일본어 전임)

I. 일본어란 어떤 언어인가?

1. 일본어의 위상

외국어로써 학습되는 언어는 대체적으로 그 언어의 사용 인구, 경제력, 정치력, 정보력 여하에 따라 위상이 정해집니다. 일본어 역시 사용 인구, 경제력, 정보력에 있어 두드러지는 언어로서 외국어로서의 위상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일본은 한국과 같은 문화권에 속해 있고 다방면에 걸쳐 빈번한 교류를 수반하는 나라입니다. 앞으로 양국 비자 면제 및 전면적 문화개방이 시작된다면 일본어는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보다 더욱 중요한 언어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2. 일본어는 어떤 언어인가?

일본어는 한국어와 어순이 같고 같은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배우기 쉬운 언어입니다. 문화나 의식도 거의 한국인과 비슷하기 때문에 문화적 저항감도 많이 없습니다.

일본어도 한국어나 영어와 마찬가지로 用言에 형용사와 동사가 있고 각각 활용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로 활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문법은 무척 간단합니다. 조동사도 형용사와 동사의 활용형과 같기 때문에 조금만 연습하시면 금방 마스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Ⅱ. 외무고시 일본어 수준은?

외무고시 일본어는 독해와 작문, 자유 에세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파트 모두 능력시험 2급~1급 정도의 수준입니다.

능력 시험 2급 수준이란, 약간 고도의 문법 한자(1,000자 정도)・어휘(6,000어 정도)를 습득하여 일반적인 회화가 가능하며 읽고 쓸 수 있는 능력(日本語를 600시간 정도 학습하고 중급 日本語코스를 마친 레벨)입니다.

능력 시험 1급 수준이란, 고도의 문법・한자(2,000자 정도)・어휘(10,000어 정도)를 습득하여, 사회생활이 가능한 정도와 대학에서 학습, 연구가 가능한 종합적 일본어 능력 (日本語를 900시간 정도 학습한 레벨)입니다.

외무고시 일본어는 한자 1200자 정도, 어휘 8,000어 정도가 필요하며, 독해와 작문으로 구성되므로 회화 능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본어를 약 700시간 학습한다면 도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한자는 많이 습득할수록 좋겠지만 외시의 채점기준은 정확성 보다는 유창성이기 때문에 한자나 어휘를 정확하게 쓰는 것보다는 일본어다운 일본어를 구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유창한 일본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수필이나 소설 등 다양한 지문의 독해를 많이 접해야 합니다.

Ⅲ. 외무고시 일본어 대비 공부 방법론

일본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외시 일본어 대비 수준까지 올라가시려면 통상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보통 1년 정도의 시간에 끝내십니다. 일반인보다 공부할 시간이 많고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어 문법은 활용 문법(기초 과정)과 문형 문법(중급 과정)으로 나뉘어 집니다. 문형 문법을 공부하시면서 약 1200여자의 한자와 8,000어 정도의 어휘를 암기해 나가셔야 합니다. 어휘를 공부하실 때는 하나하나의 어휘보다는 기초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독해를 접하시면서 문장 속에서의 쓰임에 대해 학습하셔야 오래 남고 쓸 수 있는 어휘가 됩니다.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일본어 역시 유의어의 구별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살다’라는 표현이라도‘住む’는‘거주하다’,‘暮す’는‘생활하다’生きる’는‘죽지 않고 살다’의 의미가 됩니다. 위에 설명 드린 것처럼 어떤 장면에서 어떤 문장에서 어떤 어휘를 사용하는지 주의깊게 살펴보시면서 공부하신다면 유의어 학습이 재미있게 느껴지실 겁니다.

일본어 학습은 3월부터 8월까지 3시간씩, 9월부터 시험일까지는 2시간씩 공부하시면 됩니다.

IV. 외무고시 일본어 추천 교재

1. 초급 단계 :

「일본어 문법 1개월 완성」 (서해문집)

2. 중급 단계 :

「김후련 일본어」 (다락원)

「일본어 능력 시험 2급」 (지사일본어사)

「일본어 능력 시험 1급」 (지사일본어사)

「일본어 중급 점프」 (지사일본어사)

「일본어 독해 둘째 고비 쉽게 넘기」 (지사일본어사)

3. 고급 단계 :

「中級부터의 日本語」 (진명 출판사)

「高級日文解釋研究」 (法文社)